

第144回國會
(閉會中)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第20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12月20日(火)

場 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145號室)

議事日程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

審查된 案件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계속).....1面

(10時2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
(계속)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를 上程하겠습니다.

오늘 證人으로는 全斗煥 前大統領을 비롯해 金玉吉證人 柳炳賢證人 崔 雄證人 權承萬證人으로 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全斗煥證人은 國民이 원하면 어디에든지 가겠다고 約束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다고 拒絕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다른 기회에 듣기로 하고 오늘은 나머지 분으로서 證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로 金玉吉證人과 柳炳賢證人의 證言을 同時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證言을 듣기 전에 關聯 法律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에는 證人이 同法을 違反하면 處罰을 받을 수 있는 規定과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證言內容에 대하여 不利益處分을 받지 않는다는 保護規定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證人들의 宣誓가 있습니다.

金玉吉證人 앞으로 나오셔서 宣誓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金玉吉

(證人宣誓)

○委員長 文東煥 다음은 柳炳賢證人 나오셔서

宣誓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柳炳賢

(證人宣誓)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金玉吉 柳炳賢 두 證人에 대해서 各 交渉團體別로 配定된 時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民主正義黨에 30分 平和民主黨에 35分 統一民主黨에 65分 新民主共和黨에 30分 그리고 朴燦鍾委員에 20分 이렇게 되었습니다.

時間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차례 말씀드렸음이다라는 될 수 있는 대로 반복을 피해 주시고 要點을 명확히 質問해 주시고 솔직한 정확한 答辯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質問順序는 金光一委員 45分 金文元委員 15分 辛卿植委員 15分 趙洪奎委員 15分 吳景義委員 20分 玉滿鎬委員 15分 安榮基委員 15分 辛基夏委員 20分 朴燦鍾委員 20分 이런 順序로 됩니다.

그러면 먼저 統一民主黨의 金光一委員께서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光一委員 統一民主黨의 金光一委員입니다.

먼저 金玉吉證人에게 묻겠습니다.

證人은 大學敎授로서 평생을 또는 大學의 總長으로서 우리나라의 敎育을 위해서 바친 존경받는 代表的인 敎育者였고 특히 1979年12月14日에 文敎部長官이 되어 1980年5月20日 辭職할 때까지 5個月 남짓한 동안 우리나라의 어려운 歷史的 變換期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 職務를 가장 성실하고 良心的으로 遂行해서 그 活動을 통해서 國民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本人도 알고 계시지요?

○證人 金玉吉 존경받는 것까지는 모르겠네요.

○金光一委員 그래서 그 당시 國務委員으로서 겪은 그 무렵의 事實을 가장 정확하게 事實대로 證言할 것으로 알아서 證人으로 申請한 것입니다.

證人이 國務委員으로 入閣하게 된 經緯는 어떠했습니까?

○證人 金玉吉 제가 國務委員으로 들어가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또 時間없다고 그만 두라고 안그러시겠어요?

○金光一委員 될수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要點만...

○證人 金玉吉 國務委員이 된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당시의 國務委員이었던 한 사람으로 光州의 여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과 누나들과 동생들 그 분들에게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고 동시에 그 당시의 國務會議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謝罪를 해야 할지 유감의 뜻을 다 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金委員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長官이 되었는데 저는 梨花女子大學校總長 18年이라고 하는 長期執權을 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 해에 79年9月 總長職을 隱退라면 隱退이고 그만 뒀다면 그만 두고... 隱退하고 學校를 떠나서 地方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런 때에 어느 날인지 제가 그 날짜는 기억 안되겠습니다마는 12月 10日... 어느날 國務總理室에서 電話가 왔다고 그래서 받았더니 「풀라자 호텔」 몇층으로 申總理께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申總理께서 文敎部長官을 맡으라고 그래서 나는 總長職도 내 한계를 느껴서 내놓은 사람이라고 사양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번 말씀하시길래 總長職을 그만 두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꼭 필요합니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받았읍니다.

○金光一委員 證人께서 要點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證人 金玉吉 그래요? 저 말씀 다 드렸어요. 끝났어요.

○金光一委員 證人이 그 당시의 崔圭夏政府의 성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入閣하실때...

○證人 金玉吉 저는 過渡政府로 알고있고...

○金光一委員 그 時期는 얼마 정도로 보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저 5·6個月로 봤지요.

○金光一委員 그 過渡政府에서 證人이 할 수 있는 役割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평소에 고마운 集團이 여럿 있는 중에 저는 國民學校 先生님들에게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또 總長 18年 하는 동안에 指示와 모든 先生님들은 處罰과 嚴罰과 認可取消의 對象者라고 할 적에 저는 그것은 敎育의 입장에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날부터 自律을 말울 했고 校長先生님들을 더우기 國民學校初等敎育에 重點을 두는 것을 얘기울 하고 싶었고 그런데 自律이라고 하는 데에는 責任이 따르는 것이고 스스로 해야 하는데 하도 오래동안 指示에 젖어 있던 여러분들이 指示를 자꾸 기다려서 좀 어려웠지요.

○金光一委員 예. 本人이 알기로는 證人은 文敎部長官으로서 制度的으로 學園의 自律化 또 學生自治를 위한 學徒護國團改善이라든지 軍事訓練問題 등에 대해서 그 당시에 學生들이 요구하는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모두 改善하는 노력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980年2月 무렵 이제 學生들이 자기네들 主張을 集團의으로 表出하기 시작한 그 때까지를 묻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그때까지 2月까지는 學則改正 除籍生の 復學 學術振興局의 廢止 學生會長 直選등 學徒護國團의 改善 또 敎練免除등 學生들 자신에 관한 억압과 통제를 해소시키는 문제 등으로 學園의 自律化 또는 民主化 措施 등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었지요? 2月까지는...

○證人 金玉吉 그렇지요.

○金光一委員 그리고 3月 4월에 들어오면 조금 달라지는데 3·4月の 學生들의 要求는 御用敎授의 退陣 또 學園의 族閥運營 廢止 學內 不正의 청소등 이번에는 學校當局과 敎授들의 正常化를 要求하는 것이 主宗을 이루었는데 그렇지요?

○證人 金玉吉 예.

○金光一委員 거기엔 世宗大學事件이라든지 또 建國大學 成均館大學 延世大學 全北大 등에서 族閥問題 또는 總長의 御用敎授問題가 나와서 多數 總長이 退陣하는 등의 그런 결과가 있었지요?

○證人 金玉吉 글쎄 總長先生님들이 退進을 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金光一委員 기억이 안나십니까?

○證人 金玉吉 예.

○金光一委員 그 다음에 위 두가지 爭點들은 오랜 維新獨裁體制아래에서 學園自由와 學問의 獨立이 말살되었던 大學에서 時代의 變換期에 반드시 겪어야 할 改善作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그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金光一委員 이제 學生들이 자신들의 문제나 學園의 문제를 떠나서 政治的 口號를 가지고 時局을 聲討하며 街頭示威로 進出한 것은 5월들어서였다는 것도 맞지요?

○證人 金玉吉 거의 그랬을 것입니다.

○金光一委員 또 그 時期는 5個月이라는 것은 4月14일에 國軍保安司令官 兼 合同搜查本部長이었던 全斗煥將軍이 中央情報部長署理職을 兼職한 후였고 4月14일에... 그것은 틀림이 없지요?

○證人 金玉吉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든지 學校의 또 先生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생각했지 누가 뭐 中央情報部長이 되고..... 저 솔직한 말씀이 저 아직도 書記官과 事務官 區別을 못하는 정도인데 누가 무엇이 된거가 저한테는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아무 저기도 없었어요.

○金光一委員 좋습니다. 學生들이 政治的인 主張을 口號로서 나타낸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그것은 金委員께서 더 잘 아실 것같은데...

○金光一委員 예.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지요. 맞는지...

政府主導의 改憲을 반대한다. 또 정치일정을 단축하라. 유신잔존세력은 민중의 공적이다. 이원집정부제를 반대한다. 계엄령을 조속히 해제하라. 이런 것들이 대개 맞습니

까?

○證人 金玉吉 新聞에 그때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金光一委員 이런 口號와 또 集團的인 示威가 나오게 된 것은 그 당시에 學生들이나 國民들 모두가 그런 主張들을 대다수 원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 金玉吉 口號를 대다수가 원했다고 제가 그렇게 斷定할 수는 없습니다.

○金光一委員 口號에서 主張하는 내용들...

○證人 金玉吉 내용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제 個人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한다면 政治時限 短縮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장 빨리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것은 제가 모르니까 저는 二元執政府制가 무엇인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나 一般的으로 國民들이 維新體制에서 大統領을 間接選舉했다는 것때문에 새로운 憲法에서는 大統領을 직접 國民의 손으로 뽑는 憲法으로 改正하고.....

○證人 金玉吉 그것은 그렇게 改正하려고 準備를 하고 있었지 않아요. 崔大統領이나 申總理께서도.....

○金光一委員 그러니까 一般的으로 國民들이나 政府가 다 그런 方向으로 원했던 것은 사실이었지요?

○證人 金玉吉 저는 그렇게 準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金光一委員 이제 政治日程에 관해서 말이지요 證人께서는 過渡政府가 한 5個月정도로 보았다는 것은 한 5·6個月이면 그일이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證人 金玉吉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金光一委員 그런데 政治日程에 관해서는 崔圭夏大統領이 就任式에서 말이지요. 빠른 期間안에 改憲案을 마련해서 國民投票에 붙여 그 憲法에 의한 새 政府에 政權을 移讓하겠다 그런데 새 政府의 出帆은 81年 봄에서 여름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예.

○金光一委員 그러면 證人이 생각하신 5·6個

月보다는 한 3倍정도의 時日이 더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이지요?

○證人 金玉吉 그것이야... 날짜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분이 計劃하는 것하고 똑같으라고 할 수는 없을텐데요.

○金光一委員 그러니까 客觀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金玉吉 그것은 차이가 있었겠지요.

○金光一委員 예. 또 改憲案은 國民들의 代表機關인 國會에서 79年11月29일에 이미 改憲特委를 만들어서 與野合意에 의한 改憲案을 마련중에 있었고 또 그 骨格은 大統領直選制로서 維新以前의 憲法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체적인 骨子였다는 것은 생각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야카도 말씀드린대로 그런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뭐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줄 알지 그것을 그렇게 저는 따지고 거기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金光一委員 예. 그런데 이렇게 國會에서 改憲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政府에서 3월에 政府의 改憲審議會가 만들어져서 또 政府는 政府 나름대로 改憲案을 研究 準備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 무렵에 政府側에서 혹시 二元執政府制라는 것을 構想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 申鉉碩副總理를 중심으로 해서 新黨을 만들지 않나 하는 그런 世間的 의심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요?

○證人 金玉吉 저는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金光一委員 잘 모르겠습니까?

○證人 金玉吉 관심이 없었으니까.....

○金光一委員 그점을 잘 모르신채 學園問題가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學園은 다 각각 저 말은 일이 소중하고 저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文教長官으로서 政治日程을 따지고 뭐 누가 어떻게 되는것 사방을 둘러보다가는 제일도 못다 하면서 어떻게 다 하겠어요?

○金光一委員 그 점은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또 戒嚴令이 宣布된 것은 朴正熙大統領 殺害事件을 뒷마무리하기 위해서 戒嚴令이 宣布되었었고 실제로는 그 殺害犯人 金載圭씨가

裁判에 回附되어서 裁判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또 戒嚴軍들은 대체로 學園에서도 다 돌아가고 그런 狀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지요?

○證人 金玉吉 예.

○金光一委員 그렇기 때문에 非常戒嚴이 宣布되어 있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주로 言論檢閱 그리고 許可없는 集會 示威의 統制 이런 것들이 그 무렵에는 非常戒嚴의 實質의인 效力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證人 金玉吉 글썽 그것도 저는 戒嚴下라고는 생각지 않고 몇달 동안 長官을 지냈기 때문이에요 이것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金光一委員 괜찮습니다.

證人께서 文教部長官이셨는데 戒嚴下라는 생각이 없을 정도였다...

○證人 金玉吉 저는 戒嚴下라고 생각만 했어요.

○金光一委員 그럴 與件도 아니었다고 생각하신 것이겠지요.

○證人 金玉吉 戒嚴下라고 생각도 안했고 제가 計劃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났으니까요 저는 뭐 꼭 그렇게 戒嚴下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金光一委員 그래서 國民들이나 또는 證人께서도 5·6個月이면 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시일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또 國會에서 改憲案을 만들면 될텐데 政府에서도 만드는 것 같고 또 一般的으로는 大統領直選制로 憲法을 만들면 되는데 二元執政府制 같은 것이 政府에서 論議되는 것 같고 또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보아서 그 당시에 國民들이나 政治人들 사이에서는 이 政治日程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政局은 안개政局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은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요건 聽聞會에서 처음 들었어요.

○金光一委員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오시는 데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지요?

○證人 金玉吉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金光一委員 안개가 끼면 앞을 잘 내다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狀況이기 때문에 學生들이 야카 말한

그 政治的인 口號들은 學生들의 입장으로서는 政治日程을 短縮하라 또 戒嚴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戒嚴令이 그냥 계속되고 있으니까 戒嚴令을 解除하라 또는 國會에서만 憲法을 고치는 作業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主張들은 一般的으로 國民들이 主張할 수 있는 내용을 學生들이 대신해서 主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그렇게 斷定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憲法인가 무언가를 만들어도 어느 한 군데에서만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군데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은 國會를 通過해야 그 法이 施行될 것인데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만들어 보아서 좋은 것으로 擇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金光一委員 예. 그 점에 대해서는 證人께서 憲法의 規定이나 또 節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證人 金玉吉 모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거예요.

○金光一委員 상세한 質問은 안 하겠습니다.

證人은 이제 이런 5월에 學生들이 政治的인 口號를 내걸고 集團的인 示威을 하고 할 그 무렵 5月2日 病暇를 내시고 2週日동안 집에서 쉬셨지요?

○證人 金玉吉 예. 제가 사실은 4月末에요 申總理께 辭表를 提出했어요 辭表를 提出했더니 申總理 말씀이 아! 糖尿야 좀 治療하면서 저기하면 되지... 그래서 辭表受理를 안해 주셨어요.

○金光一委員 辭表提出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제가 도저히 제 健康이 전될 수가 없었어요.

○金光一委員 단순히 健康上의 이유였습니까?

○證人 金玉吉 健康과 또 제가 모르는 일들이 學生들이 示威을 하되 暴力을 쓰는 것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용납하기 어렵다고 봐요.

○金光一委員 學生들은 그랬고...

○證人 金玉吉 유리를 깨고 야단을 하면 결

국 그것이 國民의 税金으로 補修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누구 아무도 자기 주머니에서 꺼진 것을 補修하는 사람 없어요 또 知性인들이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暴力을 쓰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대접할 줄 모르고 자기는 父母도 없어요. 어른들 앞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그러한 불손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꼭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學生이 學生의 身分을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기 責任 다하지 못하고 學生이 공부 안하고 成績이 落第點數에 가면서 떠든다고 한다면 그 學生 무엇에다 쓸거예요?

○金光一委員 그러면 學生들이 證人의 견해에 맞는 行動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또 그 이외에 學生들의 正當한 要求를 受容해 주어야 할 政府가 그런 措置를 取하지 않는데 대해서 證人이 政府에 대한 不滿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누구한테 그렇게 不滿을 가질 것은 없고요 제 스스로를 돌이켜 복적에...

○金光一委員 그러니까 政府에 대해서... 證人! 文敎部長官으로서 學生들의 주장이 正當한 점이 있으니까 받아주어야 한대라고 말한 일은 없습니까?

○證人 金玉吉 받아줄 것은 다 어느 정도 받아주었다고 저는 보고요... 어느 정도 받아주었다고 보고 學徒護國團問題란든지 軍事問題란든지 또 제가 女學校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軍事에 대한 것 물랐고요 또 學徒護國團도 다 廢止하자고 들고...

○金光一委員 그 이외에 政治的인 주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證人 金玉吉 政治的인 문제도 그렇지요 제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金光一委員 물랐습니까?

○證人 金玉吉 情報도 없고 뭐를 알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말로 할 수 있고 또 당당하게 討論으로 하지 왜 暴力을 쓰느냐 저는 그거예요?

○金光一委員 暴力問題를 떠나서 根本的인 문제 解決을 위해서 證人께서 政府 總理나 또는 大統領에게 政府側에서 改善해야 될 점에

대해서 建議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물었습니다.

○證人 金玉吉 제가 날자로 해서 기억은 없
지만 그 때 제시던 분들은 다 함께 어떻게든
지 그것을 順理대로 解決을 하고 順理대로
이루어 나가려고 애썼다고...

○金光一委員 建議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
니다. 文敎部長官으로서...

○證人 金玉吉 그렇게 또라지게 建議했다고는
그렇게 對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金光一委員 新聞報道에 의하면 證人은 5月2
일부터 2週日間の 病暇에 들어갔다가 11日
全國 總學長會議에 參席하고 다시 쉬다가 14
日에 13日만에 登廳해 가지고 學生들의 街頭
示威에 관해서 申總理를 訪問하여... 證人께
서 말입니다.

新聞報道를 보고 묻는 것입니다.

證人의 전해를... 學生示威에 관한 證人의
전해를 밝힌 바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 이
튿날 證人은 記者들에게 또 밝힌 내용이 있
습니다.

14日 아침에 申總理를 訪問해서 證人이 建
議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金玉吉 제가 14日 申總理 訪問한 것
으로는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金光一委員 안 납니까?

○證人 金玉吉 예.

○金光一委員 안나신다면 더 그 문제는 안
문겠습니다.

○證人 金玉吉 저도 그 때 新聞記事를 들추
어보았는데요 저는 申總理를 訪問해서... 그
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新聞記事에는 申總理를 訪問해 가지고 大統
領이 歸國하는 대로 政府의 時局에 대한 態
度 表明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證人 金玉吉 그것은 아마 전체 國務會議에
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金光一委員 예. 그러면 證人은 그 이튿날
學園問題에 언급하면서 이것 5月15日입니다.
이것이 歷史적인 날이 닥아오는 이를 전이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려서 또 證人께서는 新聞
등을 쟁거가지고 정확한 答辯을 하시기 위해
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學園問題에 대한 언급이 新聞에 報
道된 것은 이렇습니다.

學園問題와 政治問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崔大統領이 歸國하고 20日에 國會가
열리면 政治日程등 政府의 具體적인 方案이
밝혀질 것이므로 그 때까지 學生들은 기다려
야 한다.

學生들의 주장에 대해서 政府가 귀를 기울
이고 있으니 過激示威은 삼가달라 이렇게 말
씀했었는데 맞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것은 사실입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면... 그리고 또 申總理
역시 證人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비슷한 내
용을 또 公言하셨습니까. 그러면 證人께서는
大統領이 歸國하면 國會에 出席해 가지고 어
떤 政治日程을 밝힌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
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金光一委員 물랐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것은 모르지요.

○金光一委員 그러나 證人께서 그렇게 말씀하
신 것으로 보면 學生들의 示威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劃期的인 發表가 있을 것으로 기
대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金玉吉 기대야 했겠지요.

○金光一委員 어떻게 하리라고 기대하셨습니
까?

○證人 金玉吉 저는 學生들과 以北에서 넘어
온 離散家族과 日帝를 겪은 사람 4·19를
겪은 사람 이 世代는 그렇게 騷擾와 불안전
한 거가 참말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
니다.

○金光一委員 아니 그러니까 大統領이 와서
어떤 日程을 國會에서 밝힐 것으로 기대하셨
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거야 順理대로 밝혀주시고
안정을 가져오기를 기대를 했지요.

○金光一委員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
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것은 제가 할 게 아니지
요. 제가 大統領 아닌데 그것을 제가 왜 내
용까지 생각하겠어요?

○金光一委員 그러나 學生들이 街頭示威를 하
는데 너희들 이야기는 政府에서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大統領이 오면 國會에서 뭔가

밝힌다 政治日程 등을... 그러면 너희들은 조용해질 것이라라고 생각했다면 그 때 밝힐 내용은 證人은 崔大統領과 協議는 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政治日程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學生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學生들이 要求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 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金玉吉 아! 그런 기대야 있었겠지요.

○金光一委員 그러자 그 發表가 나가 15일에 極에 達했던 學生示威가 16일은 梨花大學校에서 24個 大學 學生會長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의 意思는 충분히 반영되었다 기다려보자.

5月20일에 國會가 열리니 國會가 열린 이틀후인 5月22일까지 기다렸다가 만약 要求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22일에 大規模 集會를 하겠다 이런 決意를 하고 일단 16일부터는 正常授業에 復歸한 사실...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압니다.

○金光一委員 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學生들이 文敎部長官인 議人이 말씀을 믿었고 또 그런 기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證人 金玉吉 제 말만이 아니라 全體를 믿은 거겠지요. 믿으려고 피차에 노력을 했겠지요.

○金光一委員 그런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무슨 非常戒嚴을 擴大한다거나 또 學園에 軍人들이 새삼스럽게 駐屯한다거나 또는 國務會議를 제쳐놓고 어떤 다른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같은 이상한 무슨 機構가 생긴다거나 軍人들이 政治 全面에 나선다거나 이런 것은 證人도 전혀 생각을 못 하셨지요?

○證人 金玉吉 맥에서도 모른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金光一委員 아니 文敎部長官이시던 證人께서 알으셨느냐 이것입니다.

○證人 金玉吉 전 몰랐지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金光一委員 그러면 5月16日 밤에... 바로 5月16日 그 날 밤입니다. 證人께서 發表하시고 學生들이 조용해진 그날 16日 밤에 崔圭夏大統領이 中東에 石油關係 協議하러 가셨다가 日程을 하루 앞당겨서 歸國하고... 그날

밤에 한 밤중에 深夜時局對策會議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證人께서는 參席하셨습니까? 혹시...

○證人 金玉吉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金光一委員 모르고 있습니까?

○證人 金玉吉 예.

○金光一委員 그때에 가장 중요한 時局問題라면 學生들의 示威問題였는데 學生들의 示威問題를 收拾을 論議하는 자리에 主務部長官인 文敎部長官은 그런 會議가 있는 줄도 모르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 그 이튿날 5月17日로 넘어갑니다.

5月17日 아침에 軍人들은 國防部長官이 主宰해 가지고 全軍主要指揮官 즉 管區司令官級 이상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별 세個자리 이상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3軍의 主要指揮官會議를 열어서 學生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非常戒嚴만 가지고 안되고 濟州道까지 非常戒嚴을 擴大하는 措置를 해야 한다. 또 이 國務會議만 가지고 안되고 非常機構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하는 建議를 하기로 會議를 연 사실을 證人은 그 당시 아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아이... 제가 별도 안달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金光一委員 전혀 모르셨지요?

그날 밤에 臨時國務會議가 열린 것은 아시고 參席하셨지요? 5月17日 非常戒嚴 擴大...

○證人 金玉吉 그날은요 緊急國務會議라고 그래서 내가 辭表는 제출해 놓고 있었고 또 病暇를 말아가지고 있었지만 事務室에는 잘 안나갔지만 緊急이라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날 가서 參席하여서 會議는 한 8分정도 걸렸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玉吉 잠깐 끝나는 것 같아요.

○金光一委員 그날 의논한 내용은 非常戒嚴擴大를 決議한 것이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國防部長官이 案件을 읽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예.

○金光一委員 贊反討論이 있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다 조용했어요.

○金光一委員 贊成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누군가가 했으니까 通過됐겠지

요.

○金光一委員 反對하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反對는 없었어요.

○金光一委員 證人께서는 贊成이나 反對 意思表示를 하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아무 표시도 안했어요.

○金光一委員 證人은 內心으로 그러면 贊成했습니까? 反對했습니까?

○證人 金玉吉 제 內心까지 말씀드려야 해요?

○金光一委員 물론이지요.

國務會議의 構成員인 國務委員은 어떤 國家의 중요한 施策에 있어서 贊反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되니까요. 證人이 아무 표시를 안하셨다 하나까... 그러면 진정으로 贊成을 하셨나 안하셨나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證人 金玉吉 說明을 해달라고 그랬지요.

○金光一委員 그리고는 證人의 贊反意思是 어떻게 됐습니까?

○證人 金玉吉 署名했습니다.

○金光一委員 本心에 의한 署名입니까?

○證人 金玉吉 本心까지 여기서 얘기해야 해요?

○金光一委員 예. 해야 됩니다.

○證人 金玉吉 잘 모르겠습니다.

○金光一委員 證人께서도 다른 證人과 똑같은 방법으로 「모르겠습니다」하시는 것입니까?

○證人 金玉吉 사람인데 똑같지 어떻게 해요?

○金光一委員 證人은 조금 다를 줄 알고 모셨는데요.

○證人 金玉吉 그거야 다 잘 아시면서 왜 자꾸 물으세요.

○金光一委員 잘 아는 사실이라도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지 그날 參席을 안해왔기 때문에 證人에게 묻는 것입니다.

證人은 그날 國務會議場의 분위기는 평소와 같았습니까? 주변의 분위기는...

○證人 金玉吉 퍼 침통하다고 느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날 內部의 분위기는 침통했고... 그 침통이라는 뜻은 전부가 內心으로 反對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침통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證人 金玉吉 제가 남의 그것까지... 제것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기분까지 말을 할 수 있어요.

○金光一委員 그렇게 答辯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그럼요. 제가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金光一委員 남에 대한 것이 아니고 國務委員으로서 다른 國務委員의 태도가 어떠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私人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證人 金玉吉 아니요. 저는 그것은 못하지요. 전체 분위기를 내가 느낀 것은 침통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光一委員 國務會議가 열린 中央廳이 軍人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는 사실을 證人은 목격하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들어가는데 門을 서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金光一委員 보통때는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證人 金玉吉 이쪽 門으로 많이 다녔어요?

○金光一委員 이쪽 門이라는 것이 어느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證人 金玉吉 中央廳 들어가서 오른쪽 門이나 正門으로 많이 다녔고요 그랬는데 西쪽으로...

○金光一委員 軍人들이 서있다가 西쪽으로 가라 하더라...

○證人 金玉吉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西쪽으로 갔지요. 그랬더니 門은 닫혀있고 그래서 이제 누구냐고 그래서 文敎長官이라고 그랬더니 열어줘서 들어갔지요.

○金光一委員 그럼 軍人들이 문을 統制하고 있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軍人들의 복장은 어떠했습니까?

○證人 金玉吉 군복이지요.

○金光一委員 그러면 銃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런 것 하나씩 가지고 섰던 것 같아요.

○金光一委員 銃에 칼 꽂았던가요?

○證人 金玉吉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金光一委員 잘 기억이 안나지마는 軍人들이 승락하지 않았으면 못 들어갈 정도의 분위기

였습니까?

○證人 金玉吉 승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金光一委員 그리고 그 中央廳의 會議室内部의 電話機가 전부 電話線이 절단되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玉吉 글쎄 그것을 저한테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지난 번에 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들으니깐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갈 적에 電話해본 일도 없고 또 거기 들어가서 電話하지도 않았는데 電話線이 끊겼다는 끊겼다는 제가 그런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제가 알 수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新聞에 그렇게 냈다고들 자꾸 그러니까 참 저도 모르겠어요.

○金光一委員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억이 안 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電話線이 절단되었는지의 與否를 모르시는 것입니까?

○證人 金玉吉 알 길이 없지요. 제가 電話하고 가지도 않았고 거기서 또 집이고 어디로 電話한 일이 없으니깐 電話線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는 내가 알 길이 없지요.

○金光一委員 그리고 中央廳建物の 外部에 軍人들이 서있을 뿐만 아니라 中央廳内部에 복도에도 軍人들이 꼭 서있었는데 사실이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것은 사실이지요.

○金光一委員 會議場안에는 軍人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金光一委員 軍人들이 왜 거기 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金光一委員 國務委員들이 會議하는데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軍人들이 서 있고 또 들어가라 마라 하는 것으로 봐서 軍人들이 強壓에 의해서 國務委員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서있었다 이렇게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저 가면서 이것 왜들 그러냐 그랬지요.

○金光一委員 證人自身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왜들 그러냐 하고만 생각했습니까?

○證人 金玉吉 예. 왜들 그러냐만 생각했읍니다.

○金光一委員 이들이 오늘 國務會議場所에서의 國務會議議決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軍隊가 動員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金光一委員 그것까지는 몰랐습니까?

○證人 金玉吉 예.

○金光一委員 그날 國務會議에서 非常戒嚴擴大를 決定하면 그 이후의 조치가 어떠한 것이라는데 대한 議論이 있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없었어요.

○金光一委員 전혀 없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없었어요.

○金光一委員 金大中 金鍾泌씨 등을 체포하고 金泳三씨를 軟禁한다 하는 그런 議論도 없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아무 議論 없었어요.

○金光一委員 그리고 各 學團에다가 空輸部隊나 海兵師團을 보내서 學校를 占領하자는 議論도 없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아무 議論도 없었어요. 그런 議論을 어떻게 8分 동안에 다 해요.

○金光一委員 그러면 그것을 決定해 놓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아무 것도 몰랐지요. 안정이 오는 줄 알았지요.

○金光一委員 그냥 그렇게만 해 놓으면 具體的으로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證人 金玉吉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金光一委員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 文敎部長官이라고 앉아계셨지요.

○證人 金玉吉 그러니까 그만 뒀지 않아요 팔리...

○金光一委員 그냥 敎授의인 양심 그것하나 가지고 하면 될 줄 알고...?

○證人 金玉吉 그렇지요. 나 政治는 몰랐으니까...

○金光一委員 그 당시에 國務會議에서 만약 이래로 있으면 北韓이 쳐들어 와서 곧 戰爭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金光一委員 證人은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玉吉 느끼지는 않았지만 늘 불안은 했지요.

○金光一委員 그런 점에 불안은 했습니까?

○證人 金玉吉 예.

○金光一委員 그 다음에 그때에 이것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난 光州事態와 같은 流血抗拒事件이 일어나리라 하고 혹시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상상 못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럼 證人께서는 그후에 일어난 事件이긴 합니까라는 光州의 流血抗拒事件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전부 綜合해 가지고 보실 때 어떻습니까?

○證人 金玉吉 전 무슨... 아는게 없으니까요. 뭐라고 대답할 말씀도 없지요. 또...

○金光一委員 지금도 없습니까?

○證人 金玉吉 지금도 참 모르겠어요. 답답한 것 뿐이에요.

○金光一委員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證人 金玉吉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답답한 것 뿐이에요.

○金光一委員 좀 研究해 보시지도 않으셨나요?

○證人 金玉吉 내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研究를 하겠어요? 무슨 資料가 있었어야 研究를 하지요.

○金光一委員 그래도 大學總長으로 18年을 지내고 退職하셨고 文敎部長官을 맡으셨고 앞으로는 國民들이 이런 事態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民族의 指導者로서 證人에게 물었을 때 光州事態가 왜 일어났는지를 나는 모르겠노라 그런 정도의 대답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證人 金玉吉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 옳지요.

○金光一委員 좋습니다. 아시는 것을 묻지요.

文敎部長官을 辭任하셨지요? 5月20日...

○證人 金玉吉 辭任했습니다.

○金光一委員 왜 辭任하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때는 전부 一括辭表 냈습니다.

○金光一委員 왜 一括辭表를 내시게 됐는가요?

○證人 金玉吉 전 본래부터 辭任하려고 했고

辭表를 提出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金光一委員 證人은 그러셨는데 건강상 이유로 다른 분들은 왜 一括辭表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다른 분들이 一括辭表를 낸 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金光一委員 國務委員으로서 모르십니까?

○證人 金玉吉 그것은 제가 알 길이 없지요. 다른 분들이 辭表를 낸 것일...

○金光一委員 그럼 證人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光州事件의 현재 進行되고 있는 내용들을 얻어 들으신 것은 있지요?

○證人 金玉吉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당시의 國務委員의 한 사람으로 그 이후에 생긴 여러가지 일들을 들을 적에 몸둘바를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金光一委員 그러면 證人의 個人的인 생각으로써 지금 이 光州問題를 解決하는 捷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은...

○證人 金玉吉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라고 하면은요 누구든지 힘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있는 사람이 너그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光一委員 그렇게 하면 解決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힘있는 사람이... 누가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힘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고 힘있는 사람이 너그러우면 解決이 될 것입니다.

○金光一委員 이 證人에 대한 訊問은 마치고 남은 시간을 柳炳賢 證人에게 묻겠습니다.

證人께서는 5月17日 全軍主要指揮官會議가 있을 때 國防部에서 열린 그 자리에 참석하셨지요?

○證人 柳炳賢 참석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당시 證人의 지위는 合參議長兼 韓美聯合司 副司令官이었습니다.

○證人 柳炳賢 聯合司 副司令官을 兼任하지는 않았읍니다. 合參議長입니다. 그전의 職責이 聯合司 副司令官이었지.....

○金光一委員 5月17日 당시는 合參議長이었습니까?

○證人 柳炳賢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5月17日 國防部에서 全軍主要指揮官會議가 열리기 전에 陸軍主要指揮官會議가 열렸을 때도 참석하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合參議長은 陸軍會議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참석하지 않습니다.

○金光一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主要指揮官會議가 열렸을 때 그 會議가 열리기 전에 證人과 國防部長官 李煥性戒嚴司令官 등과 別室에서 會議 前에 잠깐 議論한 일이 있었습니까?

○證人 柳炳賢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도 통상 會議가 있을 때는 長官室에 일단 集合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集合 혹은 會同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게 약 30分쯤 걸렸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柳炳賢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걸렸는지 혹은 그보다도 안 걸렸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자리에서 그 날의 會議主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證人 柳炳賢 있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자리에서 周永福長官은 어떤 내용의 會議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證人 柳炳賢 그 당시 時局에 대처하기 위해서 軍이 몇 가지 措置를 갖다가 해야 되겠는데 그와 같은 뜻으로서 會議가 召集이 되었노라...

○金光一委員 그때 어떤 몇 가지 措置는 어떤 措置를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證人 柳炳賢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討論했던 것은 또 長官이 말씀하신 것은 戒嚴의 강화 그 다음에 有效 適切한 施行方法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論議하고 싶다는 말이 있었고...

○金光一委員 그 자리에서 非常機構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證人 柳炳賢 그와 같은 發言이 있었습니다. 提議가 있었습니까마는...

○金光一委員 그 다음에 國會를 해산하는 그런 문제도 論議가 됐습니까?

○證人 柳炳賢 論議라고 하기보다도 그와 같은 방안을 提議라고 할까 혹은 던져지는 말

로써 말이 제기됐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자리에서 證人께서는 國防部長官의 提議에 대해서 어떤 反對意思를 표현한 것으로 傳聞에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柳炳賢 반대라고 할까요 저는 저의 뜻대로의 거기에 대한 말하면 해석이라고 할까 그것을 갖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金光一委員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제가 바로 전날 밤에 中東에서 崔圭夏大統領을 모시고 巡訪하다가 전날 밤에 돌아왔습니다. 1週日 동안 國內에 없었지요. 다음 날에 召集됐던 것이 그 會議였습니다. 事前知識이 없어서라고도 하겠습니까마는 會議場所에 들어갔더니 그와 같은 말들이 오거나 가거나 하기에 저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金光一委員 證人께서 말씀하신 要旨는 무엇입니까?

○證人 柳炳賢 첫번째 戒嚴의 강화 혹은 擴大措置라고 할까 그것은 그 날 會議에 召集되어서 참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管區司令官 혹은 거기에 準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戒嚴分所長級이상이지요. 그 자리에서 軍이 지금 책임 맡고 있는 戒嚴業務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강화한다 어떻게 하면 더 有效 適切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論議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 나온 두가지 문제는 나로서는 그것이 主要指揮官會議에서 論議될 성격인지 잘 모르겠노라...

○金光一委員 두 가지 문제라는 것은...

○證人 柳炳賢 國家를 갖다가 소위 保衛한다고 할까 그런 뜻에서의 어떠한 對策協議機構같은 것을 갖다가 論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구만요...

○金光一委員 또 한 가지 문제는 國會解散 문제였습니까?

○證人 柳炳賢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기에 戒嚴下라고 하더라도 國會機能은 정지시킬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解散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違憲이 될지도 모르겠노라 그와 같은 두 가지 문제는 이것은 政治的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軍指揮官會議에서 政治的인 문제를 가지고 議題 삼는

것은 그것은 적합치 않다 즉 軍事事項에 관한 討議는 좋지만 그와 같은 提案은 이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論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光一委員 예, 그렇게 證人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자 그 문제의 合意가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約30餘分간 늦어졌던 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柳炳賢 合意가 되지 않았다고 하기 보다는 저는...

○金光一委員 意見差異가 있어서...

○證人 柳炳賢 요지를 그렇게 요약했습니다만 저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거기에 反對를 하거나 追加的인 意思表示가 없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때 그 자리에 왜 合意가 늦어지는가 하고 崔性澤將軍이 온 일이 있습니까?

○證人 柳炳賢 저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金光一委員 또 하나 묻는다면 그 자리에서 崔性澤將軍인지 또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全斗煥保安司令官에게 전화 연락을 해가치고 결정을 받자 그리고 전화를 해보니까 안 받는다 그 문제는 全斗煥司令官과의 사이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테니 그냥 그대로 會議를 진행합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그와 같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金光一委員 기억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있습니까?

○證人 柳炳賢 그때 霧圍氣를 말씀드리면 長官室에 동석했던 것은 저와 그리고 4星將軍의 3軍總長 國防次官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軍人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特殊性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임 때는 사람들이 왕래 안하고 霧圍氣가 조용하고 또 發言者나 그런 것들도 제한되는 것이 通常입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니까 그 자리에 회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會議가 왜 늦어지는가를 연락하러 왔던 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 분이

그런 연락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십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십니까?

○證人 柳炳賢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金光一委員 못한 것은 생각됩니까?

○證人 柳炳賢 예.

○金光一委員 그러면 제가 時間關係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칠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主要指揮官會議가 열렸지요?

○證人 柳炳賢 예,

○金光一委員 거기에 贊反에 대한 意見開陳이 있었지요?

○證人 柳炳賢 예,

○金光一委員 그리고 그 자리에서 國家保衛 무슨 非常機構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얘기도 나왔었지요?

○證人 柳炳賢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討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金光一委員 마지막으로 그 會議가 끝날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오늘 합의한 내용을 建議書를 만들어서 大統領에게 報告하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부 連名으로 建議書 만든 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柳炳賢 連署名 용지가 이렇게 돌아간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金光一委員 證人도 署名하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署名했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證人 柳炳賢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떠한 초대 혹은 거기에 說明文이 붙어 있던 것이 아니었고...

○金光一委員 그냥 白紙에 署名하였습니까?

○證人 柳炳賢 예. 參席者의 一覽 명단 거기에 그대로 署名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면 그 앞에 建議하는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붙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셨겠네요.

○證人 柳炳賢 그날 거기에서 광범위하게 討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의 全員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發言이 요약이 되어서 거기에 첨부되지 아니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金光一委員 보통 全軍主要指揮官會議에서는 항상 會議錄을 만드는 것이 軍人들의 軍事實

料를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證人 柳炳賢 예. 통상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면 그 會議錄은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되겠지요? 正常的이라면...

○證人 柳炳賢 예.

○金光一委員 물론이지요?

○證人 柳炳賢 예.

○金光一委員 그것을 누군가가 사후에 隱匿이나 毀損할 수 있습니까?

○證人 柳炳賢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金光一委員 證人이 아는 軍隊常識으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證人 柳炳賢 글썄요...

○金光一委員 글썄요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證人 柳炳賢 會議錄을 갖다가 毀損한다 通商 있을 수는 없지요.

○金光一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金光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共和黨의 金文元委員 15分 동안 訊問해 주십시오.

○金文元委員 新民主共和黨의 金文元委員입니다.

金玉吉證人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時間이 15分 밖에 없어서 좀 빨리 여쭙어 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는 오늘은 제가 金證人의 말을 좀 많이 듣는 쪽으로 質疑를 해드리겠습니다.

金證人의 경력을 우리가 흔히 한 마디로 요약할 한다면 평생을 教育界에서 보냈다 이렇게 요약할 해도 되겠지요?

○證人 金玉吉 예.

○金文元委員 아주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여쭙어 보느냐 하면 그렇게 훌륭한 教育經歷을 가지신 분이 그 당시에 79年度에 文敎長官으로 拔擢이 되셨습니다. 拔擢이 되셨는데 그 文敎部長官에 拔擢될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金證人께서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證人께서 아셔야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벌써 일부 軍人들에 의해서 政權篡奪陰謀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金證人께서는 아무것도 모르

시고 長官에 발탁이 되신 것입니다.

옛 詩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속에 백로로 비유될 수 있는 金證人이 그 와중속에 文敎部長官으로 발탁돼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때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소감이 어떻습니까?

文敎部長官 시절에 생각하면... 이런 것을 말씀해 보세요.

○證人 金玉吉 저는 長官으로 잘 들어갔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래 오래 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저 석달에서 여섯달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또 들어가서 學術振興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에 하도 많은 學校의 先生님들과 學生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 하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國民學校를 어떻게 좀더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바람 또 學徒護國團이니 命令과 指示와 處罰과 認可 취소만이 내려오는 文敎部라고 하는 것이 文敎部는 어디까지나 學校를 도와야 하는 데도 뒤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데지 앞장서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데라고 오래동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루 아침에 다 이룩한다고 생각도 안 했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는 적어도 文敎部에 있는 사람들에게 文敎部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 마디라도 전하고 싶었고...

○金文元委員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신거로군요.

○證人 金玉吉 아니 저는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文敎部 사람들 하나도 그만 두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본래 오래 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 다 職業公務員이요 저의 수십年씩 썼던 사람인데 제가 가서 바꾼 사람은 次官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金文元委員 長官에 취임하실 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포부를 가지시고 長官 자리를 수락하신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5個月도 안 돼서 長官을 그만 두겠다고 4月 18日 辭表를 提出하시기로 했다고 하는데 왜 그 큰 포부를 가지셨으면 끝까지 長官으로서 포부를 이루도록 이루는 날까지 한번 해보

졌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金玉吉 그것은 사람은 한꺼번에 자기 포부를 다 이룩하는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만일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세את을 심어놓고 그것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서 자라고 커서 그것을 기다릴줄 알아야지 내가 다 하려고 해요.

○金文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몇個月간에 세את을 거기다가 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뿌렸지요. 저는 뿌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學生들과 그 동안에 지나는 동안에 아까 다른 金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學生들이 잠시라도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또 제가 長官으로 가 있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시키니까 또 얘기를 하면 저는 큰 것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젊은 記者들을 믿어도 좋다고 하는 그 信念을 文教部長官으로 들어가서 몇달 동안 있으면서 그 젊은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人格의 존중에서 오는 것이지 누구를 야단치고 남을 무시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自律이라고 하는 것이 指示가 아닌데 워낙 오래동안 指示들을 받았기 때문에 校服이니 머리니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적에 자주 指示를 해 달라고 그러대요. 그래 내 指示를 못한다고 했어요 동시에 自由와 自律이라고 하는 것은 責任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學校 先生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해도 돼요. 조금더 해도 돼요?

○金文元委員 예. 말씀을 하시지요.

○證人 金玉吉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한 말이 네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責任을 다해라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秩序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秩序를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約束을 지키는 것이다. 約束을 한번 했으면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지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실에 근거한 말이거든 용감하

게 해라 그것이에요.

梨花大學生 나 總長으로 있을 때 있던 사람들은 많이 잊어버렸겠지만 다 기억할 것이에요. 責任을 다 하고 秩序를 지키고 約束을 지키고 約束은 자기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것이에요. 한번 한 約束은...

證據가 있는 말은 자신있게 말해라

그게 維新때 내가 한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金文元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좀 다시 더듬으셔야 되겠음니다마는 80年5月10日입니다.

文教部에서 개최된 全國總學長會議가 있었지요.

○證人 金玉吉 예.

○金文元委員 證人께서 40分동안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總長들이 다같이 한결같이 建議가 있었음니다. 政府가 보다 명확한 民主化推進日程을 밝혀야 되고 學生들의 이유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大學과 國家의 불행을 막아달라는 建議를 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날 제가 길게 말을 한 것은 기억을 하고 제가 그때에도...

○金文元委員 그때 당시에 總學長들의 建議事項하고 討議內容같은 것을 좀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음니다.

○證人 金玉吉 그것은 제가 그때 아프다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할 말만 하고 들어왔음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討議內容과 建議할 적에 같이 있었을 않았고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부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金文元委員 인사말만 하시고 그러면 나가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證人 金玉吉 인사말을 40分 하는 동안에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學生의 數千名 數萬名을 놓고 보면 學校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무더기로 보이지만 하나 하나를 보면 각 어머니 아버지의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딸이요 아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난 부모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애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 애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젊은 學生들을 아들이요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막아야지 어떻게 선생님들이 몰라본다고 한다든지 무슨 制度와 法만 가지고 될 것이냐 저기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고 부모 다음으로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을 것이에요.

○金文元委員 예. 다음 質問하겠습니다.

證人은 80年5月8日 全國大學 總學長에게 보내는 書翰을 보내신 적이 있지요?

○證人 金玉吉 예. 꼭 같은 말일 것이에요.

○金文元委員 아까도 어느 委員이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學生들의 愛國心과 批判精神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證人 金玉吉 예. 그렇습니다.

○金文元委員 그러나 集團示威는 民主發展을 저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證人 金玉吉 예.

○金文元委員 그 다음에 14日에는 學生示威가 심하면 布告令違反으로 拘束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證人 金玉吉 예.

○金文元委員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學生들의 신변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당시 狀況은 어땠느냐 하면 5月13日 零時를 기해서 戒嚴軍이 政府機關하고 言論社등에 追加配置됐읍니다.

○證人 金玉吉 저는 그것을 몰랐읍니다.

○金文元委員 그래가지고 5·17戒嚴擴大措置前이지요? 이렇게 상당히 상황이 시급했을 때 一般人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누구의 指示나 壓力을 받고 이러한 변화된 發言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이 어땠읍니까?

○證人 金玉吉 그때 상황이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金文元委員 그러한 말씀의 변화가 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金玉吉 변화는… 전 지금도 꼭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先例를 볼 적에 저는 4·19 때를 많이 생각해요. 그때 學生들이나 知覺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렸으면 오늘 이러한 일도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金文元委員 예. 됐읍니다. 證人은 80年 5月14日에 關係機關對策會議라는 것이 열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제가 그때 아파서 안나가서 모르겠습니다.

○金文元委員 몸이 불편해서 안나가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참석을 안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金玉吉 제가 아프니까 연락도 안해준 것 같습니다.

○金文元委員 그 당시 對策會議의 主要案件이 學園問題였읍니다. 대단히 중요한會議였는데 안나가셨구만요.

○證人 金玉吉 그만 둔다고 한 사람이니까 안불렀는지도 모르지요.

○金文元委員 그 후에 14日 오전 關係機關對策會議를 마치고 申鉉碩總理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中央廳으로 불려가지고 對策會議內容을 얘기했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런 기억 없읍니다.

○金文元委員 지금 이것은 各種資料가 傍證되어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申鉉碩總理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쭙어보는 것인데요.

○證人 金玉吉 글썽 그것이 新聞에 났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 갔던 기억이 없읍니다.

○金文元委員 그렇습니까? 혹시 그날 主務長官으로서 참석하게 되지 않은 이유가 무슨 非常戒嚴擴大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所信이 맞지가 않아서 안나가셨다든가 혹은 뭐 外部壓力같은 것이 있어서 안나가신 것은 아니지요? 단순히 몸이 아파서 안나가신 것입니까?

○證人 金玉吉 몸이 아팠고, 제 기억으로는

연락이 안왔던 것으로 압니다.

○金文元委員 戒嚴委員會라는걸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저 그런 것 모릅니다.

○金文元委員 80年5月16일에 戒嚴委員會가 열렸습니다. 이 戒嚴委員會라는 것은 軍하고 學界人士로 구성된 그 당시 諮問機構입니다. 거기에 즉 戒嚴委員會에 證人께서 참석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證人 金玉吉 제가요?

○金文元委員 예. 그래서 기억이 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도 學園事態에 대한 論議가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證人 金玉吉 모르겠어요.

○金文元委員 證人이 非常戒嚴全國擴大措置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서였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것은 緊急國務會議가 있다고 그래서 17日밤에 署名하면서 이것이 아마 戒嚴令이 擴大되나보다 했지요.

○金文元委員 公式으로 뭐 통보받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런 것 없었어요.

○金文元委員 臨時國務會議에 참석했을 때 申鉉碩證人은 그 당시 臨時國務會議에서 戒嚴擴大措置에 대해서 反對 또는 異義를 제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랬습니까. 이것이 맞는 證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그것은 제가 反對라고는 안했고요. 周長官께서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것이 원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지요.

○金文元委員 지금 여쭙어 보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지요?

○證人 金玉吉 예. 알아야 署名을 할 것 아니냐?

○金文元委員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영소의 金證人의 성격이나 또는 경력으로 봐서 정곡을 찌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곡을 찌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가 軍人들도 밖에 있었고 분위기 자체가 삼엄해서 그 위압감에 눌려서 말하고자 하는 정곡을 찌르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본래 정곡을 찌를 줄 모르구요. 그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될 알아야 정곡을 찌르고 말고 하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십시오. 설명을 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 말밖에 안했어요.

○金文元委員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質問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證人께서는 梨花女大總長으로 在職時에 社會적으로 봐서 상당히 덕망이 크신 분으로 알려져 있던 분으로서 12·12事態 5·17措置 5·18光州民主抗爭등 일련의 國家的 混亂期에서 文敎部長官을 지낸 것입니다.

이것은 제 個人的으로 봐서는 汚點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世間的 評이고 저도 그렇게 評을 합니다마는 당시의 狀況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서 이 점에 대한 證人의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고 訊問을 끝마치겠습니다.

○證人 金玉吉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때 제가 겪어온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學校와 學校 선생님들에게 그 중에서도 國民學校 선생님들을 조금이라도 대접해 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金文元委員 汚點이라는 世間的 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汚點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汚點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辛卿植委員입니다.

오늘 요즈음 水安堡계시다가 올라오셨나요?

○證人 金玉吉 예. 水安堡가 아니고요 제가 사는 데가 고사리마을인데요. 水安堡에서 한 10分 15分 더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들 水安堡 水安堡해요.

○辛卿植委員 저도 그 동네앞으로 지나가 보았는데 저도 집이 바로 그 이웃동네인 淸原郡입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같은 이웃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무슨 政治的인 그런 얘기 보다는 우리 社會의 先輩되시고 또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입장에서 우선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지금 알고 재세요?

무엇때문에 어느 분야 때문에...

○證人 金玉吉 그것을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汚點이 적혔다니까 汚點이 적혀서 나왔나보다
하지요.

○辛卿植委員 제 주변의 특징 淸州에 있는
저의 친구나 선배들이 그것을 몰았어요. 光
州聽聞會라면 軍出身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거기서 示威를 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분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또 다른 聽聞會라면
몰라도 光州聽聞會라고 그 분하고 무슨 관계
가 있어서 그 분이 證人으로 나가느냐 그래
서 저도 뭐라고 뚜렷하게 할 말이 없었습
니다.

제가 알기로는 5·17戒嚴擴大 당시 國務會
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런 異
義를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戒嚴擴
大에 그래도 그 많은 國務委員중에 유일하게
反對意思를 분명히 한 분이구나 그래서 아마
某黨에서 證人으로 채택을 해서 이 자리에서
그 때 그 소신을 온 國民들한테 밝혀달라
이런 뜻으로 證人으로 채택을 한 것같습
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社
會에 알려졌던 것과 같이 분명하게 戒嚴擴大
를 반대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國務委員
들과 같이 다 署名해서 그날 國務會議을 마
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미 여기 오셔서 해주실 말씀
은 바로 그 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분명히
밝혀졌으니까.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證
人께 대해서 이것 저것 그 政治的인 問題를
묻는 것 보다는 오늘 이렇게 모처럼 이런
자리에 오셨으니까 光州問題를 비롯해서 현재
學團問題라든지 여러가지 그 당시하고 事態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社會의 그러한 상황을 겪
었던 하나의 經驗者로서 좀 몇가지 말씀을
문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光州에 關聯된 문제를 質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光州聽聞會입
니다.

○辛卿植委員 이 聽聞會라는게 이렇게 제약이
많은 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光州問題에 대해서 모든 問

題들을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같은 民族끼
리 생긴 일인데 그 光州問題에 걸리지 않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습니까? 바로 이 안에
앉아서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光州問題
에 연결된 것인데 이것을 굳이 하나하나 따
지기로 시작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
니다.

○委員長 文東煥 관련시키면 됩니다. 관련
시키세요.

○辛卿植委員 그 당시 學團事態하고 오늘날의
學團事態하고 대비해 볼때 그때 처음에 證人
께서는 모든 것을 自律化하면 잘 될 것이다.
그때가지고 就任第一聲으로 學團自律化를 강조
하셨고 改闢發表直後인 79年11月14日 朝鮮日報
하고 會見하는 자리에서 學校일은 선생님들의
自律에 맡기고 文敎部는 뒷받침만 하겠다 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結果的으로 證人の 그러한 좋은 뜻
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自律에 맡긴
결과는 學團의 소요를 더 확대했고 더 큰 혼
란을 초래했습니다. 왜 이렇게 學團의 좋은
長官님의 뜻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혼란이
왔는가 그리고 오늘날 學團의 여러가지 소요
에 대해서 그때와 對比해 가지고 말씀해 주
셨으면 합니다.

○證人 金玉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떻게
自律化라고 한단든지 무슨 改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올 수 있어요. 저는 제 뜻
이 퍼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
지 않고 그때와 지금과 세대가 아무리 달라
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사는 도리가 있
습니다. 사람사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고 어느
社會든지 어른이 있고 또 어른을 대접해야
할 사람이 있고 대접을 받을 사람도 있고 그
러면 이 모든 것이 人間關係의 저는 信賴라
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相對方을 존
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律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를 뿌렸으니 그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납니다. 그러나 언제
든지 꽃은 지고 잎은 떨어집니다. 가랑잎이
떨어져야 또 새이파리가 나게 되어 있음

니다.

○辛卿植委員 80年 봄에 學園自律化 바람은 必然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學園自律化가 民主化推進勢力으로 전환하지 못하고서 결국 극렬한 學內的 粉料로 또 街頭示威 등으로 비화됨으로써 社會混亂을 가중시켰는데 그렇게 이것이 學內粉料나 街頭示威로 확산된 根本的인 요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믿지 못하는 데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제가 언제 된다고 날짜를 定해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 똑똑합니다. 확실합니다. 또 그 젊은이들이 확실하고 똑똑해서 실력을 길러야만 이 世界를 향해서 편어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지낼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지내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될 것입니다. 相對方의 人格을 존중해야지 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힘이 있을 때를 다른 사람들을 좀 기억하시고 돌봐주세요.

○辛卿植委員 또 證人께서는 그 당시 3月29日字로 記者들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學園事態가 심각해질 경우 어떻게 對處하겠느냐고 記者들이 質問했더니 文敎部로서는 學生들이 이성을 되찾을 것을 꾸준히 기다릴 것이며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 그때 가서 對策을 講究하겠단 그렇게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新聞들은 證人의 이 같은 發言이 당시 學園事態에 대한 政府의 첫公式態度表明이라 해서 이것을 아주 크게 부각을 시켰었습니다. 이 記事를 보면은 당시 文敎部는 學園事態에 對處하기 위해서 어떠한 뚜렷한 對策은 마련하지 않은 채 계속 기다리겠다는 극히 消極的인 태도로 임했었는데 당시 文敎部의 그와같은 學園事態에 대한 기다리면은 學生들이 자각한 것이다. 그리고 安定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對策이 있었던가요?

○證人 金玉吉 저는 對策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때 어떤 記事에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無對策이 對策이라고 책임없는 말 같지만 기다릴 수 있는 對策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對策보다도 확실한 對策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들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십니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라고 그랬고 또 그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가 우리 學生들은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辛卿植委員 80年 5月14일에 學生들이 街頭에 나서서 示威를 하는 것은 法을 違反하는 일임으로 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렇게 당시 街頭示威가 확대되고 있는 學園事態에 대해서 主務部長官으로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전까지는 觀望하겠단 자제할 것이다. 그렇게 樂觀的으로 보시다가 그것도 지나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강경한 發言을 하셨는데 그때 또 戒嚴司令部에서는 당시 戒嚴司令部가 緊急全國指揮官會議를 열고서 勞使 學園騷擾는 安定과 질서를 바라는 多大數 國民의 여망을 등지는 것으로써 國家安保의次元에서 단호한 措置를 취하겠다고 그렇게 發表를 했습니다. 그리고 李煥性 당시 戒嚴司令官은 學園의 政治宣傳場化는 규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당시 證人께서는 이와 같은 軍部의 시각은 學園의 自律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셨는가? 또 아니면 公權力維持를 위해서 극구 證人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法을 위반하는 일은 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보신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證人 金玉吉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인데요 法이 있는 나라에서 法을 무시하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디 한계가 있고 물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은 법을 지나치게 질서를 문란하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둘 수 없지요.

○辛卿植委員 長官 在任時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믿음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 당시 믿어야 할 말은 안 믿고 안 믿어도 될 말은 믿는 풍토를 개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學生들이 처음에는 學內問題로 「메모」도 하고 集會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政治問題를 가지고 거리로 뛰어 나

왔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政治問題를 가지고 거리로 나오게까지 되기에는 그것은 순수한 學生運動의 範圍를 벗어나 가지고 이것이 참 믿어야 할 것은 안 믿고 안 믿을 것은 믿는 어떤 그러한 사태가 작용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혹시 보시지 않는가 하고 또 학생들이 그렇게 政治的인 문제를 「이슈」로 삼아서 거리로 나온 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政治的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나 연관되어 있지 않나 혹시 그런 생각을 안하셨는지?

○證人 金玉吉 저는 政治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모르겠구요 政治말씀을 하시면 모르겠고 정치도 모르면서 왜 文教長官으로 갔느냐 하시면 그것도 제가 대답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말과 또 믿어서는 안 될 말들이 더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辛卿植委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光州에 연관된 것을 이야기하라고 委員長께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 光州問題를 根本的으로 치유하는데 대해서 同僚委員이 質問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힘 있는 사람이 너그러워야한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客觀的으로 볼때 아마 國民들이 國會가 제일 힘이 있다고 생각할겁니다. 聽聞會열어 가지고 참 이것 저것 많이 다지고 하는데 國會가 힘이 있다면 國會안에 힘이 있는 것은 수가 많은 野黨이 요즘은 野黨 마음대로 法案 통과 되고 이릅니다. 결국 野黨이 좀 너그러워야만 光州問題도 잘 치유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겠지만요.

○證人 金玉吉 그것은 제가 對答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것도 이해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委員長 文東煥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趙洪奎委員 15분이 배당되었습니다.

○趙洪奎委員 平和民主黨所屬 趙洪奎입니다.

특히 두분 證人께서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證人의 입장으로 나오시기 보다는 그 시대 특히 1980年을 前後한 그 시대의 어두웠던 시대의 時代的 상황을 광범위하게 또 어떤 의미에서 한 분은 學界의 元老이시고 敎育界의 元老이시고 또 한분은 軍人中에서는 先輩格이시고 그런 입장에서 參考되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입장으로 출가분한 입장으로 나오셨으면 더욱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애당초 가졌읍니다마는 특히 두분 말씀을 듣고 그런 느낌을 더 갖습니다. 특히 金玉吉總長先生님은 제가 모셨던, 個人的인 말씀을 드려서 안됐읍니다마는 鄭一亨博士가 돌아가셨을 때 뵈고 몇 年만에 이 자리에서 뵈게 되어서 여러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자리가 자리만큼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金玉吉總長先生님에게 어떻게 1980年5月17日에 全國非常戒嚴令의 擴大措置가 있 어가지고 많은 政治人들이 拘束되고 특히 그때 선생님의 동생되시는 金東吉敎授님같은 경우가 拘束되고 또 그런 것들이 더 커져서 光州에서 많은 젊은學生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이 展開된 것은 대충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國務委員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특히 光州市民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애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時代의 입장에서든 어떤 지나서서든 지난 7年間 소위 第5共和國 時代라고 하는 잘못된 歷史라고 할까요 잘못된 時代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 대해서 당시 國務委員의 입장뿐만 아니라 어떤 國民的인 입장에서 볼 때 元老의 입장에서 지난 時代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의 경우는 그 時代를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歷史 잘못된 時代라고 보는데 저의 그런 견해가 잘못된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7年間을 한번 綜合的으로 말씀해 주세요.

○證人 金玉吉 잘되고 잘못되었다고 한마디로 對答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에 序頭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슨 더 군다나 그 당시의 國務委員의 한사람으로서 할말이 없구요 할말이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또 지금 이러한 時代에 와서 얼마동안 지나면서 볼 적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치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애쓰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러한 遺産을 물려주시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우리 柳將軍이나 저도 그러한 의미에서 기꺼이 여기 나왔읍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제 입으로 그것이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고 할 여지가 없는 質問인데 그것을 물으신다고 하면 뭐라고 對答을 하겠어요. 다아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사람은 제가 힘이 있는 사람이 너그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과 제가 또 아까 꽃은 지고 있는 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것 다 빈말이 아니에요. 꽃이 핀 것 같아서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지지않는 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學生들에게도 늘 부탁하는 것이 첫째 공부해라 그것이에요. 실력이 있어야지 世界로 나가지 우리가 지금 문은 다 열어놓고 실력없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示威를 어디에다가 전할 길도 없고 示威學校를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실력밖에 이 세상을 향해서 내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한 심경입니다.

○趙洪奎委員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拮華示衆의 미소라고 할까 以心轉心이라고 할까 대충 알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一般國民들이 대체로 선생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짐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아까 暴力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對答을 정확한 對答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暴力을 행사하기가 쉬운 일부 軍人들의 直接的인 政治行爲같은 것 소위 軍人政治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께서는 學生들에 대해서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그런 敎訓의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軍人들이 폭력을 행사한데 대해서도 軍人들 일부 軍人입니다. 全體 軍人들이야 정말 자기任務에 충실하고 하기 때문에 全體 軍人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부 政治軍人들이 政治權力 政治暴力을 행사한데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證人 金玉吉 제가 아까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는 集團이 몇 集團이 있는 중에 國民學校 선생님들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集團이 더 있는데요 저는 國防을 지켜주는 軍人들이 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는 治安을 확보해 주는 警察이 늘 고맙습니다. 그 다음 한 集團은 炭鑛에 있는 막장에 들어가는 그 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늘 고맙습니다. 그 네 集團이 고마운 중에 아까 왜 세상을 모르고 그 시절에 文敎部長官을 맡았느냐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이라고 國民學校 선생님들을 대접하는 무슨 길이 없을까? 또 國民學校를 어떻게 해서든 國民學校에서부터 교육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가 시위만 막는다고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또 學生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父母에게서부터 와야지 가정에게서부터 와야지 가정 버리고 學校敎育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지금 일부 軍人이다 뭐다 할 여지가 없이 少數를 가지고 全部를 책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少數를 지나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연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38線을 놓고... 제가 學校 선생을 해서 정말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상하게 敎訓같은 말이 訓話같은 말이 자꾸 나가는데 學校 40週年 있다 나오니까 어떻게 도리가 없네요. 용서하세요.

38線이 있지요. 共產黨에 시달린 사람들이 1,000萬이 넘지 않아요? 지금도 부모가 그리워서 生死를 몰라서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國防을 지켜주는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몇 사람때문에 달리 할 수 없지요. 고맙지요. 그분들에게 또 아무리 治安이 어지러워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警察 다 고마운 사람들에요. 아무리 石油가 오고 「가스」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炭鑛에서... 모든 勤勞者 다 고맙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맙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炭鑛아저씨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들의 硅肺症 그것은 누가 다 어떻게 해 줄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2期 3期가 되어도 그 職場을 놓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참마로 고맙게 편안하게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있는 내가 송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趙洪奎委員 그래서 國防에만 전념하는 軍人은 고맙고 그렇지 않은 軍人들은 고맙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證人 金玉吉 그야 누구든지 제 責任안하면 제가 할 일 못하면 그것이야 미움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趙洪奎委員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번거롭게 나오시게 하고 또 나오셔서 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柳炳賢證人에게는 具體的인 문제들은 아마 우리 黨 所屬委員님이나 여타 同僚 先輩委員님들이 具體的인 質疑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많은 資料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우선 대략적으로 이 光州聽聞會 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査聽聞會와 柳炳賢證人과의 관계 되는 부분은 12·12事態 당시 韓·美司令部 副司令官이시지요?

○證人 柳炳賢 예. 그랬었습니다.

○趙洪奎委員 또 5·17 당시에 聯合司令官이시지요?

○證人 柳炳賢 아닙니다. 5·17때는 合參議長이였습니다.

○趙洪奎委員 죄송합니다. 合參議長이시지요?

○證人 柳炳賢 예.

○趙洪奎委員 그 다음에 駐美大使하였지요?

○證人 柳炳賢 예. 그랬었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러서서 12·12事態 때에 韓·美聯合司令部 副司令官으로서의 韓·美間의 軍間의 立場 특히 제가 아는 것으로는 柳證人께서는 그 당시에 12·12를 정당화시키는 冊子같은 것 연설같은 것 교육같은 것을 韓·美 兩國軍에 대해서 하신 기록도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세한...

○證人 柳炳賢 제시해 주십시오.

○趙洪奎委員 예. 있습니다. 具體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들을 나눈 다음에 하겠습니까마는 12·12事態 때에 그 당시 職責의 입장에서 하신 것 5·17以後에 各軍의 예를 들면 時間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冊子들 말입니다. 全軍에 뿌려진 英字로 된 이런 冊 이렇게 말하자면 光州事態의 真相이 되겠지요 이렇게 英字로 된 또 이것은 그 後의 것입니다. 6月 것이고 이

은 7月 것이고 이것은 8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전부 지금 읽어드릴 수도 없고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參考로하셔서 제가 안 물어라도 答辯해 주시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그것이 우리의 冊子들을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內亂음모인가? 金大中 일당의 내란음모사건 真相 그래서 이제 韓·美軍들 또 어떤 경우에는 副司令官하실 당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나중에 韓·美聯合司令部에서 한 일 같은 것 중에는요 韓國軍 장교같은 경우가요 各國에 書信도 보내고 하는 일 이런 소위 金大中씨 규탄하는 문제 5·17을 正當化시키는 書信 이런 판계 잡다하게 많습니다. 具體的인 記錄들이... 그런데 그 具體的인 것을 證人께서 소상하게 아실리는 없겠지마는 그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職責에 있다 보면 12·12의 正當性을 얘기하실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5·17의 正當性을 얘기하시는 입장에 서실 수 밖에 없었는데 우선 두가지만 묻습니다. 12·12의 正當性의 문제를 證人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5·17의 正當性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證人 柳炳賢 먼저 지금 말씀하신 그 證據物에 대해서 제가 作成을 했다 라고 하는 어떤...

○趙洪奎委員 作成하신 것이 아니라 配布하는데 具體的인 責任者로서의 責任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主題가 具體的으로 들어갈 입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責任을 물을 것이 있습니다. 직접 집필하신 것이 아니구요.

○證人 柳炳賢 예. 12·12事態때 저는 분명히 聯合司令部 副司令官이였습니다. 아마 이삼日後에 合參議長으로 轉職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聯合司令部 副司令官으로서 12·12事態를 어떻게 措置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當日과 그 다음날 정도에 해당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趙洪奎委員 12月14일은 어떤 職位에 있으셨지요? 合參議長입니까?

○證人 柳炳賢 예. 合參議長이였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면 5·17에는요?

○證人 柳炳賢 5·17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合參議長이었고 아까 金委員께서 質疑 말씀이 제셔서 대충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2·12事態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여러가지 證人들이 말씀하신 중에서 이것 하나만은 이 聽聞會에 말씀을 남겨놓고 싶습니다. 정말로 軍의 선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때 事態를 몹시 염려하고 위태롭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떠한 部隊가 어떻게 움직이지않느냐, 저렇게 했지 않느냐, 여러가지 열거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의 입장은 그와 같은 部隊가 움직일 동안에 혹시나 部隊間에 커다란 충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로서는 軍과 軍이 혹시나 충돌하면서 거기서 어떤 격한 事件이 發生되면 그것이 바로 軍의 분열을 갖다가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軍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安保를 생각 할때 몹시나 걱정스러웠었다. 그러면서 聯合司 副司令官은 그 당시 事態 자신에 관해서는 수습책임보다도 韓·美 兩個 軍이 作戰統制하는 저로서는 部隊들이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유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事態가 發生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즉 北쪽에서는 뭐라 하느냐 이것입니다.

外侵은 그때 뭐 없겠는가 그때 그와같은 軍隊 말하자면 國內에 있어서 國內에 혼란이 있을 때 그와같은 사태를 혹시나 惡用을 하는 集團들은 없겠는가...

○趙洪奎委員 證人! 그것은 基本的인 거고요 그것은 基本的인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씀이시고 예를들면 그러면 아무나 어느 部隊나 叛亂軍으로 충돌고 나오면 北韓 무서워가지고 무조건 認定하고 認定하는 前例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證人의 그런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구체적인 質問을 하기로 하자면 말입니다. 다음 제가 우리黨 所屬委員들에게 넘기겠습니다마는 마지막 部分만 말씀드립니다. 이미 다 아신다고 보고 묻습니다. 예를들면 韓美間에... 예를 들어서 5·17이후의 사태같은 경우 특히 光州問題, 光州民主化運動에 있어서의 美國의 역할같은

것을 韓國軍의 窓口는 證人이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美國의 介入與否이런 측면이 아니라 光州問題에 대해서 光州民主化運動 소위 1980年5월에 있었던 그때의 美國의 역할 美國과의 窓口役割을 하신 證人께서 하실 말씀이 간략하게 해보세요.

○證人 柳炳賢 그때 협조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趙洪奎委員 어떤 측면에서 잘되었습니까? 어느쪽 측면에서...

○證人 柳炳賢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태를 그 이상 擴大하지 아니하고 平和的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뜻이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非平和的으로 사태가 진전되었고 수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습니다.

○證人 柳炳賢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었읍니다마는...

○趙洪奎委員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吳景義委員 訊問해주십시오. 20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統一民主黨 吳景義委員입니다.

本委員會에서 聽聞會를 개최하면서 光州眞相을 糾明하기 위해서는 證人 두분이나 우리 모든 委員이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眞相을 밝히기 위해서는 證人 두 분이 나 우리 모든 國會議員들은 진실로 金玉吉 證人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光州 모든 희생자들과 그분들에 대한 원한이라든지 그 명예를 빨리 회복해드려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金玉吉 證人에게 말씀을 드리면 좀더 本聽聞會를 위하고 光州眞相을 糾明하는데 다른 角度로서 證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모든 證人들이 나와서 성의껏 성실한 대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모른다는 一貫으로서 始終 時間만 때우고 가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많았습니다. 金玉吉 證人이나 柳炳賢 證人에게는 本委員會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두분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하고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사정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나 모르는 얘기를 몇번 해주셨습니다. 이 聽聞會 證言臺가 어떻게 보면 무슨 모르는 콘서트처럼 모른다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양 그런 聽聞會를 앞으로 계속했을 적에 과연 우리가 바라는 모든 眞相을 캐 수가 있을까 지극히 의심이 가는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작을 하셔서 가능한 한 좀더 저희들 원하는 바를 소상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비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09年 李完用등 乙巳五賊들이 당시에 우리 韓末의 內閣을 日本사람들과 같이 景福宮에서 會議을 할 적에 韓日合邦을 할적에 총검을 들고 그 사람들은 武力으로써 강압적으로 會議에 자기네 뜻대로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 사정은 金玉吉證人께서는 아시지요? 韓日合邦하던 그 분위기를 아시지요?

○證人 金玉吉 예. 읽어서 압니다.

○吳景義委員 그러시다면 5月17日 非常國務會議의 분위기도 거기에 비교를 했을 적에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저도 또 吳委員長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吳景義委員 해주세요.

○證人 金玉吉 예. 저를 보고 원하시는 대답을 안하셨다고 해서 맥에서 뭘 원하시는데도 제가 모르는 거고요...

○吳景義委員 그렇지요.

○證人 金玉吉 또 그 사실을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믿어주시고 원하는 對答을 안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거예요. 내 말을 해도 안믿는 분에게 뭐라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吳景義委員 물론입니다. 그런데 우선 물은 答辯부터 해주세요. 그때 5.17당시와 과거 韓日合邦 당시와 비교했을적에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韓日合邦 당시에 세상에 나지도 않았었고요...

○吳景義委員 冊은 읽으셨잖아요? 歷史를 배우셨죠. 長官까지 하신 본인데...

○證人 金玉吉 冊을 읽은 것하고 그때하고 5.17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또...

○吳景義委員 그 점입니다. 바로 지금 證人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論理로써 전개를 하기 때문에 앞서 한 모든 우리 國會議員들이 證人께 質問을 했을 적에 그런 論理를 전개를 했기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는데는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가치를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證人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金玉吉씨 自然人이 아닙니다. 公人으로서 梨大總長도 하셨지만 文敎部長官을 하신 본인데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좀더 성실한 答辯을 해주셔야지 그러한 방법으로써 저희들을 대해주신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입니다.

이 점은 證人께서는 물론 제가 묻는 방법이 나 우리 國會議員들이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래도 本質적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아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冒頭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光州의 슬픔 光州市民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證人께서는 유감을 표했고 그 분들에게 많은 위로의 말씀을 하신 분이 저희들이 本質적인 문제를 파헤치는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金玉吉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는게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吳景義委員 예.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안드리고 저 자신도 평소에 우리가 존경하는 證人이며 證人の 인격과 인품이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든 委員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모를 것을 모른다고 하셔야 얘기가 통하는 것이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여기가 무슨 모르는 제조공장도 아니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비교적 모르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난다" "모른다" 그것으로써 聽聞會를 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겠다는 것입니까?

○證人 金玉吉 진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세

요.

○吳景義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證人 金玉吉 시간이 없으시면 꼭같은 質問도 하실 것없고... 그렇잖아요?

○吳景義委員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證人께서는 本委員도 그러합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委員님들이 또 그리고 앞으로 많은 證인들이 이 자리에 나오십니다. 聽聞會가 언제까지 열릴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형태로써 聽聞會가 유지되고 이렇게 해서 真相을 과연 쫓아가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조금 缺禮를 했읍니다마는 證人께서는 일용 당부의 말씀과 제가 느낀 바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玉吉 제가 이해 못하겠다면 어떻게 시겠어요?

○吳景義委員 이해를 해주세요. 젊은 사람이 조금 실수했다고 보시고...

그 다음 柳炳賢證人께 제가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證人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모든 60萬大軍이 本委員도 존경을 합니다마는 그 모든 軍人들의 龜鑑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그런 행적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全軍主要指揮官會議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경우라도 國憲을 문란해서는 안되고 國會를 解散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이후에도 우리 國軍에 미치는 좋은 영향들을 지금까지 일깨워주신 훌륭한 上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證人은 그 당시에 國內에 계시지 않아서 잘 모릅시다마는 우선 제가 한번 일깨워드릴 것은 그 당시 80年5月12日 그때 證人은 崔大統領하고 外國에 가셨지요?

○證人 柳炳賢 예.

○吳景義委員 그 당시에 우리 國務會議에서는 南侵說을 상당히 파다하게 퍼뜨렸습니다. 外國에서 그 사정을 아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가기전부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情報判斷은 평소서부터 하고 있었기에...

○吳景義委員 실제 그때 南侵說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北傀의 124軍團 金新朝가 내려왔던 그런 部隊가 읍졌다든지 約6,000名이 30人乘 클라이더를 分乘해 타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느니 하는 과거에 하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間諜이 나타나 그런 식으로써 國民의 위기의식을 助長하고 분위기를 상당히 협박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때도 이런 모든 일련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證人 柳炳賢 예. 그때 그와같은 동태에 관해서 北傀의 움직임에 관해서 하나하나 그때 發表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런데 그때 당시에 美國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 안했습니까?

○證人 柳炳賢 어떤 것을 부인했는지 저는 잘 확실치않습니다.

○吳景義委員 南侵說에 대해서...

○證人 柳炳賢 그와 같은 것은 하나하나를 보고서 南侵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희들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적의 능력이 어떠한가 태세가 어떠한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하지못한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수준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할때 그 당시 적은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가 소원한다면 그와 같은 짓을 할 수 있다. 능히 그와 같은 일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吳景義委員 예. 韓·美聯合司令部의 副司令官을 지내셨지요?

○證人 柳炳賢 예.

○吳景義委員 그래서 合參議長으로 또한 있으면서 그때 당시 韓·美 양국간의 협조 문제에 관해서의 내용은 잘 아시지요?

○證人 柳炳賢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력했습니다.

○吳景義委員 5·17非常戒嚴擴大하고 光州抗爭 진압을 위해서 동원된 軍部隊중 美國側의 作戰統制權을 이양받은 부대는 어느 부대였습니까? 그때...

○證人 柳炳賢 그것을 제기삼아서 이양받은部隊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光州에 투입된 部隊에는 말입니다 이 聽聞會에서 그런 것들이 해명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20師團 作戰統制下에 있지아니하였었고 또 特戰司 部隊 우리 스스로의 作戰指揮 部隊였었습니다.

○吳景義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韓·美聯合司側은 作戰指揮統制權을 이양해서 그때 3軍에서 빠져나간 병력의 보충을 위해서 11師團의 作戰統制權을 다시 3軍으로 이관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證人 柳炳賢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吳景義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美國側은 光州抗爭期間 동안에 航空母艦「코럴씨」號를 艦艇 6척을 남해안에 파견하고 軍 早期警報機 두대를 韓國上空에 파견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證人 柳炳賢 사실입니다.

○吳景義委員 예. 결국 美國은 光州抗爭진압을 위한 韓國軍의 사용을 韓國의 요구대로 승인해 주고 光州鎮壓作戰을 위한 외곽경비를 강화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뜻을 달리합니다.

○吳景義委員 달리 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승인을 하고라고 하겠습니까마는 美國사람이 어찌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승인하고 뭐하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 다음 「코럴씨」를 중심으로 해서의 航空母艦團 그것이 왔다고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가지고 光州事態에 관해서 주변을 갖다가 엄호해 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航空母艦團은 바로 北의 그 사태를 편승해서의 어떠한 오판이라도 있을까봐 거기에 대한 무력시위이지 그것이 光州를 향해서 시행됐던 것은 전연 아닙니다. 그 오행하는 일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景義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月27日 零時에 진행된 진공작전을 5月26日의 韓·美聯合司의 參謀長과 陸軍本部

作戰教育參謀部長과의 사이에 협의를 필한 것으로 陸本作戰指針書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證人 柳炳賢 전연 모릅니다.

협이라고 하는 그 말까지 격식을 높여서 얘기할 만한 사항이 그때 陸軍本部하고 韓·美聯合司 參謀間에 진행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또 그와 같은 권한을 아래에 위임한 바도 없습니다. 또 報告받은 바도 없습니다.

○吳景義委員 證人은 5月17日 全軍主要指揮官會議 召集을 몇 時쯤 누구한테 전달을 받았습니까?

○證人 柳炳賢 저는 사실 그 날 아침에 출근하고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만 전날 밤 늦게 歸國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랬지요.

○證人 柳炳賢 아침에 출근하고 本部長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참석하는 지휘관들 표정이 라든지 분위기를 지금 기억을 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글썽 말씀입니다. 군인들의 회합에 그것을 갖다가 모일 경우에 있어서 全國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기에 比較的 그 무엇입니까? 인사 교환태도나 그런 데에 있어서 평시하고 다른 점이 별로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吳景義委員 예. 그런데 證人은 全軍主要指揮官會議 召集通報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서 무슨 내용의 會議를 할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證人 柳炳賢 제가 반문했지요. 혹시나 會議 議題나 그런 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체로 戒嚴에 관한 會議였었다 이렇게 저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吳景義委員 戒嚴에 관한 부분도 있었지만 혹 5共和國을 탄생시킬 수 있는 胎動에 따른 그런 분위기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證人 柳炳賢 전혀 그와 같은 것들 오히려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長官室에 가서 長官하고의 대화중에 5共和國의 胎動이라고는 말못하겠습시다마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제목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말을 주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保安司令官인 全斗煥씨는 왜 참석을 안했지요.

○證人 柳炳賢 陸軍의 主要指揮官會議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吳景義委員 保安司令官은 본래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證人 柳炳賢 아마 副司令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代理出席 했던 것 아니지 않을까요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서도 논의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安企部長을 兼任하고 있었기에 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아마 맞는 대답일 것입니다.

○吳景義委員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金光一委員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崔大統領하고 證人하고 5月16日 10時5分頃에 金浦空港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證人 柳炳賢 예.

○吳景義委員 그래서 그 날 바로 11시에 靑瓦台에서 會議을 했지요?

○證人 柳炳賢 예.

○吳景義委員 거기는 全斗煥 保安司令官이 참석을 했지요?

○證人 柳炳賢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로...

○吳景義委員 그때 얘기를 전혀 못들었습니까?

○證人 柳炳賢 못 들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保安司令官인 全斗煥씨 李煥性 周求福씨 그리고 金鍾煥 內務部長官 崔俊洙 大統領秘書室長 등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深夜對策會議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부터 17日 全軍主要指揮官會議을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에서 이미 非常戒嚴을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國保委 설치문제 非常對策機構를 만들어야 된다 등이라든지 光州鎮壓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金泳三 金大中씨등 政治人들 在野人士들을 拘禁 내지는 軟禁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그날 그 자리에서 다 해놓고 17日 全軍主要指揮官會議에는 形式的인 會議을 한것이 아니겠느냐 하

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證人 柳炳賢 저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말씀 듣기는 저희들 말하자면 大統領 모시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루를 단축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夜中에 더구나 歸國했지 않습니까? 不在間에 重要業務에 대해서 報告를 하겠노라 하는 말씀이 제셔서 그 관계관들만이 靑瓦台에 이렇게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바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사정은 아는 바 전혀 없습니다.

○吳景義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全軍主要指揮官會議錄이 없어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고 있고요. 國防部에서 國會에 온 資料를 보면 證人 柳炳賢씨와 또한 그 당시에 國會解散에 대한 반대를 했던 사람이 다른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분이 누가 있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吳景義委員 그 당시 안중훈씨가 軍需基地司令官이었었습니까?

○證人 柳炳賢 예. 그랬었습니다. 安將軍이었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 분이 반대를 했다고 지금 우리 資料에는 와 있는데 그 외에 한 두분이 더 있었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까? 會議분위기들...

○證人 柳炳賢 安將軍의 발언은 具體的으로 그런 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었었고 會議의 節次 運營에 대해서 자기는 의심적하다 말하자면 잘 이해가 안간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는지 어떠한 案件에 관해서 具體的으로 贊反을 갖다가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랬었습니다.

○吳景義委員 저희들 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요한 會議錄이 아까 金光一委員도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중요한 會議에 會議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證人 柳炳賢 예.

○吳景義委員 지금까지 어제 李煥性證人도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감추었거나 아니면 그때 會議錄을 작성하지 않고 會議錄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周永福 李煥性씨가 申鉉鎬總理에게 報告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지요? 17日 저녁에 報告를 하러가 가지고 申鉉鎬씨가 그 두분을 대동해 가지고서 崔大統領을 만나러 또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저녁에 9時半에 非常國務會議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결의를 해가지고서 그날밤에 戒嚴令 宣布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것이 기억을 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그와 같은 절차... 대충 그렇게 된 것으로...

○吳景義委員 대충 그렇게 되었지요?

○證人 柳炳賢 예.

○吳景義委員 이것은 사실입니다. 資料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그 중요한 會議을 한 날 會議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證人께서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證人 柳炳賢 그렇습니다.

○吳景義委員 중요한 고리가 열쇠인데 이 會議錄만 있으면 그때 光州問題를 어떻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 발언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서 누가 發砲命令을 어떻게 내리게끔 분위기를 만들었다든지 國保委 설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앞으로 이 政治問題라든지 모든 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證人이 기억나는 대로 얘기 좀 해 보시지요.

○證人 柳炳賢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本會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중요 指揮官會議 本會議에서 말씀하신 國保委 혹은 國會解散 그와 같은 말을 具體적으로 꼬집어서 討議는 전혀 된 바 없다 그것이 저의 기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吳景義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어쨌건 그때 당시에 周永福長官이 主宰를 하면서 지명을 해가지고 會議는 진행이 되었습니까? 대체로 그랬지요?

○證人 柳炳賢 예.

○吳景義委員 周永福長官이 이제 그렇게 계속 會議運營을 해 갔는데 그 會議 진행 과정에

서 周永福長官은 이미 非常對策機構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를 시간관계상 다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으로 보면...

○證人 柳炳賢 그렇습니까? 저는 그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長官室에서의 總長들 하고 제가 同席한 자리에서는 그것이 나왔다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本會議 장소에서는 그것이 討議되었다는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吳景義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光州真相을 파헤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會議錄을 찾으려고 사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文書檢證을 하러 가 보았을 때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 會議資料가 내용이 그것을 없는 것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李煥性 周永福씨가 申鉉鎬씨한테 맨주먹으로 가서 報告를 했을리가 없고 또 大統領閣下한테 그것을 맨주먹으로 報告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찾아내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0萬 大軍이 뭐 조그만 시골가면 요새 班常會 다섯집이 있어도 會議錄 다 작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陸軍 全軍主要 指揮官代表者들이 모인 그 會議는 會議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聽聞會를 통해서 光州真相을 糾明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證人께서도 협조를 해주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會議錄은 물론이려니와 여러가지 저희들이 真相調査를 하는데 두분 證人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共和黨의 玉滿鎬委員님께서 訊問해 주십시오. 15分입니다.

○玉滿鎬委員 알겠습니다. 新民主共和黨의 玉滿鎬委員입니다.

柳炳賢證人께 묻겠습니다. 證人께서는 10·26 事件 12·12事態 및 5·18光州抗爭당시에 韓·美聯合司令의 副司令官 및 合參議長으로 재임하는 중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특히 일부 一線部隊의 이동과 역할에 대해서 일부 國民 사이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되어 韓·美關係에 까지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우리 일부 國民들 사이에는 指揮權이나 作戰統制權 내지 作戰指揮權에 대한 개념 및 韓·美聯合防衛體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미흡한 사정에서 당시 일부 兵力移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누가 행사하고 있느냐 하는데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된 것은 그동안 政府가 政治的인 입장을 떠나서 國民들에게 잘못된 부분이나 혹은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실상을 밝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本委員이 오늘 이와 같은 問題提起 및 質問을 하게 되는 이유는 安保問題 특히 韓·美軍事關係에 있어서는 어느 政黨이나 政派의 문제가 아닌 全國民的인 重大關心事로서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證人께서는 당시의 職責으로 보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證言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訊問을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變則的이기는 하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證人께서는 本委員의 요약된 내용에 대해서 可否與否만을 간단히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委員의 訊問을 위해 指揮權과 作戰統制權 또는 作戰指揮權에 대한 概念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指揮權이란 다 아시다시피 國家主權機能의 일부으로서 自國의 軍隊에 대해서 行使하는 人事 作戰 軍需 情報등 모든 分野를 총 망라한 軍에 대한 統制權을 의미하며 韓

國軍에 대한 指揮權을 創軍이래 6·25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 있어서도 大韓民國의 國家統制 및 軍事指揮機構下에 歸屬되고 있다고 보는데 證人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證人 柳炳賢 全的으로 맞습니다.

○玉滿鎭委員 감사합니다.

둘째는 指揮權에 대해서 作戰統制權 또는 作戰指揮權이란 어느 특정한 目的 및 任務遂行을 위해서 사용되는 部隊들에 대한 戰術的統制를 의미하는 것으로 6·25후 현재까지 보다 效率的인 韓國防衛를 위해서 一時的으로 駐韓美軍에 위임한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證人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대체로 중섭니다마는 한가지 駐韓美軍에게 作戰統制權을 위임한 것이 아니고 韓·美聯合司令部司令官에게 위임했습니다.

○玉滿鎭委員 아! 그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 問題의 始發은 6·25당시 國家存亡이 위험한 상황에서 戰爭을 보다 效果的으로 치르기 위해서 UN軍司令部 作戰統制下에 두기 위한 措置에서 비롯된 것이며 休戰直後인 1954년 12월에 署名된 소위 韓·美防衛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韓國軍을 同司令部 作戰統制下에 둔다고 明示함으로써 公示가 된 것입니다.

그 후 5·16과 1968年 1月21日 金新朝事件을 계기로 UN軍司令官의 作戰統制的 目的이나 또한 統制範圍도 縮小調整되었고 韓國防衛의 作戰效率化를 위해서 1977年 年例韓·美安保會議에서 韓·美聯合司令을 創設하기로 합의된 결과 1978年 11월에 韓·美聯合軍司令部가 創設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證人 柳炳賢 맞습니다.

○玉滿鎭委員 감사합니다.

本委員이 볼 때 韓·美聯合司令部는 NATO司令部와 마찬가지로 美軍將星을 司令官 韓國軍將星을 副司令官으로 하는 兩國의 統合參謀陣으로 구성된 聯合共同體制로서 同司令官등은 각자 자기 나라의 國家統制 및 指揮權 機構下에 있는 合參議長을 중심으로 구성된 韓·美軍事委員會의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오늘날의 韓·美聯合指揮體制는 美國側의 一方的인 統制下에 있지않는 體制가 되었습니다. 韓國軍 大將이 말하고 있는

聯合司副司令官은 司令官 任務代行上 司令官을 補佐하고 司令官 不在時 그 職務를 代行하며 聯合司의 韓國側 將兵을 대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종래의 UN司令官이 獨占해 온 作戰體制에 韓國軍이 참여하여 美軍과 共有하게 되었다는 보다 前向的인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本委員은 판단하고 있는데 證人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證人 柳炳賢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韓·美聯合司創設準備委員長이였습니다.

○玉滿鎬委員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指示 밑에서 10月26日 事件 직후 20師團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戒嚴軍으로 서울에 출동한 것입니까? 10·26때 이후입니다.

○證人 柳炳賢 아까 副司令官의 職能에 대해서 말씀이 제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위کم」司令官은 韓國에 不在했음으로서 제가 韓·美聯合司令官의 司令官을 代理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26事態에 대한 措置는 제가 司令官을 代理해서 모든 措置를 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玉滿鎬委員 그러나 20師團이 戒嚴軍으로서 서울에 출동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했나요?

○證人 柳炳賢 陸軍本部 要請에 의해서 그 要請을 받아 들고 作戰統制權을 갖다가 解除해 주면서 陸軍에 戒嚴支授을 위해서 中央豫備隊로 설정해주었습니다.

○玉滿鎬委員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師團이 10·26 직후 서울로 이동하여 戒嚴軍으로서 任務를 마치고 原隊復歸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柳炳賢 原隊復歸라고 하기 보다는 그 任務는 그대로 所屬은 즉 作戰統制權은 解除된 채 駐屯位置만을 갖다가 바꾸어서 일부 부분적으로 楊平에 돌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事態如何에 따라서는 또 어떠한 部分 部隊는 다시 서울에 돌아 왔다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玉滿鎬委員 즉 原隊復歸時 韓·美聯合司의 作戰統制權의 原狀回復이 됐다 이 얘기입니까?

○證人 柳炳賢 原狀回復이 되지 않고 그대로 陸軍本部의 作戰統制權은 解除된 채 陸軍本部에 가 있었습니다.

○玉滿鎬委員 統制權은 解除된 채 部隊位置만 변경됐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柳炳賢 예. 그렇습니다.

○玉滿鎬委員 다음은 12·12事態 당시 20師團과 空輸部隊를 除外한 前方駐屯部隊의 小移動에 대해서는 韓·美聯合司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其他部隊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師團 特戰司 首營을 제외한...

○證人 柳炳賢 네. 부분적인 部隊가 이동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事前協調를 받지 아니하였던 部隊가 있었습니다.

○玉滿鎬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師團이 80年5月 再次 서울에 출동했다가 光州로 이동할 시 그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證人 柳炳賢 절차는 陸軍本部에서 措置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玉委員께서도 아시다시피 韓國防禦作戰計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師團級部隊가 한 위치에서 다른 자리에 옮길 경우에 있어서는 聯合司가 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에 관한 通報를 聯合司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玉滿鎬委員 그러니까 統制權 바깥에 있기 때문에 位置變更에 대한 通報는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證人 柳炳賢 그렇습니다. 陸軍本部가 聯合司에 해 준 것으로 확실히 기억합니다.

○玉滿鎬委員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證人 柳炳賢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李敏燮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말씀하세요.

○李敏燮委員 지금 이 聽聞會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 순간에 이 聽聞會活動에 대해서 抗議하는 市民들이 國會議事堂內에 들어와서 器物을 損壞하고 또 많은 여러가지 騷亂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本 聽聞會가 계속 되느니보다는 이런 모든 雰圍氣가 鎮靜되고

안정된 가운데 이 聽聞會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잠시 停會해 주실 것을 要請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本 聽聞會가 實際의으로 지장이 없는 한 우리 聽聞會를 중단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國民들은 이 聽聞會가 신속하게 이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委員長으로서 아무 이유를 보지 못합니다.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4黨幹事들사이에서 合意되면은 그러면 다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聽聞會는 그냥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합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하는 것이 좋겠지요?

○金仁坤委員 金光一委員이 그 내용을 아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지요.

○委員長 文東煥 金光一委員 그러면 말씀하세요.

○金光一委員 지금 현재 이 聽聞會場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聽聞會의 證人訪問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 내부의 일을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李委員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깥에 나가서 보고온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光州에서 오신 遺族들로 보이는 분들 약 100餘名이 2層 「로터더」홀까지 들어와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왜 거짓말하는 證人들만 데려다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진짜 被害者인 자기들을 불러서 證人 세워달라 하는 그것이 要旨이었습니다.

그래서 委員들 몇 분이 앞으로 그와 같은 절차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光州에서 勃發原因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오늘 戰鬪狀況등에 대한 證人調査를 하고 나면 이 다음번 調査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被害者에 대한 충분한 調査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 하자 激昂했던 분들이 다소 누그러져서 이제 한쪽 事務室로 들어가서 자기들 주장을 펴겠다 그러면 또 우리로서는 光州特委가 이 점심시간이 되는데로 委員長과 幹事들이 나가서 4黨代表들이 나가서 당신네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다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곧 점심시간이 있을 것이니까 남은 시간을 마저 마치고 그리고 나서 對策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제 세 분이 남았습니다. 民正黨의 安榮基委員 15分 그리고 平民黨의 辛基夏委員 20分 그리고 無所屬의 朴燦鍾委員이 20分 도합 55분이 남았는데 이것을 끝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그 때 다시 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구하기로 하고 聽聞會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民主正義黨의 安榮基委員 15分 割當되어 있습니다.

○安榮基委員 두분 감사합니다.

民主正義黨의 堤原 丹陽出身 安榮基委員입니다.

우리 金總長님 堤原 丹陽이면은 바로 月岳山이 제 管轄區域인데 그 너머 새재에 계시지요? 자주 지나면서 私生活을 침범할까봐 못 들어가 빈 것을 용서 바랍니다.

柳炳賢證人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直接的으로 光州事態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運動圈學生과 그 在野 政治人이 美國이 光州民主運動에 깊숙이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면에서 反美感情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韓·美關係는 여러가지 우려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美軍의 龍山基地가 市內中心街에 주둔한 이러한 문제 또 韓·美司의 韓國軍指揮體系問題 양담배및各種農畜物產의 輸入壓力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 또 「울림곡」에서 보인 美國 일부 選手들의 태도 또 美國言論이 偏頗的인 報道問題 이러한 것으로 反美感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 美國에서도 韓國僑民의 商社나 商店같은 것이 습격이나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被擊을 당한 이러한 反韓感情도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제에 證人과 같이 오랫동안 駐美大使를 겪으시고 또 外交官生活을 하시면서 知得하신 예리한 國際感覺과 그 경륜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證言을 함으로써 韓·美關係에 오해나 不合理한 점이 있다면은 解消와 修正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서 변할 수 없는 대등한 友情으로서의 관계를 再定立하는데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背景下에서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東煥委員長, 吳景義幹事와 司會交代)

證人은 5.18 光州民主化運動當時에 어떤 職責에 제쳤습니까?

○證人 柳炳賢 合參議長이었었습니다.

○安榮基委員 언제부터입니까? 合參議長 在職이...

○證人 柳炳賢 제가 合參議長으로 취임한 것은 79年 12월에 취임했습니다.

○安榮基委員 合參議長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證人 柳炳賢 合同參謀會議를 주재하면서 國防長官에 대한 軍令事項에 관한 보조를 합니다. 아울러서 合同參謀本部가 있기 때문에 그 本部를 지휘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安榮基委員 지금 國民이 전부 이 聽聞會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급 난해한 軍事用語는 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比較的 쉽게 해설을 바랍니다.

○證人 柳炳賢 예.

○安榮基委員 그다음 韓·美聯合司令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美聯合司令部的 그 설치 이유와 作戰指揮體系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證人 柳炳賢 우리는 美國하고 相互安保防衛條約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간을 두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편성된 것이 聯合司令部라고 하겠습니다.

이 司令部的 目的은 어디까지나 韓國에 대해서는 外侮를 방어하기 위해서이지 그 이외의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韓國에 대한 外侮가 있을때 거기에 대한 방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部隊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가용한 韓·美兩國에 作戰部隊를 作戰統制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제쳤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集團安保體制的具體인 實現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安榮基委員 예. 알겠습니다.

韓·美聯合司令部는 韓國政府가 동의한 限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管轄權이나 책임이 없고 合同指揮權에 속하지 않는 어떤 일도 韓國政府 窮極적으로는 韓國國

民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韓國軍이 聯合司令部的 指揮權을 임의로 벗어났을 때 이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證人 柳炳賢 이것은 國際的인 協約이라고 하겠습니다.

○安榮基委員 예. 알겠습니다.

○證人 柳炳賢 즉 軍에 관한 여러가지 法規는 國際的으로 다 거의 공용된다고 이렇게 생각 하겠습니다. 자유 진영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韓·美聯合司令에서 作戰統制를 받으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自國의 안에서의 作戰指揮權 안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말하자면 일로서 간주되었습니다.

○安榮基委員 그러면 다음 물겠습니다. 韓·美聯合司令部的 作戰指揮權 행사는 戰爭時와 平時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證人 柳炳賢 지금 作戰指揮權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統制權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安榮基委員 예. 作戰統制權...

○證人 柳炳賢 作戰統制權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용한 韓·美聯合部隊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平時에 聯合部隊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측을 말한다면 地上軍에서 陸軍에서는 前方에 있는 戰鬥師團이 주축이 됩니다.

空軍에 있어서는 戰術空軍입니다. 海上에 있어서는 우리의 海上作戰艦隊가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聯合司令하고 합의된 作戰部隊 作戰統制部隊 목록이라고 작성 합니다마는 거기에 넣어서 이것을 갖다가 作戰統制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後方地域에 대한 警備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지 이것을 UNC 혹은 聯合司令에 위임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平時가 그러하거니와 戰時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戰時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가지의 動員計劃이나 部隊運營計劃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作戰計劃에 의해서 추가로 동원되는 部隊를 聯合司令官에게 우리는 제공하게 됩니다.

또 作戰計劃에 의해서 海外서부터 美軍의

増援部隊가 증원되도록 다計劃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로作戰統制하는 것이戰平時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즉作戰統制部隊의 규모가 다른 것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安榮基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韓·美聯合司令部的韓國軍에 대한作戰統制權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例를 들어서戰線에部隊配置나作戰計劃 등에 관해서도 일일이韓·美聯合司令官의指揮統制를 받아야 됩니까?

○證人 柳炳賢 그것이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聯合司에 대한 그렇다면 제일 먼저運營指針은 누가 주느냐 이것은兩個國의統帥系統에서 내리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具體的으로 거기에 대한成案은韓·美安保協議會議 즉兩個國의國防長官이 갖는安保協議會에서運營指針을 주고 거기에 대한戰略指示는 이것은軍事委員會에서 만듭니다.

○安榮基委員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證人 柳炳賢 그 다음에 가서는司令官은 어디까지 지휘하느냐 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段階陸·海·空軍司令官까지를 갖다가 직접 지휘하고 나머지는梯隊를 달리해서 쪽쪽 아래 내려가서의 지휘라고 하겠습니다.司令官이 어디까지 지휘하느냐指揮責任은 제일 말단까지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實에 있어서는 직접指揮權이 영향 행사되는 것은 그 밑에 있는構成軍司令官까지가 직접指揮影響圈이라고 하겠습니다.

○安榮基委員 다음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韓國軍에 대한作戰統制權은韓·美聯合司令官창설되기 이전에는美國大統領과合參議長다시太平洋地區司令官 UN軍司令官이었다가 그 후에는韓·美兩國大統領 또韓·美軍事委員會韓·美聯合司令官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변화는韓·美 두나라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戰時와 이에 대비한作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證人 柳炳賢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同意하겠습니까마는 한가지 옛날에는

美大統領서부터美合參議長指揮權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겠습니까마는美大統領서부터 옛날서부터도作戰統制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UNC司令官은 UN서부터指揮權이 발동이 되겠습니다. UN의權限을 대행하는 것이美國이기 때문에美國國防長官이 그作戰統制權限을美合參議長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껏 우리國內에서는 우리의作戰統制權이 마치 옛날에도 지금도美國에 속하고 있는 것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安委員께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美國大統領서부터作戰指揮를 받거나統制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UN軍의 일원으로作戰했던 것입니다.

○安榮基委員 예.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당시 그「글라이스틴」美國大使는 이 단계에서美國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단언한 것으로報道가 되었습니다.新聞에 이것은光州事態에서軍의행동을 정당화시켜주고 격려 고무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柳炳賢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美國大使가 어찌해서 우리國內治安秩序維持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권한이 있으며 그 다음 그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뭐 있습니까?

○安榮基委員 80年5月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코프제이트」80-2라는軍事訓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訓練이며 어디서 실시가 되었습니까?

○證人 柳炳賢 그것은 제가聯合司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軍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軍事訓練이 있기 마련입니다.聯合司가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는年次的인反共訓練입니다.

그反共訓練에는聯合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戰時에는外部서부터의増援部隊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増援部隊를 포함해서年次的인 말하자면訓練인 것이었습니다.反共訓練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첨가하겠습니다. 그 문제물

가지고 그 당시 北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가 하면 戰爭練習劇이다 다음에 있어서는 光州市民을 학살하기 위해서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을 北에서 말하는 것을...

○安樂基委員 예. 本委員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訓練을 접해서 「필리핀」 「슈빙」灣에 있던 航空母艦 「코털시」號를 韓國海域에 急派하는 한편 또 80年5月26日은 E-3A 早期警報統制機 2대를 日本「오끼나와」에서 우리나라에 急派했고 또 日本의 「요코스카」港에 정박중이던 「미드웨이」號에 대해서도 「코털시」號와 합세할 수 있도록 警戒態勢令을 내렸습니다. 그때 美國의 이와 같은 일련의措置들은 韓國軍으로 하여금 光州事態를 파잉진압하도록 방조한 이러한 셈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간략하게...

○證人 柳炳賢 그와 같은 사실은 合參이 聯合司를 통해서 요청을 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적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이 강력한 武力示威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外侵에 대한 措置였는지 어찌해서 그것이 光州鎮壓에 대해서 우리 軍을 간접적으로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安樂基委員 이 光州事態당시에 투입되었던 部隊는 3·7·11空軍旅團 또 20師團인데 20師團은 光州에 출동할 당시에 韓·美聯合司의 作戰統制를 받았습니까?

○證人 柳炳賢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安樂基委員 이유는 뭐니까?

○證人 柳炳賢 그것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까 10·26事態를 계기로 해서 陸軍의 戒嚴實施를 위한 中央機動豫備隊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作戰統制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安樂基委員 그 마지막 質問입니다.

일부 주장에 의하면 戰鬪教育司令部에 戰鬪詳報에 기재되어 있는 韓·美間 協議事項에 보면은 24일까지 대기하는 것을 가지고 美國이 光州事態中 韓國軍 高位幹部들과 계속 協議를 해왔으며 대기가 아니라 最終鎮壓作戰의 시행에 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一般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韓國軍 高位幹部들과 美國間에 5·27 最終鎮壓作戰에 관하여 실제로 계속된 協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美國이 韓國의 國內問題에 간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證人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證人 柳炳賢 그 당시 聯合司司令官은 「워점」대장이었습니다마는 그 분은 거의 매일 같이 제방에 왕래했습니다. 이것은 狀況의 교환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협조를 위해서이지 어떠한 것을 協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말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美國하고의 安保協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條約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外侵에 방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事項에 대해서만 合意하는 것입니다. 國內 內部治安秩序維持에 관한 것은 協議事項이 아닙니다. 또 제가 만약 「워점」대장한테 協議하자고 하면 상대방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난처해 했을 것입니다.

○安樂基委員 한 서너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景禧 安樂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辛基夏委員 訪問해주시기 바랍니다.

訪問時間은 20分입니다.

○辛基夏委員 먼저 金玉吉證人에게 몇 마더 묻고자 합니다.

12·12 이전인 79年12月10日 당시에 國務總理 內定者라고 할까 副總理였던 申鉉碩씨로부터 文教部長官 교섭을 받으시고 승락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證人 金玉吉 예.

○辛基夏委員 그런데 바로 승락을 하신 2日 후에 12·12事態가 났고 14日 정식으로 組閣發表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12가 난 이후에 文教部長官 및 國務委員이 되었는데 12·12事態에 대해서 보시는 눈이 어떠하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12·12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辛基夏委員 아니 長官이 되서 가지고...

○證人 金玉吉 왜 가지고도 몰랐습니까.

○辛基夏委員 그러면 언제 12.12를 알았습니까?

○證人 金玉吉 최근에 알았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때에도 全斗煥씨를 중심으로 한 일부 政治軍人들이 陸軍參謀總長 戒嚴司令官인 鄭昇和씨를 大統領의 裁可없이 체포했다는 경위를 일체 모르셨군요.

○證人 金玉吉 몰랐습니다.

○辛基夏委員 新聞에도 크게 났는데 新聞도 안보셨단 말입니까?

○證人 金玉吉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同僚委員들의 證人訊問過程을 통해서 本委員이 金玉吉證人の 證言內容을 들어보니까 金玉吉證人께서는 5.18 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에 별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아마 하실 만한 무슨 재료가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金玉吉證人에 대해서는 證人訊問을 마치기로 하고 柳炳賢證人에게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證人께서는 合同參謀會議 議長을 언제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79年 12월에 취임을 하고...

○辛基夏委員 12月 언제 취임했어요?

○證人 柳炳賢 바로 12.12事態後이기 때문에 14日이 아닌가 기억합니다.

○辛基夏委員 취임하셔 가지고...

○證人 柳炳賢 81年6月까지 그자리에서 근무했습니다.

○辛基夏委員 81年6월에... 그 이후에는 필하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駐美大使發令을 받고 바로 美國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12月10日 崔圭夏大統領께서 中東을 방문하실 때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答辯을 하셨는데 그때는 合參議長 자격으로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月10日이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辛基夏委員 아. 아. 5月10日...

○證人 柳炳賢 예.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合參議長으로서 軍事首席補佐官이라고 해서 무

엇입니까 제가 수행할 영광을 가졌었습니다.

○辛基夏委員 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80年 그러니까 證人께서는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合參議長을 언제 그만두셨다고 하셨지요?

○證人 柳炳賢 81年6月입니다.

○辛基夏委員 81年6月이요?

80年 9月 중순경에 國務會議에서 證人外約 800餘名에 대한 그해 國軍의 날 행사에서 영예수여의결을 한 바 있는데 그다음 國務會議에서 國軍의 날 영예수여 대상자 중에 이미 國務會議에 통과된 사람중에 證人과 尹興植中將등 두名은 國防部 요청으로 제외키로 해가지고 國務會議의 양해사항으로 報告된 바가 있다는데 이것이 바로 國務會議 會議錄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證人 柳炳賢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일이 있어서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입니까 훈장은 비교적 일찍이 그 상급의 것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때 똑같은 말하자면 훈장을 再上申하는 行政的인 착오가 있어서 제외되지 않았었던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第5共和國 때 한번도 훈장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다 받아 놓았습니다.

○辛基夏委員 아 第5共和國下에서는 한번도 훈장을 받지 않으셨군요.

○證人 柳炳賢 예.

○辛基夏委員 이른바 불명예스러운 훈장을 한번도 안받으셨네요?

○證人 柳炳賢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軍服입은 사람이 왜...

○辛基夏委員 아 答辯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證人께서는 80年 5月16日에 崔圭夏大統領께서 中東訪問에서 歸國豫定日 보다는 하루빨리 歸國하셨지요?

○證人 柳炳賢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래서 新聞에는 이른바 급거 歸國이다 그런 등등의 말이 났고 또한 5月16日까지 國內에서 일어났던 여러 學園騷擾事態 등 또한 政治民主化日程 등 어느 특단의措置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新聞에 보도된 바도 있고 일반적으로 國民들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5월16日 급거 歸國하신 경위에 대해서 中東에 계시면서 國內로부터 어떠한 報告를 받으셨는지 中東 현지에서 안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證人 柳炳賢 방문을 계속 하시다가 제 기억에는 사우디에 가셨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國內에서의 學生騷擾라고 할까요 시위가 격렬화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와같은 報告들이 있어서 그 시간시간을 봐서 저희들이 모아서 필요한 資料를 수집도 해드리고 大統領께 報告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 「말레이시아」까지 왔을 때는 저희들 公式日程을 다 마쳤습니다. 거기서 2泊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2泊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國內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하루 앞당겨서 돌아가자라고 해서 歸國하게 되었습니다.

○辛基夏委員 말하자면 귀국길에 하루 쉬는 기간이었는데 여기서 편히 쉬고 있을 수가 없다 國內이 시끄러운지 돌아가자 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柳炳賢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國內의 사정에 대해서는 주로 누구로부터 報告를 받았습니까?

○證人 柳炳賢 저는 合參系統에서 부분적인 것을 받고 있었고 또 수행했던 長官들은 제 각기 報告를 접수하는 系統이 있지 않습니까?

大統領께서는 주로 靑瓦臺의 당시의 大統領秘書室에서 報告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外國에 계시면서 外國에 大統領을 수행했던 이른바 참모진이라고 할까 거기에 중요한 참모진들이 많이 수행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國內問題에 대해서 國內로부터 報告를 받고 時局對策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柳炳賢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수행자들이 각각 자기가 분담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國內에서 받은 報告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大統領께 報告를 드린 바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辛基夏委員 報告는 하셨는데 大統領께서 報告받고 혼자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실

을 報告받으면 참모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등 숙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숙의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證人 柳炳賢 알겠습니다.

頂上外交기 때문에 그와같은 스케줄이 짜여 있어서 그렇게 시간을 별도로 會議를 위해서 낸 일은 없었다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수시 필요한 때에 大統領께서 國內에서 뭐 별다른 일이 없었는가? 이렇게 말할 때 있어서는 그동안에 접수한 報告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방문중에 大統領께서 특별히 어떠한 일을 조치하라고 해서 國內에 지시하신 것으로써 중요한 사항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證人께서는 合參議長으로 계시는 때에 證人 보다는 훨씬 軍의 후배요 서열상 후배인 全斗煥少將 또는 中將이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상당한 政治的인 權力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保安司令官과 中央情報部를 장악하고 있는 터였는데 그때 全斗煥中將의 힘이 이미 中央情報部長署理와 또는 合同搜查本部長 그리고 保安司令官을 겸하고 있는 全斗煥中將입니다. 당시 中將이니까... 中將의 힘이 大統領의 하나의 統治行爲라고 할까 統治行爲보다는 大統領의 권한 행사에 어떠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무엇이라 證言할만한 충분한 資料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合參議長이었고 제 職責에 저 나름대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같은 合搜部長 혹은 安企部長署理 보직같은 것은 任命權者가 하시는 것이고 또 그와같은 보직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저에게까지 미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合參議長으로서 자기 職責을 수행했었습니다.

○辛基夏委員 證人께서 合參議長으로 계시면서 적어도 5월17日 이후 5월27日까지 光州에서 일어났던 民主化運動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報告받은 사실이 있으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그것은 받지요.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숙의도 하고 對策에 관해서 그당시에 作戰의 責任을 지고 있었던

李煥性將軍 戒嚴司令官에게 때에 따라서는 조연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매일매일 받으십니까 수시로 받으십니까?

○證人 柳炳賢 軍의 狀況系統은 중요한 상황은 수시로 제출하는 것이 狀況將校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황은 이것은 집합해서 정규 이렇게 報告도 하겠습니까마는 戒嚴 그때에 있어서의 光州民主化運動이 격화되므로 말미암은 그때 것의 진행은 거의 하루에 한번 정도 國防長官室 옆에 방에 모여서 3軍總長 특히나 戒嚴司令官 동석하에 사태를 갖다가 여러가지 논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辛基夏委員 證人께서 合參議長으로 계시면서 現役軍人이 中央情報部法 7條에 의해서 中央情報部長이 될 수가 없는 中央情報部長署理라는 구실로... 署理라는 것도 우리나라 法에는 일체 없습니다.

어떻든 中央情報部長의 일을 하는 자리에 옮기는 것을 法에 違反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國防部長官이나 그 윗분에게 일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으십니까?

○證人 柳炳賢 그와 같은 일은 말을 갖다가 發言한 기억이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어떤 會議體나 모임체에서가 아니라 둘이 만나서도...

○證人 柳炳賢 그와 같은 말을 갖다 한 바 없습니다. 경황중이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아시다시피 安企部長이 그와 같은 大統領敍害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자 급히 그 경황중에 李煥性將軍이 서울이라고 이렇게 그 무엇인가 發令받았습니다. 安企部가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라고만 생각했지 거기에 대해서 法的 根據까지를 갖다가 제가 따질만한 그때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辛基夏委員 5月18日 그러니까 5月17日에 이미 空輸部隊가 非常戒嚴擴大決議가 있기 전에 光州에 내려 갔는데 證人께서는 空輸部隊가 소위 이른바 騷擾鎮壓作戰이라고 하는 忠正作戰의 일환으로써 光州에 내려가서 光州秩序를 유지하는 戒嚴軍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그와 같은 移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까마는 제가 海外에 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돌아온 그 무렵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部隊가 적합한 戒嚴部隊나 支援部隊나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당시 後方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완전 편성된 戰鬪部隊가 그 部隊를 제외하고서는 없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지배적인 고려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結論으로 어쩔 수 없이 空輸部隊가 光州에 投入되는 것은 軍의 編制上으로나 數로 보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證人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證人 柳炳賢 可用 部隊가 그것이 거의 유일한 상태였었습니다.

○辛基夏委員 결과적으로는 20師團까지 光州에 投入이 되었는데 20師團이 光州에 投入이 되었어도 우리나라의 前方陣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만일에 空輸部隊를 그대로 놔두고 20師團을 먼저 投入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證人 柳炳賢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 말씀드릴 것은 師團이라고 하는 部隊는 될 수 있으면 師團體在部隊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使用價値가 됩니다. 즉 少將이 지휘하는 3個聯隊 砲兵司令部가 몽땅 내려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의 상황판단으로서 최초서부터 1個師團이 光州에 소요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은 陸軍의 戒嚴系統에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2個大隊 兵力은 합해서 700名정도 그것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戒嚴當事者들의 판단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師團을 갖다가 몽땅 보낼 정도의 상태라면 師團을 보냈어야 되지요.

○辛基夏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 戒嚴當事者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證人의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合參議長의 입장에서 證人의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證人 柳炳賢 저라고 하더라도 20師團은 1個師團을 光州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師團兵力으로서 서울부근에 하나는 集結해서 보유하는 것이 좋지 처음부터 豫備

隊를 갖다가 投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戰略上 과오인 것입니다.

○辛基夏委員 證人이 戒嚴司令官이나 陸軍參謀總長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戰鬪에 있어서의 特殊部隊이고 敵陣의 後方에 投入을 해서 敵陣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空輸部隊을 光州에 投入해 가지고 그런 敵陣을 교란시키는 戰術을 주로 익힌 그런 空輸部隊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光州市民에게 虐殺과 蠻行을 저질러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證人 柳炳賢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部隊나 다 쓰기 나옵니다.

그 다음 처음부터 그렇게 내려간 部隊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事態가 발생된데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辛基夏委員 어느 軍部隊의 司令官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部隊의 一部部隊가 다른 部隊에 作戰配屬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 部隊의 司令官은 作戰配屬된 그분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시집보낸 딸의 집에 가서 계속 駐屯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作戰配屬을 받은 部隊의 長은 그 部隊를 거느리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며느리의 아버지 親庭아버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지 않느냐 媿아버지가 자기 집안의 家風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淸정아버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 가지고 그 집은 좀 어렵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쩌다가 한번 예의상 방문한 것은 별 문제로 하고 계속 駐屯해서 거기서 있는 것은 누가 보기에다 간섭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이른바 保安司令部와 合同搜查本部和 中央情報部를 관장해서 어느 누구 당시의 軍司令官도 당시 政權의 實權者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金斗煥씨와 같은 同期고 서울 在京 3部隊의 長으로서 급기야 떠오르는 별로 올라 있는 鄭鎬溶씨 당시 盧泰愚大統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당시의 상황에서 原則的이고 敎範에 있는대로 움직여 진다고 法과 常識에 의해서 움직여 진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鄭鎬溶司令官이 거기

나와서 말을 했을 때 階級이 한 階級 높다는 蘇俊烈中將이나 또는 尹興禎中將이 평상시의 敎範에 의해서 原則과 法에 의해서 軍을 指揮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證人 柳炳賢 아까 指揮하고 作戰統制에 관해서는 玉滿鎬委員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特戰司가 거기 내려가서 作戰統制權을 31師團長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指揮가 2元化되어 있었던 것 아니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答案은 2元化 되어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作戰統制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드시피 어떠한 특정한 作戰任務遂行을 위해서 한정된 기간 장소에서 作戰活動을 지시하는 權限의 委任인 것입니다.

즉 거기에 移動한 部隊들의 指揮는 누가 하느냐 母體部隊가 하되 作戰統制權을 「마이 너스」한 것만을 指揮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간 部隊는 行政人事 軍需支援 기타 등등은 母體 指揮官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단 作戰統制權이 31師團에 가 있기 때문에 師團長이 자기가 指揮하는 作戰統制가 兩分되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指揮가 兩分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鄭司令官이 자주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部隊가 3個旅團 내려가 있었고 상당한 兵力이 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指揮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 가 있었는데 너무나 자주 내려갔던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방법여하에 따라서는 그때 위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支援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려가 있었다면 그것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음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와 같은 特戰部隊같은 것을 配屬받는 部隊指揮官은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特戰部隊에서 參謀 한 사람을 파견받아서 그 部隊에 적합한 運用을 할 수 있게끔 參謀를 자기 밑에 두도록 하겠습

니다.

砲兵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砲兵參謀가 있고 機甲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機甲參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모든 것이 해결됐었는데 情狀중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조치가 하나 參謀運用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저는 指揮에 관해서 그 이상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配屬이나 作戰統制나 隸屬部隊의 개념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軍需分野나 行政分野나 一般人事分野에 대해서는 母體部隊에서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고 配屬의 경우에는 조금 덜 가지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作戰統制와 配屬에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 이 3個旅團 이외에도 特戰司의 司令部가 서울에 있고 또한 그 이외에도 特戰司의 部隊가 있는데 이미 다른 部隊에 作戰統制를 시킨 司令官이 자기 部隊를 지키고 거기에 作戰統制에서 作戰指揮하고 있는 部隊의 軍需나 또는 行政이나 그에 대한 參謀들을 몇名 配置해 가지고 作戰指揮를 하는 部隊의 長에게 作戰에 協調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司令官이 거기에 가서 거의 매일 駐屯하다시피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은 바로 證人께서 그런 내용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證人 柳炳賢 3個旅團이 獨立해서 作戰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31師團에 配屬이 일부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것이 CAC의 直轄로 된 만큼 CAC司令官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鄭鎬溶將軍은 거기에 가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辛基夏委員 그리고 支援을 주기 위해서는 作戰指揮를 하는 司令官의 支援要請이 있어야지 支援要請도 없는데 더우기 당시의 여러가지 政治的인 狀況으로 보아서 절끄러운 存在인데 그런 절끄러운 存在가 옆에 와있는 것은 심히 불안한 것이지요? 또 더우기 현재의 狀況까지 와서 이제는 某與黨의 代表委員

까지 꿈꾼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 와서 그때의 狀況을 또 정확하게 證言하기도 힘들겠지요.

이상입니다.

○證人 柳炳賢 그 당시만 하더라도 鄭鎬溶將軍에 대해서 제가 절끄럽다고 생각한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現地에 있던 蘇俊烈將軍 尹興植將軍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吳景義 辛基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炳賢 金玉吉證人の 마지막 訊問順序가 되겠습니다. 無所屬의 朴燦鍾委員 訊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20分입니다.

無所屬의 朴燦鍾委員입니다.

○朴燦鍾委員 朴燦鍾委員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金玉吉總長님께서 우리 聽聞會에 나오신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오늘 아침을 맞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20名内外의 證人들이 나왔고 또 내일까지 나오게 되는데 전부가 男子들이고 證人께서 유일하게 女性으로서 여기에 나오시게 됐다는 점 외에 지금까지 훌륭한 그 男性證人들은 證人과 같이 內閣에 몸을 담았던 申鉉禧總理까지를 포함해서 한결같이 5·18光州抗爭이 유발된 그 원인과 그 結果에 대해서 몇몇하고 당당하게 丈夫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金玉吉總長께서는 女性의 몸으로 그 悲劇의 5·17非常國務會議에서 몸을 던져서 이것을 阻止하려고 고심해왔다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둘째로는 이 나라에는 오늘 현재 時點에 올바른 指導者 나라의 元老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民主化의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을 말릴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父子間에 母子間에 姑婦間에 이 싸움을 말릴 만한 분이 없습니다.

西洋格言에 어머니의 눈물이 家庭의 平和를 가져오게 한단데 저는 오늘 總長님께서 이 자리에 그런 役을 해주실 수 없겠는가 하는 기대로 이제 質問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文教部長官을 수락하실 때 심경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教育報國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技倆을 다해서 獻身하겠다

이런 심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敷衍하실 것이 있으면 敷衍하시지요.

○證人 金玉吉 저는 獻身을 한다든지요... 時間 좀 써도 돼요? 또...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예.

○證人 金玉吉 獻身을 한다든지 決死를 한다든지 저는 마지막 가는 말을 별로 안쓰는 사람이구요. 절대라는 말도 쓰지 않구요. 내가 내게 주어진 그날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朴委員님께서도 지금 상당한 기대를 가지시고 저를 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元老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나설만한 指導者도 아니고 또 죽기를 한하고 몸을 바쳐서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날이 소중하고 祖國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學校에 있는 사람으로서 學生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해야 하고 그들에게 實力을 어떻게 하면 더 길러 주어서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는가 그러한 말 뿐 이었고 생각 뿐이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씨를 뿌리는 하나의 役割을 하려고 들어 갔던 것이지 또 제일 밑에서 고생하시는 國民學校 先生님들과 그 校長先生님들과 거기서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文敎部가 고마와한다고 하는 文敎部職員들이 오너라 가너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 드릴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알려 드리고 싶었던 것뿐이고 저는 다 제가 이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었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께 잘 들었습니다. 傾聽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證人께 質問하고자 합니다.

教育이 잘 되도록 하는데 한알의 씨라도 뿌려야 되겠다 이런 心境으로 長官職을 受諾하셨는데 教育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教育이 잘 돼야 되겠다고 하려면 그 條件으로 결국 지난 일이지만 政治가 잘돼야 된다 하는 것도 認定하시지요? 政治는 잘못 되는데 教育만 잘될수 없는 것이고 물론 反對로 敎

育이 잘 되면 政治가 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政治가 잘못 되어 있는데 敎育만이 그 모든 分野중에서 유독히 앞서서 잘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 지금 實感하시지요?

○證人 金玉吉 實感도 하지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와요. 우리가 지금 學生들만 탓할 수도 없고 이것이 누구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러면 다 무엇을 했는가? 學生들이 보고 배운 게 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吳景義幹事, 文東煥委員長과 司會交代)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께는 대단히 중의람된 質問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證人 金玉吉 하세요.

○朴燦鍾委員 長官은 國務委員... 金玉吉님 國務委員 命 文敎部長官 發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長官에 앞서서 各院 國務會議委員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國務委員은 國家 全體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 共同連帶責任입니다마는 그렇기때문에 證人の 지금 일관된 證言을 들으면 대단히 섭섭하고 조금은 유감스러운 것이 한 部處의 長官이라는 그 局限된데 맞추어서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저는 그것 밖에는 모르니까요. 그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당시의 國民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國民들은 그 內閣이 崔圭夏大統領 아래의 內閣이지만 실제로 申鉉碩 金玉吉 內閣으로 모두가 생각한 것입니다.

申鉉碩씨의 오랜 經驗 金玉吉總長께서 갖고 계시는 德望과 經綸 이것이 합쳐져서 빠른 시일안에 過渡期를 끝내도록 하는데 어머니의 품으로 이것을 다 품어서 孵化를 시켜 주려니 이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部分에 있어서 國務委員으로서 깊은 책임을 自覺하고 적어도 그 關係職을 受諾하는 것이 道理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그렇게 기대를 誇大하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對答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最善을 다했던 것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저희들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다음 質問은 제가 이렇게 證人께 ...

○證人 金玉吉 실망도 또 컸겠지요.

○朴燦鍾委員 여쭙어보려고 합니다.

그 內閣이 申鉉禧 金玉吉內閣이 종단에는 光州抗爭을 誘發시키는 5·17戒嚴擴大措置를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聽聞會 자리는 犯罪搜查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柳炳賢證人께서도 마지막 제 質問할 때 미리 答辯을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犯罪搜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犯罪的 加害者 光州抗爭이나 5共非理에 대해서 犯罪的 行爲를 하고 實行한 가령 全斗煥將軍一派中에서 犯罪行爲에 직접 加擔해서 殺傷을 하거나 非理를 저지른 사람들을 索出하는 것도 저희들 聽聞會 機能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러한 非理 그러한 結果가 悲劇이 產出되는 것을 豫防하지 못한 道德的 加害者라고 저는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이 聽聞會의 主要機能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證人은 지금까지 同僚委員들의 質問에 대한 答辯을 통해서 道德的 責任이 분명히 있는 분인데 그 道德的 責任을 지려는 노력이 그 關係職을 그만두시고 8年の 歲月이 흘렀는데도 그 노력을 찾아본 흔적을 제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證人 金玉吉 말씀드려요?

○朴燦鍾委員 말씀하세요.

○證人 金玉吉 예. 그럼 제가 그 노력을 한다고 新聞에다 내야 합니까? 廣告를 해야 합니까? 예?

○朴燦鍾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聽聞會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證人 金玉吉 글쎄. 그러니까요. 제가 道德的인 責任을 안지겠다는 것 아닙니다. 지을 수 있으면 다 지워 주세요. 다 지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國務委員으로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分野 사람들에게는 限界가 있지 않아요. 分數가 있지 않아요.

또 그러한 結果가 나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申總理나 거기 앉았던 모든 國務委員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또 安定을 바라는 마음에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러한 면에서 學生들을 희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文敎長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호소하고 기다리고 믿고 믿어달라고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러나 제 限界를 넘었다고 할 적에 또 할 수 없지 않겠어요?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學生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결국 당시의 政治에 따르는 潮流를 證人께서 정확히 파악 못하셨기 때문에 5·17戒嚴擴大措置가 結果했고 그로 인해서 不當하게 全斗煥政權이 탄생해서 지난 8年동안에 그 바로 證人께서 염려하시는 그 學生들이 統計上으로 證人께서 18年동안 梨大總長하시는 그 期間에 발생했던 被害者보다도 數十倍 많은 全國 大學生 中에 8年동안에 11萬名의 除籍者 2萬名 以上の 拘束者를 내고 朴鍾哲君 등 적어도 70餘名의 學生들이 죽거나 불타 죽거나 疑問死를 하거나 하는 이런 것이 結果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당시는 證人께서 그런 마음으로 入閣을 受諾하셨다고 치더라도 ... 이것은 歷史的 證言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심경으로 봐서 그때 證人께서 마음 먹이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午前 陳述을 修正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證人 金玉吉 무엇을 修正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는 사람을 자꾸 다그치면 어떻게 합니까?

○朴燦鍾委員 제가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證人 金玉吉 무서워요 자꾸 그러니까...

○朴燦鍾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證人께 이제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80年4月23日 당시 서울大學校 高병익總長께서 申鉉禧 당시 總理를 訪問했는데 날짜 같은 것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 訪問해서 申總理와 大學總長間에 面談 오고간 것 證人께서 알고 계십니까?

○證人 金玉吉 저 그때 거기 參席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께서 參席안하셨는데 어떻게 證人の 一般的 監督아래 있는 서울大學校 總長이 國務總理를 面談한 일에 대해서 지금 기억 안나십니까?

○證人 金玉吉 가서 만나뵈는 것은 제가 알고요.

○朴燦鍾委員 알고 계시지요. 그때 그 對話 內容은 지금 證人께서 대강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제가 參席 안했었으니까요. 자세하게 기억한다고 할 수 없어요.

또 지금 말씀이 監督下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것도 모르느냐 그러지만...

○朴燦鍾委員 그것 제가 여쭙는 것 아닙니다.

○證人 金玉吉 그러면 됐어요.

○朴燦鍾委員 監督下에 있었기 때문에 事前 事後에 報告를 받으실 수도 있는 일이고 해서 그랬나 하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證人 金玉吉 저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朴燦鍾委員 제가 그러면 證人の 기억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병익總長은 申鉉鎬總理에게 지금 學生들의 示威가 가열되는 現象을 보이는 것을 根源的으로 막는 方法은 조속한 戒嚴解除 그리고 政治日程의 조속한 確定 軍事敎育制度의 改善 이런 것이 앞서야 騷擾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證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당시 大學校 總長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 먹이겠습니까?

○證人 金玉吉 대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申鉉鎬證人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가지고 고병익總長이 자기를 만나러 온 것은 事實이지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學園事態는 學內에서 해결할 範圍를 벗어나 버렸다 그러니까 政府가 다른 次元에서 이것을 막아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申鉉鎬證人은 證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그뒤에 다시 當事者를 확인해본 결과 申鉉鎬證人께서 이 자리에서 僞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後日 다시 밝

힐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證人에게 參考로 僞證事實을 일러드립니다.

4月23日頃에... 4月下旬頃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中央廳에 있는 厚生館에서 副總理 外務長官 法務長官 內務長官 그리고 文敎長官이신 證人 그리고 戒嚴司令官 中央情報部長署理 全斗煥將軍 國防長官 이렇게 學園問題에 대해서 意見交換을 위한 懇談會 하셨던 기억 나십니까? 入院하시기 直前입니다.

○證人 金玉吉 그때는 學園問題만이 아니요. 저는 舍北事態에 그렇게 만났던 것으로 알고요.

○朴燦鍾委員 이것은 舍北事態 直後입니다.

○證人 金玉吉 그러한 몇가지 關係로 아마 만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면 全斗煥將軍이 中央情報部長署理 資格으로 이런 關係 懇談會에 參席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그전에도 다른 분이 와 계셨던 것으로 알고요. 또 그때도 오셔서 제 기억으로는 아무 말씀도 안하고 그저 앉아계시다 가신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朴燦鍾委員 별 얘기 없었다...

○證人 金玉吉 없는 걸로...

○朴燦鍾委員 그러면 中央情報部長署理 全斗煥將軍이 公務上 또는 다른 私的인 일로라도 文敎長官 在任時에 證人과 접촉한 일이 몇번 있습니까?

○證人 金玉吉 없습니다.

○朴燦鍾委員 한번도 없습니까?

○證人 金玉吉 없습니다.

○朴燦鍾委員 이렇게 어디 第3의 場所에서 뵈는다른지 이런 일도 없었습니까?

○證人 金玉吉 그런 것 없는 줄로 알고요. 제 生日날이라고 선물이 왔길래 저는 生日을 陰曆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陽曆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秘書室에다 電話 걸고 내 生日은 陰曆이니까 이 다음에 또 보내라 그랬어요.

○朴燦鍾委員 全斗煥將軍이 中央情報部長으로 就任하게 된 經緯 證人 모르시지요?

○證人 金玉吉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朴燦鍾委員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全斗煥將軍이 靑瓦臺로 崔圭夏大統領과 總理室로 申鉉鎬總理를 찾아가서 保安司令官인 全

斗煥將軍이 스스로 내가 中央情報部를 맡아야 될테니까 發令을 해달라고 가서 強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中央情報部長이 되었습니다.

證人이 閣員으로 있는 그 內閣의 당시 모습이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證人은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자각을 하십니까?

○證人 金玉吉 전 그렇게 처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지요. 제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일 가지고 문제삼을 게 하나도 없지요.

○朴燦鍾委員 證人の 지금 그 말씀은 당시 文敎長官으로서 그 말씀하실 수 있어도 國務委員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證人 金玉吉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요. 그것은...

○朴燦鍾委員 證人께서는 5·17戒嚴擴大措置가 끝나는 이와 같은 光州抗爭을 불러 일으키리라는 豫見을 전혀 못 하셨습니까?

○證人 金玉吉 豫見을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들은 않았겠지요.

다른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압니다.

○朴燦鍾委員 지금 委員長! 저 午後訊問 제가 10分 남아있는것 柳炳賢證人에게로 돌리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그렇게 하세요.

○朴燦鍾委員 5月23日 아침 다섯時 또는 여덟時 사이에...

○證人 金玉吉 저는 끝났어요?

○朴燦鍾委員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委員長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5月23日이라는 時點 대개 기억하시죠?

○證人 柳炳賢 어느 해의 5月23日...

○朴燦鍾委員 80年 5月23日... 5·17戒嚴擴大措置가 있었던 그 옛새된인 5月23日 이른바 軍의 用語로는 光州事態이고 光州抗爭進行期間 중입니다. 그 鎮壓問題가 당시 軍에서 가장 主의 重要事로 대두되어 있을 때입니다.

5月23日 戒嚴司對策會議에 合參議長으로 參席하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戒嚴司對策會議에는 參席한바 없습니다.

단 戒嚴司令官이 國防部에 와서 3軍總長들과 會同하면서 戒嚴狀況의 進行에 관해서

會議할 때 저는 거의 매일 있었기에 거기 參席했습니다.

○朴燦鍾委員 거기에는 國防長官도 陪席했습니다.

○證人 柳炳賢 뭐 國防長官 房 열이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을때는 거기에 同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이른바 5·27 鎮壓 兇정作戰開始 나흘前 午前인데 證人께서는 美國이 協調的이고 積極的으로 나오기 때문에 兵力으로 鎮壓을 결행해도 難難을 분위기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브리핑」하신 일이 있습니까?

○證人 柳炳賢 合參議長이 몇때문에 그러한 「브리핑」을 하겠습니까?

○朴燦鍾委員 證人 보십시오. 證人께서는 韓·美聯合司 副司令官을 經由하시고 合參議長이 되셨지 않습니까?

○證人 柳炳賢 예.

○朴燦鍾委員 이 語錄에 의하면 國防長官과 柳炳賢合參議長이 對美關係에 있어서 潤滑油役割을 해왔고 따라서 美UN軍司令官과의 이런 協力關係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光州에서 鎮壓에 部隊動員을 해서 鎮壓해도 美國은 큰 무리가 없는 한 양해할 것이다 이렇게 證人이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證人 柳炳賢 저 그와 같은 말 한바 없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은 아까 제가 金玉吉證人에게 質問한 일입니다마는 全斗煥保安司令官의 中央情報部長 就任經緯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證人 柳炳賢 잘 모르겠습니다.

○朴燦鍾委員 지금도 모르십니까?

○證人 柳炳賢 최근에 와서 여러가지 말씀들을 갖다가 듣고 비로소 알게 된 事項들이 대부분입니다.

○朴燦鍾委員 당시에 「美國의 여러 朝野의 言論이나 新聞 放送媒體에 全斗煥將軍이 中央情報部長署理로 就任하게 된 經緯가 論難이 되었고 報道가 되었을 뿐아니라 이로써 韓國의 實質의인 强者로 부상했다 하는 것이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여러 新聞에 또 美國의 朝野間에 이것이 論爭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고 한 사실을 證人은 자각하고 계시지요?

○證人 柳炳賢 그 就任한 經緯가 報道됐다라는 말씀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면 그 後半部 얘기는 그렇게...

○證人 柳炳賢 그와 같은 記事를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朴燦鍾委員 事實로 合參議長으로서 그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그 당시 狀況이 사실로 全斗煥將軍이 軍의 實勢로 부상했다는 것 證人도 인정하시지요?

○證人 柳炳賢 저는 그 당시 자기의 계급이라고 하는 거기에 관해서 지나치게 의식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全斗煥將軍은 中將으로서 저는 相對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合參議長이 되신 것이 언제입니까?

79年12月...

○證人 柳炳賢 14日인가 13日인가 그때쯤입니다.

○朴燦鍾委員 그때 鄭昇和 當時 陸軍參謀總長이 연행되어서 調査받고 있는 事實을 證人께서 알고 계셨지요?

○證人 柳炳賢 連行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 저녁에 그와같은 事態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알았습니다.

○朴燦鍾委員 지난 일이지만 證人이 合參議長으로 發令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相當期間을 拷問 등 現役 陸軍大將이 가혹한 苛酷行爲를 그의 直前部下들에 의해서 그것도 下士官과 文官들에 의해서 恣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證人은 아십니까?

○證人 柳炳賢 최근에 그 사실 알았습니다마는 몹시나 잘못된 일입니다.

○朴燦鍾委員 美國이 12·12와 4月14日 全斗煥將軍의 中央情報部長 就任에 따르는 韓國 陸軍내의 位階秩序의 파괴 混亂相 이것을 美國이 우려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友好的인 충고라도... 證人은 美國친구들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公的 또는 私적으로 이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證人 柳炳賢 별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陸軍내의 位階秩序가 또 그러한 軍紀가 제대로 서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저는 어떠한 분이 어떠한 補職을 받는다고 할때에 있어서 자기의 職責을 갖다가 훌륭하게 遂行할 동안에 있어서는 좋습니다마는...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 柳炳賢 그 범위를 벗어날 때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합니다.

○朴燦鍾委員 범위를 벗어난 것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요.

少將인 保安司令官이 政府組織法상의 副總理級에 해당하는 中央情報部長을 兼職했습니다. 이것은 中央情報部法에도 兼職을 禁止해놓은 그런 規定이 있는 데도 兼職함으로써 그 法違背한 것은 또 좋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때니까... 그러나 保安司令官이 中央情報部長에 就任함으로써 中央情報部長의 事實上 麾下에 國防長官 그 麾下에 合參議長 그 麾下에 陸軍參謀總長 戒嚴司令官이 逆順으로 配屬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軍紀紊亂과 軍紀危害에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證人 지금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朴委員께서 그와같은 말씀을 하시고 염려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무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마는 逆順으로 配屬되어서 指示 支配를 받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 判斷은 第3者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資料에 의하면 80年6월에 英國戰略問題研究所에서 나온 極東情勢分析書에 의하면 당시 金日成이가 80年4月 5月 6月 이때에 對南侵攻을 감행할 可能性이 일시 있었던 것은 南韓의 政治事情이 아니라 南韓陸軍의 이와같은 12·12主動勢力들의 混亂惹起로 인한 軍統帥系統指揮系統의 紊亂이 戰力の 分散을 가지고 오고 따라서 休戰線의 이른바 鐵桶防禦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狀態였다. 그래서 그 때에 金日成이가 일시 그런 判斷을 한 일이 있었다라는 報告書에 대해서 證人은 어떻게 評價하세요.

○證人 柳炳賢 그 報告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갖다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참 있다가... 몇年 있다가 그와같은

것을 갖다가 저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로 말미암아 前方의 防衛態勢가 防禦態勢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던 것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 參考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金日成이는 말하기를 南韓에서 愛國市民 同胞들이 봉기할 때에는 좌시치아니하고 支援할 것이며 南朝鮮을 解放하겠노라는 말을 그 당시에 했던 것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金日成이가 그 말은 1년에도 몇번씩 합니다.

다음 質問 證人께서 合參議長을 辭任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證人 柳炳賢 81年6月頃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리고 駐美大使가 되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예.

○朴燦鍾委員 이것 마지막 質問이 되겠는데 證人께서는 5月17日 全軍非常指揮官會議에서 앞의 書類의 主內容은 생략되어있고 參席한 指揮官들의 署名綴에 署名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지요?

○證人 柳炳賢 예. 그와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戒嚴擴大와 그리고 國會의 門을 닫게하는 措置에 대한 決議 軍의 의지를 보이는 署名이었다고 하는 것... 結果의이지만 是認하시지요?

○證人 柳炳賢 그와같은 의지를 보일 것이라 하고 하는 것 그 당시 署名하면서도 느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 柳炳賢 그러나 閣議宣布權者는 필요한 말하자면 判斷을 그 분들 나름으로서 責任을 다 하리라고 믿고 했습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은 그 당시에 合參議長으로서 位階序列上 最上位職의 將星이었을 뿐아니라 軍服을 입기는 했어도 5·16 最高會議 당시에 閣僚를 지내셨지요?

○證人 柳炳賢 예.

○朴燦鍾委員 農林部長官을 지내셨지요?

○證人 柳炳賢 예.

○朴燦鍾委員 또 全斗煥將軍과 그 實勢들과의 位階序列로 보더라도 새까만 後輩들 아닙니

까? 그렇지요?

全斗煥將軍이나 盧泰愚將軍이나 鄭鎭溶將軍이나 전부가 다 階級序列上으로도 그렇고 軍經歷으로도 그렇고 年令으로도 그렇고 또 行政府의 經驗으로 보나 모든 점에서 證人이 絶對 優位에 제쳤지요?

○證人 柳炳賢 예. 말씀하십시오.

○朴燦鍾委員 그러한 證人이 막연히 이와같이 戒嚴擴大를 이 자리에서 論議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의 消極的 發言에서 끝내 버리고 또 그 署名에 앞장서고 그러한 證人의 行爲가 과거 國家에서 證人에게 베풀어준 그 施惠의 크기에 비해서 證人이 公人으로서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方法이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結果가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署名을 앞장섰다 라고 하는 말은 適合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은 12·12以後 合參議長으로 就任한 이후에 「워싱턴」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柳炳賢 예. 있었습니다.

○朴燦鍾委員 한 차례입니까?

○證人 柳炳賢 한 차례입니다.

○朴燦鍾委員 어떤 用務로 가셨습니까?

○證人 柳炳賢 美 合參議長의 招請을 받고 갔읍니다마는 年例의인 行事로써 다 在任期間에 合參議長은 한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이 많은 職業 外交官을 거쳐놓고 특별히 駐美大使로 全斗煥大統領에 의해서 任命된 그 動機가 어디에 있다고 類推하십니까?

○證人 柳炳賢 글세 말씀입니다. 그 任命을 갖다가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저를 過大評價하신 것입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發令을 保留해 주십시오. 2·3일만 더 人選하시면 더 좋은 분이 발견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일용 辭讓했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署名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署名行爲가 結果의으로 光州抗爭을 誘發하게 되는 오늘이 이 悲劇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公人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고 질 수 있을는지 柳炳賢證人和 金玉吉總長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간절한 質問 작은 過誤도 크게 인정하는 그렇게 해서 度量넓고 大丈夫다운 모습 이것을 우리 聽聞會場에서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제 이런 간절한 質問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두 證人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柳炳賢證人께서 먼저 答辯해 주시고 總長께서 다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柳炳賢 그때 그와같은 文書에 署名을 함으로 말미암아 國民의 不安을 招來하게 되었노라 나라의 發展에 어떠한 沮害要件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指摘事項에 관해서는 제가 무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할바를 즉 合參議長으로서의 職責을 다하려고는 하였읍니다마는 그로 말미암은 그와같은 잘못이 있었다 라고 指摘하신다면 사람입니다. 指摘事項에 관해서는 의당 그와같은 指摘事項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와같은 문제에 관해서 道義的인 책임을 져라 라고 한다면 그 應分の... 말하자면 거기에 合當한 道義的인 책임 져야 마땅하지요.

○朴燦鍾委員 道義的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總長께서 말씀하세요.

○證人 金玉吉 죄송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상으로 金玉吉 柳炳賢 두 證人에 대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證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쉬셔도 됩니다.

이제 약 한 1時間30分정도 停會하려고 합니다. 3時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30分 會議中止)

(15時3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 崔 雄證人の 證言을 듣겠습니다 證言을 듣기 전에 關聯法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는 證人이 同法을 違反하면 處罰할 수 있는 規定과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證言內容에 대하여

不利益處分을 받지 않는다는 保護規定도 있을 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證人の 宣誓가 있겠습니다.

○證人 崔 雄

(證人宣誓)

○委員長 文東煥 崔 雄證人에 대해서 各 交涉團體別로 配當된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民主正義黨에 85分 平和民主黨에 81分 統一民主黨에 60分 新民主共和黨에 34分입니다.

시간을 감안해서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崔 證人에 대한 訊問委員은 아홉분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平民黨에 金泳鎮委員 民主黨의 朴泰權委員 共和黨의 金文元委員 民主黨의 李敏燮委員 平民黨의 崔鳳九委員 民主黨의 張石和委員 民主黨의 李肯珪委員 平民黨의 趙洪奎委員 民主黨의 鄭昌和委員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平和民主黨의 金泳鎮委員께서... 鄭昌和委員 말씀하세요.

○鄭昌和委員 鄭昌和委員입니다.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本特別委員會가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를 開催하고 있는 중 11時頃に 光州에서 5·18光州民主化運動의 被害者들인 遺族會의 代表들을 비롯한 約 90名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이 國會議事堂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우리 本聽聞會가 그들의 아픔을 진실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 정당한 불만과 요구를 갖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이 會議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正門에서 있는 警察들과 守衛들을 해치고 또 本聽聞會 바로 入口 10「미터」前方까지 와서 그들의 요구를 과격하게 요구함으로 인하여 本聽聞會에 參席하고 있었던 우리 特委委員들을 불안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國會 안에 있는 中央 복도소위 「로멘더·홀」이라고 부르는 中央 복도에 陳列된 器物들을 깨는 등의 그러한 不法事例가 있었습니다. 大韓民國 國會가 생긴 이후에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렇게 國會에 不法의으로 들어와서 不法的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마 4·19學生革命 이후에 太平路에 國會議事堂이 있을 때 한번 있었고 오늘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함으로써 참으로 이는 大韓民國 憲政史上 또 大韓民國 議政史上 대단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그 요구를 관철하고 그 요구를 政策에 반영해 감에 있어서는 정당한 절차도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과격하게 이 本聽聞會場의 10m 前方에서 일어났고 또 이 신성한 國會議事堂의 한가운데 복도에서 器物을 파괴하는 등의 不法의인 행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어쩌면 真相糾明을 위한 本聽聞會의 활동을 萎縮 歪曲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本特別委員會를 代表하시는 文東煥委員長께서는 오늘에 있었던 狀況에 대하여 좀더 소상하게 國民앞에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本特委로 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國會議長에게 特委委員長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國會가 不法의으로 侵入당하는... 亂入당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聽聞會의 活動이 正常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保衛하는 그러한 措置를 적절하게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文東煥委員長께서는 이 國會議事堂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과격한 要求를 하셨던 그분들을 직접 만나셔서 對話를 나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對話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리고 어떠한 措置를 약속을 하셨는지 그 내용도 한번쯤은 밝혀주시고 國民에게 오늘 午前에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소상히 한번쯤 과정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믿어 議事進行發言을 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辛基夏委員 말씀하세요.

○辛基夏委員 平和民主黨所屬 辛基夏委員입니다.

오늘 光州에서 5·18光州民主化運動遺族들과 또 負傷者 및 行不者家族들이 約 100餘名이 우리 國會에 들어와서 集會를 가졌던 사실 약간 유감된 일이라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8年半前에 일어났던 光州市民의 아픔만이 아니라 4,000萬國民의 아픔이요 民主人類의 아픔인 光州民主化運動을 아는지... 그 아픔을 아는지 오랜 기간동안 이 政權은 이 일을 可及의이면은 隱蔽시켜 버리려 했고 이를 可

及的이면은 真相을 糾明하지 않으려 했고 이제 4·26總選舉에 의해서 이른바 與小野大의 國會가 됨으로 인해서 憲法上에 規定된 國政調查權이 發動되어가지고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委員會가 發足되어서 그 真相을 糾明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聽聞會過程을 통해서 4,000萬國民이 다 生放送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일부 委員들이 더 솔직히 표현하면은 與團所屬委員들이 과연 真相糾明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國民의인 의아심을 자아내게 했던 것은 滿天下에 公開된 사실이올시다. 더우기 政府에서는 真相糾明이라고 하는 이 重大한 일을 하고있는 과정에서 最後的으로 있어야 할 事後措置의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負傷을 당하고 수많은 財産이 큰 폐허가 된 이 光州真相에 대해서 밝혀려고 하기는 커녕 돈 몇 톨으로써 이를 隱蔽시키고 다시 덮어버리려고 하는 흔적의 말을 감히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補償關係에 관한特別措置法 등등 하는 新聞報道올시다. 거기에 生放送을 통해서 나오는 與團委員들의 發言과 여기에 聽聞會의 本質인 訊問과 答辯過程에서 野團委員들의 訊問過程에 일어나고 있는 야유와 또한 웃음이 필요없는 과정에서 웃음 등등으로 헛웃음 등등으로 聽聞會를 방해하는 그런 과정 등등을 지켜본 直接的인 當事者인 遺族들과 팔다리를 잃고 몸에 銃을 맞은 負傷者 그리고 지금도 내아들딸이 내형제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 魂이 九泉에서 해매는거조차 모를 그 사람들이 과연 5·18光州民主化運動國會真相調查特別委員會가 真相調查를 實質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政府가 과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데 대한 치미는 듯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엇그제 光州望月洞 墓地에 가서 默念을 올리고 全斗煥씨가 證人으로 參席할 것이라는 오늘을 택해서 光州에서 國會로 오기로 했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警察과 모든 情報機關이 다 알고 있고 또한 國會에서도 이를 情報機關에..... 물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國會議事堂 앞에 와서 그 동안에 자기 자기네들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利益集團의 利益의 意思表明을 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戰警들과 많은 警察들은 그들의 國會의 進入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세「버스」에 分乘해서 國會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들 警察들은 조금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그 분노에 치밀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중에서 戰警들이 밀고 닥치는 과정에서 「로텐다 홀」에 있는 器物 하나가 損壞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빨리 우리들의 勸誘에 응해 가지고 빨리 냉정을 되찾아서 國會에 이렇게 들어온 사실을 사과하고 또한 器物까지 자기네들의 행동에 의해서 損壞되었다기보다는 警察官들과 밀고 닥치는 과정에서 일부가 損壞된 사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돈까지 거두어서 이에 대한 辨償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光州5·18民主化運動真相調査特別委員會가 真相糾明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떠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本委員會의 聽聞會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議事進行과 전연 관계 없는 말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國會에 들어온 여부를 가지고 트집잡아서 聽聞會 활동을 지연시키려고하는 그러한 태도야말로 그 저의가 감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前大統領이었던 崔圭夏씨와 全斗煥씨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崔圭夏씨는 어제 나오지 않았고 全斗煥씨도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委員長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全斗煥씨는 延禧洞을 떠나면서 國民이 원하는 곳이라면 國外가 아니면 어디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國會가 國民의 代表機關일진대 國會에서 全斗煥씨를 證人으로서 나와서 出頭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자기가 했던 말은 헌신짝 버리듯이 어디다 버려 버리고 國會에 出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더우기 모 든 4,000萬 國民이 분노에 떨고 있는 마당에 더우기 光州遺族들과 光州 負傷者들과 行不者 家族들의 마음이야 오죽 했겠습니까. 그 분들이 분에 치미는 마음으로 國會에까지 왔지만 일시적인 흥분된 마음에 대해서는 全國民과 國會議員과 모든 사람에게 사과를 드리고 갔는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聽聞會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民正黨에서 약간 會議을 지연시키면서 들어와 가지고 聽聞會 進行을 방해하고 엇그제 사진 하나 가지고 黨利黨略의인 차원으로 이용하려 하고 하는 저의를 全國民 앞에 보인 바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聽聞會와는 關係없는 외부적인 그러한 일 에 대해서 다시 委員長에게 여러가지 행동을 하면서 이를 트집잡는 이유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同僚 鄭昌和委員의 議事進行發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제가 한 마디 얘기하고 우리 聽聞會는 시작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온 취지는 聽聞會를 철저 해서 光州에서 일어난 悲劇의 眞相을 糾明해 달라고 촉구하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民正黨에서는 거기에 같이 幹事들 참여해 달라는데 참여해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野 3黨의 幹事들이 陪席한 자리에서 이 眞相이 糾明될 때까지 철저히 성실하게 꾸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그들이 平和的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聽聞會는 계속해서 약속한 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平和民主黨의 金泳鎮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시간은 36分입니다.

○金泳鎮委員 平和民主黨의 金泳鎮委員입니다.

證人께서는 5·18光州抗爭 당시 11空輸旅團長으로서 現地に 출동한 일이 있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그 뒤로 언제 어떤 계급으로 服務하다가 豫編 했습니까?

○證人 崔 雄 80年5月 光州 그 당시에는 11空輸旅團長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해 7月初에 旅團長을 마치고 1軍에 있는 軍司令部의 參謀로 나갔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때 계급은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崔 雄 准將입니다. 별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7個月간 人事參謀를 마치고 81年1月 하순경에 步兵部隊 師團長으로 나갔습니다. 少將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81年1月 하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約 20個月 師團長 勤務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82年11月初에 朴熙道將軍 후임으로 해서 特戰司令官으로

赴任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金泳鎮委員 그때 進級했습니까?

○證人 崔 雄 아닙니다. 少將입니다. 저는 少將으로 特戰司令官을 꼭 밀치고 그 다음 84年7월에 3星將軍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金泳鎮委員 豫編은 언제 했습니까?

○證人 崔 雄 豫編은 86年7月4日附로 했습니다.

○金泳鎮委員 現職은 무엇입니까?

○證人 崔 雄 現職은 「파키스탄」特命全權大使로 나가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파키스탄」大使로서 현지에 服務하다가 이 光州特委에 證人으로 채택되어서 오셨습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具體적인 내용을 訊問하겠습니다.

證人은 11空輸施團의 光州増派 出動指示를 최초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전달을 받았습니까? 최초에 전달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證人 崔 雄 80年5月18日 새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서울에 있는 東國大學에 駐屯 했습니다. 駐屯을 하고서 宿營編成을 거의 마칠 무렵인 오후 3時쯤 되었습니다.

○金泳鎮委員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우선 參謀로부터 報告을 받았습니다.

지금 光州地域으로 増員準備指示가 내려왔다.....

○金泳鎮委員 그때 増派理由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作戰의 이유...?

○證人 崔 雄 答辯이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다가 알겠다 하고서 이제 宿營編成 하던 것을 마치고 다시 거둬들이는 상황에서 저희 그 당시 鄭鎬溶特戰司令官이 東國大學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光州 7旅團 2個大隊가 戒嚴軍으로 나가 있는데 騷擾鎮壓作戰을 못하고 매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 崔將軍이 지휘하는 11旅團이 거기에 나가게 되었으니 가서 任務遂行을 잘 하도록 하라 이러한 지침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金泳鎮委員 7空輸 2個大隊가 光州現地에 파

견되어서 騷擾事態에 대한 鎮壓을 못하고 있다고 鄭鎬溶司令官은 證人에게 말했는데 그 못하고 있는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示威群衆이 많아지고 騷擾가 확산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때에 특별하게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가령 현지에서 어떤 流言蜚語가 있고...

○證人 崔 雄 流言蜚語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金泳鎮委員 예. 무슨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證人 崔 雄 좋지 않은 流言蜚語가 있는데 慶尙道 사람들이 와서 光州 사람을 괴롭힌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泳鎮委員 현지에서는 慶尙道 軍人이 全羅道 사람을 씨름 말린다 다 죽인다 이런 사실이 流言蜚語가 유포되어서 光州市民들이 격분해가지고 나섰다 그래서 7空輸 2個大隊가 현지에 갔는데 鎮壓이 안되어서 부득이 證人에게 鄭鎬溶司令官이 東國大學校에 와서 현지에 가야겠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출신인 崔將軍이 현장에 가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야겠다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런 「뉴앙스」가 풍겼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까? 그때 鄭鎬溶司令官이 證人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出動은 午後 3時인데...

○證人 崔 雄 出動이 午後 3時가 아니라 제가 光州 増派 命令을 받은 것이 午後 3時쯤 되었고 軍裝을 풀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이고 쌓고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時間으로 봐서는 한 時間정도 후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金泳鎮委員 그렇습니다. 陸軍本部 作戰命令 19-80號에 의하면 證人の 부대에 金在明 陸軍本部 作戰參謀로부터 최초로 増派 결정이 나서 이 指示가 鄭鎬溶司令官에게 전달되고 鄭鎬溶司令官은 證人이 거느리고 있는 11空輸部隊 東國大學에 訪問을 해서 방금 확인한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作戰命令을 전달을 합니다. 그렇지요?

○證人 崔 雄 그것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제가 出動命令을 받은 것은 參謀로부터 傳文 내려온 것을 받은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처음에 연락은 參謀로부터 받았는데 나중에 部隊를 총 指揮하는 特戰司令官이 현지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證人 崔 雄 司令官이 제가 내려간다고 하니가 光州의 어려웠던 상황을 저에게 참고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되었습니다.

○金泳鎮委員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왜 그 얘기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證人의 證言대로 3시부터 出動하라는 作戰命令에 따라서 軍裝을 꾸리고 4시에 部隊를 출발을 하지요.

○證人 崔 雄 4시 좀 지나서 1個大隊 兵力하고 제가 비행기 타고 光州로 내려갔습니다.

○金泳鎮委員 됐습니다. 證人은 證人의 部隊보다 먼저 光州에 파견된 7空輸 33大隊와 35大隊가 光州에 도착해서 세워진 앞에 나선 구체적인 시간이 몇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證人 崔 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金泳鎮委員 모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鄭鎬溶 特戰司令官이 證人에게 와서 慶尙道 軍人이 光州에 와서 全羅道 사람을 괴롭힌다. 現地에서는 세를 말린다 그러니까 서울 出身인 貴官이 현지에 가서 진압해야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대단히 이번 光州抗爭에 숙제를 푸는데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證人! 7空輸 33大隊와 35大隊는 5月18日 새벽 1시에 出動命令을 받고 朝鮮大學을 비롯한 全南大學에 「캠프」를 치고 現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戰敎司作戰 狀況日誌를 보면 그리고 역시 7空輸의 戰鬪詳報에도 나와 있습니다. 午後 3時50분에 警察과 學生들과 같이 최초로 7空輸 2個 大隊는 충돌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證人 崔 雄 예.

○金泳鎮委員 그러면 光州 市內에 出動해서 警察과 이 學生들과 空輸部隊가 같이 충돌한 시간이 3時 50分인데 證人에게 와서 얘기한 時間하고는 한 時間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慶尙道 軍人이 全羅道 사람들 세를 말린다고 하는 얘기는 流言蜚語에 의한 얘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이것은 작본에 의해서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를 證人에게도 이 鄭鎬溶 特戰司令官은 주지를 시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근거를 대겠습니다. 18日 午後 4時 정각이었습시다. 4時 정각에 光州 市內에 있는 共用「터미널」에 空輸部隊員 30餘名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난 空輸部隊員은 휴대하고 있는 진압봉을 가지고 거기에 와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거기에서 세 사람이 現場에서 쓰러졌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한 젊은 女性이 붙잡혀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옷이 거의 반 발가벗겨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共用「터미널」에 全南道內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여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파견된 空輸部隊가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구령을 불이면서 全羅道 놈들 다 죽이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강한 慶尙道 발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많은 市民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한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의 方向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과 鄭鎬溶特戰司令官이 證人이 주둔하고 있는 東國大學에 가가지고 現地에서 이런 流言蜚語가 있다. 그러니 서울出身인 證人이 現地에 가 가지고 鎮壓해야겠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 시간 차이가 납니다. 證人!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崔 雄 委員님 말씀은 굉장히 論理가 비약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特戰部隊도 다 國軍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軍에는 慶尙道도 있고 全羅道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指揮者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 慶尙道 사투리 하는 指揮者가 있다면 그 사람이 사투리를 쓰게 되면 慶尙道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金泳鎮委員 證人!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光州 現地에서 慶尙道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인다는 그런 얘기는 光州市民에 의해서 유포된 것이 아니고 바로 空輸部隊에 의해서 유포됐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空輸部隊 特戰司令官인 鄭鎭溶司令官이 證人에게 가 가지고 現地에서 3時50分頃에 光州市民과 충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시간 전에 證人에게 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證人 崔 雄 물론 그렇다면 確認도 하고 調査도 해야 되겠지요.

○金泳鎮委員 다음 또 들어보세요.

陸本의 移動指示가 18日 午後3時에 下達이 되고 先發部隊인 旅團本部和 1個 大隊兵力 260名이 4時30分에 城南飛行場을 출발하지요? ○證人 崔 雄 대략 시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비하고 나가려면 그렇게 되겠는데 旅團本部가 아니고 大隊하고 旅團長하고 作戰參謀 하나 정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金泳鎮委員 여기 戰鬪詳報가 있습니다.

戰鬪詳報를 보고 이 戰鬪詳報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本委員은 證人에게 訊問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證人 崔 雄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金泳鎮委員 그 날 午後 6時30分에 朝鮮大學에 도착합니다. 결국 서울의 軍 首腦部는 7空輸兵力으로 光州市 鎮壓을 하기도 전에... 시간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기도 전에 또 現地의 31師團長인 鄭將軍의 增派要請도 없었습니다. 또 CAC司令官 尹興禎將軍의 空輸部隊 增派要請도 없었습니다.

增派要請이라고 하는 것은 現地에 파견된 空輸 7空輸에 의해서 光州市民과 함께 소위 接戰이 된다는 충돌이 된 다음에 인력이 부족해서 增派要請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軍의 兵力要請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도 없이 11空輸인 證人の 部隊를 增派要請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證人の 11空輸旅團을 光州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각본입니다. 證人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崔 雄 저는 命에 의해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내려간 것에 불과합니다. 命令받고 내려갔지요.

○金泳鎮委員 證人!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합니다. 웃지 마시고 정중하고 진실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崔 雄 알겠습니다.

○金泳鎮委員 사실이 아니니까 어이가 없어 웃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웃습니까? 정중하게 答辯하세요. 그렇다면 光州 現地와 서울간에 별도의 어떤 情報連絡體制 다시 말해서 現地의 31師團長과 CAC司令官은 7空輸部隊에 의해서 兵力不足現象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1空輸部隊를 增派要請을 했다고 그래서 兵力을 現地에 파견하는가. 이것은 光州의 상황이 심각치 않다고 판단한 별도의 소위 判斷部隊가 있었다. 별도의 命令指揮體制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證人は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崔 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軍作戰上 통상 7空輸가 현지에 가서...

○證人 崔 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金泳鎮委員 전혀 아직 이 警察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끼어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增派要請을 합니까?

○證人 崔 雄 제가 5月 增派되기 전에 지금 말씀을 꼭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金泳鎮委員 들어가고 난 부분은 별도로 있으니까 지금 本委員이 묻고 있는 增派에 대한 부분 이것은 證人は 모른다고 하셨지요?

○證人 崔 雄 그 점은 전혀 모릅니다.

○金泳鎮委員 되었습니다. 增派된 이유는 모르고 그저 上部의 命令에 의해서 現地에 가셨습니다.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3空輸가 光州로 이동명령을 받은 것이 몇시인지 아십니까? 추가로 增派된 3空輸...

○證人 崔 雄 3空輸는 모르겠습니다.

○金泳鎮委員 모르시지요?

○證人 崔 雄 예.

○金泳鎮委員 3空輸도 證人の 11空輸가 示威鎮壓에 나서기도 전에 19日 새벽 6時30分 陸軍本部로부터 移動命令을 받고 있습니다.

○證人 崔 雄 19日 새벽 6時입니까?

○金泳鎮委員 그렇습니다. 19日6時30分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空輸 2個大隊은 現地에 가서 光州市民과 함께 서로 충돌하기도 전에 證人の 11空輸를 이동시키고 또 證人の 11空輸가 光州에 도착해서 또다시 兵力不足의 그러한 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3空輸가 19日6時30分에 다시 이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個空輸旅團은 철저하게 事前에 계획된 각본에 의해서 時間대에 의해서 착착 現地로 증파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첫째 11空輸와 3空輸의 순차적인 光州投入은 光州騷擾의 惡化로 인한 것이 아니라 5·17「쿠데타」와 政治人の 구속으로 예상된 저항을 이룬바 空輸部隊의 초전박살내기 위한 그런 발상에 의해서 事前에 준비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増派되었다고 本委員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째 現地の 鄭 雄師團長이나 尹興禎戒嚴分所長의 増派要請도 없이 일방적으로 投入된 것은 光州狀況을 非公式적으로 報告하고 있는 또 다른 第2의 指揮體系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505保安部隊 그리고 保安司令官 鄭鎬鎔將軍이 책임받고 있는 特戰司令官 그리고 金재명陸軍參謀部長을 통한 당시 保安司令官인 全斗煥씨에게 가는 指揮體系가 분명히 있었다. 왜? 31師團長과 CAC司令官은 전혀 空輸部隊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또 増派要請도 없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지금까지 本 특위를 통해서 執權與黨에 의해서 소명된 資料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채택된 證人들이 와서 말한 것을 보면 모든 鎮壓責任을 鄭 雄師團長 尹興禎將軍 그리고 蘇俊烈 CAC司令官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工作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했습니다.

證人! 이제 이 光州의 전모를 다소나마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證人 崔 雄 3空輸가 아까 19日 새벽 6時半에 増派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旅團은 20日 새벽에 내려옵니다. 제가 19日 새벽에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저희 旅團도 악전고투를 하고 부여된 任務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러한 곤경에 처하다 보니까 아마 増派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空輸가 온 것은 분명히 20日 아침 새벽이 되겠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證人の 얘기와 여기 나와있는 戰鬪詳報와는 다르다는 말입니까?

○證人 崔 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空輸旅團長과 對質訊問을 해도 좋습니까?

○證人 崔 雄 예. 좋습니다.

○金泳鎮委員 예.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證人 崔 雄 그리고 제가 19日 새벽 3時에 모든 大隊들이 다 集結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데가 朝鮮大學인데요.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鄭 雄將軍의 指揮를 받는데 받게 되는 그 상황이 그 당시 師團의 作戰參謀가 朝鮮大學으로 옵니다. 와가지고서 7旅團 33大隊하고 35大隊가 맡고 있는 任務를 지금 말하자면 다 타격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쉽게 말해서 싱싱한 11旅團이 왔으니까 7旅團하고 교대해서 33하고 35大隊자리를 맡아달라 이것이 그당시 31師團作戰參謀가 朝鮮大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現地인 光州에 도착해서 있었던 狀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저희 旅團이 任務를 받은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예. 任務는 방금 말씀한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證人 崔 雄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꼭 되었습니다.

○金泳鎮委員 光州에 도착해서 있었던 상황을 이제 한가지 켜 확인하겠습니다. 21日 道廳 앞에서 集團發砲가 있습니다. 5月21日 1時30分에 道廳 앞에서 集團發砲를 證人の 部隊인 11空輸에 의해서 施行이 되어서 무려 54名の 선량한 光州市民이 死傷을 당합니다

아십니까?

○證人 崔 雄 예.

○金泳鎮委員 證人の 部隊인 이 11空輸에 의해서 분명히 恣行된 것이지요?

○證人 崔 雄 大隊長한테 지금 委員님이 말씀한 그러한 狀況을 報告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本委員은 20師團의 忠正作戰戰團 詳報를 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5月21日 밤9時 공식적으로 發砲命令이 下達된 후 3空輸와 그리고 7空輸 現地에 있었던 31師團은 戰團兵科教育司令部로부터 매일 탄약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證人の 部隊인 11空輸는 戰敎司로부터 光州抗爭作戰期間동안 단 한번도 공식으로 탄약을 지급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이죠?

○證人 崔 雄 저희가 원래 原駐屯地가 江原道 華川郡 梧陰里입니다.

어느 旅團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임무를 받고 大隊移動을 하게 될 때는 저희 特戰司가 원칙적으로 임무가 陸軍의 中央機動豫備隊이면서 그 다음에 對浸透作戰 그리고 거부作戰이라는 任務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忠正作戰 때문에 서울에 나가고 그 후에 光州를 갔읍니다마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다가도 어떠한 對浸透作戰이다 기타 위험한 상황이 되게되면 즉각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계탄약을 가지고 갑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가지고 있는 실탄을 가져갔다 그 말씀 아닙니까?

○證人 崔 雄 駐屯地에서 갖고 갔읍니다.

○金泳鎮委員 그 答辯을 듣기 위해서 本委員은 訊問하고 있습니다.

11空輸는 탄약을 자체에서 지급하고 그리고 휴대하고 갔다 그 말씀 아닙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런데 다른 部隊 소위 3空輸와 7空輸 31師團 이런 部隊는 전부 現地에서 실탄을 지급받는다 말씀입니다.

○證人 崔 雄 31師團은 상관없겠고요...

○金泳鎮委員 아니 31師團도 作戰 나가 있으니까 原部隊로부터 실탄을 지급받는 詳報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1空輸部隊는 다른 空輸部隊와 다르게 실탄을 직접 휴대하고 현장에 나간다

는 사실입니다.

서울을 출발할 때 처음부터 戰團用實彈을 가져 갔다는 證據가 되죠?

○證人 崔 雄 가지고 간 것이 사실입니다.

○金泳鎮委員 됐읍니다. 그렇게 다른 部隊와는 다르게 11空輸는 사전부터 실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5月21日...

○證人 崔 雄 원칙적으로 다른 部隊도 다 가져가야 됩니다.

○金泳鎮委員 그런데 다른 部隊는 어쨌든 現地에서 실탄을 받고 심지어 記錄에 보면...

○證人 崔 雄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3空輸와 7空輸는 잘못했고 11空輸는 잘했다 그 말입니까?

○證人 崔 雄 원래 特戰司에는 作戰例規가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니까 本委員은 그때 있었던 실탄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른 部隊 소위 7空輸에서는 11空輸에 있는 部隊員으로부터 道廳앞에서 실탄을 달라 해가지고 10발씩 같은 空輸部隊지만 10발씩의 실탄을 貸與받았습니다.

○證人 崔 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泳鎮委員 됐읍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부분만 答辯하시면 됩니다.

○證人 崔 雄 그런데 지금 委員님께서 既定 사실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部隊를 指揮했던 旅團長으로서 지금 委員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사항인데 저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들어와야지」하는 이 있음)

○金泳鎮委員 애기해 보세요.

○證人 崔 雄 분명히 저희들이 梧陰里에서 갈 때는 警戒用實彈을 개인當 60발씩 해서 가지고 갔읍니다 가지고 가서...

원래 忠正作戰을 할 때는 실탄을 갖고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鎮壓할 때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大隊長이 확실히 압니다마는 그 때에 道廳에 물려 있었던 特戰部隊가 달려오는 소위 武裝示威隊 또는 A.P.C라든지 軍用「트럭」을 몰고 오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당시 尙武館에

있었던 31師團步兵分隊가 다른 어떤 保安目標을 방호하고 있던 2個分隊의 兵力이 그 常武館에 있었습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지금 本委員이 묻고 있는 것은 사전에 實彈을 휴대했나 안했나를 묻고 있고 다른 部隊와의 비교를 묻고 있는데 지금 證人이 訊問하는 것입니까? 本委員이 그 내용을 확인할테니까 확인할 때 答變하세요.

○證人 崔 雄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本委員이 證人에게 이 사실을 어떤 확인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7空輸의 35大隊 3中隊長 박명수大尉가 직접 證言한 것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道廳앞 발포가 있기 하루전인 5月20日 밤 11時30分에 2軍司令部에서는 3空輸의 光州驛에서의 발포 사건을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 때문에 鎮壓部隊에서는 앞으로 발포를 금지하라 그리고 實彈을 指揮官은 統制하라 이런 指示를 5月20日 밤 11時30分에 분명히 指揮系統을 통해서 시달합니다.

○證人 崔 雄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2軍에서 그러한 指示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全南北戒嚴分所라든지 31師團을 통해서 隸下旅團에 내려가야 되겠는데 2軍것이 어떻게 경중 뛰어서 旅團에 내려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金泳鎮委員 證人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지 않아도 本 聽聞會 期間동안에 指揮體系가 二元化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本委員을 비롯한 同僚委員들은 분명히 指揮 체계가 二元化되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스로 證人의 그러한 證言에 의해서 指揮體系가 二元化되었다는 것이 立證되고 맙니다. 왜 2군사령부에서 5月20日 밤 11時30分에 발포 금지 實彈統制에 대한 指示가 指揮官會議에 決定되고 시달되는데 證人은 무슨 作戰任務를 수행하는 일개 分隊員이나 下級部隊員이 아닙니다 적어도 11空輸旅團長이라고 하는 중요한 軍要職의 指揮官입니다. 指揮官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몰랐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몰랐기 때문에 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위 21日 1時30分에 道廳앞에서 證人의 部隊員에 의해서 집단 발

포 선량한 光州市民에게 해가지고 54名の 死傷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분명히 指揮體系가 二元化되었다 이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證人 崔 雄 2軍司令部는 指揮線上에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이거보세요 軍事研究室에서 발행한 光州騷擾事態分析集에 보면 분명히 實彈統制指示가…… 發砲命令禁止指示가 나옵니다. 보여드릴까요?

○證人 崔 雄 알겠습니다. 委員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尹興禎씨와 鄭 雄씨 그리고 李 煥性씨도 5月21日 道廳앞 集團發砲事件에 대해서 전혀 報告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證人은 道廳앞에서 54名の 光州市民이 처참하게 死傷당한 현장의 事件을 部下大隊長으로부터 報告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道廳앞에서 이 참상을 어디에 報告했습니까? 旅團長으로서……

○證人 崔 雄 5月21日 道廳앞에서 狀況은 저희들이 전부 光州市內에서 부터 撤收하고 난 다음에 大隊長으로부터 제가 報告를 들었습니다.

○金泳鎮委員 報告를 듣고 그 상황을 어디에 報告했습니까?

○證人 崔 雄 그 狀況은 戰敎司令部가 되었습니다.

○金泳鎮委員 분명히 報告했습니까?

○證人 崔 雄 報告한 것으로 압니다.

○金泳鎮委員 한 것으로 압니까? 했습니까?

○證人 崔 雄 參謀들이 한 것으로 압니다.

○金泳鎮委員 그것은 대단히 光州市民이 54名이나 集團發砲에 의해서 死傷당한 것을 參謀들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CAC司令官 尹興禎中將도 현지에 나와가지고 전연 報告를 받은 바가 없다 31師團長 鄭 雄將軍도 報告받은 바가 없습니다. 證人은 어디에 報告했습니까?

○證人 崔 雄 지금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것은 道廳앞을 막고 있었던 戒嚴軍이 마치 市民들을 마구잡이로 쏜 이러한 狀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戒嚴軍들이 처해있었던

어려움을 또 위원님께서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金泳鎮委員 어디에 報告했습니까?

○證人 崔 雄 戒嚴分所가 되었습니다.

○金泳鎮委員 旅團長인 崔將軍이 戒嚴分所 尹興禎司令官에게 報告했습니까?

○證人 崔 雄 尹興禎씨에게 報告를 하지 않고 參謀를 통해서 指揮系統이 올라갔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왜 戰鬪兵科敎育司令部에 이 作戰상보에는 전혀 없습니까? 作戰狀況日誌에도 없습니다. 31師團戰鬪詳報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指揮體系가 二元化 되었다는 證據입니다. 證人은 特戰司令部에 이 集團發砲 사실을 報告했습니다.

證人! 證人에 의해서 최초로 21日 오후 1時30분에 道廳앞에서 숨겨진 선량한 光州市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證人 崔 雄 道廳 앞에 있었던 戒嚴軍들은 그 전날 各 官公署를 습격하고 또 豫備軍武器를 탈취한…… 결국 市民이 무장했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金泳鎮委員 5月21日 1時30분에 어떻게 해서 市民들이 武器를 탈취 해가지고 나오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은 大隊長 한테 報告를 들었습니다.

○金泳鎮委員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證人 崔 雄 報告를 들었고요.

○金泳鎮委員 그 報告를…… 虛偽報告를 가지고 光州市民에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證人 崔 雄 제 部下는 虛偽報告를 하지 않습니다.

○金泳鎮委員 本委員은 戰鬪상보 바로 軍部隊에서 제출한 戰鬪상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光州에 현장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證人 崔 雄 委員님 아세아자동차에서 裝甲車도 벌써 뺏기게 되고요.

○金泳鎮委員 아세아자동차에서 裝甲車도 가지고 온 문제네요. 들어 보세요 우리 同僚委員이…

○證人 崔 雄 옥상에서도 또 射擊이 가해됩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그것은 狀況이 심하게 변

어졌던 후의 狀況이고 21日 1時30분에 왜 道廳 앞에서 왜 市民과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20日 밤에 분명히 證人의 上級 部隊에서는 發砲禁止提示가 내려 오고 實彈統制指示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證人 崔 雄 분명히 發砲禁止指示는 없습니다.

○金泳鎮委員 없으니까?……

○證人 崔 雄 이런 것은 없고요.

○金泳鎮委員 證人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證人 崔 雄 저는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요 우리 현지에 있었던 우리 軍部隊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도 명확하게 보시고요 그것은 그냥 앉아 있으면 그 戒嚴軍들이 거기에서 많은 戒嚴軍이 죽습니다.

○金泳鎮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證人 崔 雄 물론 光州市民도 중요합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指揮體系가 二元化되는 것이 지금 그동안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지금 떠 오르고 있습니다. 證人의 11空輸와 配屬部隊인 7空輸의 35大隊는 5月19日밤 流血事態를 통해서 強硬鎮壓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31師團長은 會議를 열어서 鄭師團長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온전한 無血鎮壓命令을 내렸습니다. 사실이지요. 그 사건이 있는 뒤에 無血鎮壓命令이 내려왔지요?

○證人 崔 雄 제가 鄭 雄將軍의 명령을 받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泳鎮委員 無血鎮壓命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無血이란 말도 없고요. 유혈이란 말도 없습니다. 군의 명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니 소요를 진압하라 하는 것이 그 분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日새벽 한, 3時 좀 지나서 그 師團의 作戰參謀가 와 가지고요 7旅團의 임무를 인수인제하도록 하는 이러한 상황도 결국 제가 作戰統制를 받았던 그 師團長의 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의 支署들이 있는 골목골목에 部隊들이 분산配置가 되는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證人의 이야기에 의하면 現地에서 指揮權이 二元化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證人 崔 雄 제가 말이지요 一元化 二元化 이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金泳鎮委員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게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證人 崔 雄 그런데 二元化라는 것이 도대체 저도 여기와서 처음 듣습니다. 제가 軍生活 34年하는 동안에 도대체 이러한 유치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金泳鎮委員 유치한 이야기라니요 바로 指揮體系의 二元化때문에 光州에 소위 이 鬭爭은 훨씬 더 크게 심각하게 문제가……

○證人 崔 雄 委員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를 갖다가 말씀이지요 너 이렇게 이렇게 鎮壓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指揮官이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로 그런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金泳鎮委員 그렇습니다.

○證人 崔 雄 그러나 제가 光州에 19日 새벽에 내려가서 받은 명령은요. 師團長한테 받았읍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요 本委員이……

○證人 崔 雄 제가 아침에 말씀이지요 師團司令部에 갔읍니다. 부임 했다는 신고를 드리기 위해서……

○金泳鎮委員 당시에 指揮體系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旅團長인 證人이 누구에게 報告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證人 崔 雄 저는 師團長한테 모든 상황을 報告하지요.

○金泳鎮委員 그렇습니다. 配屬部隊인 31師團長 鄭將軍한테 報告토록 되어 있지요. 31師團長은 CAC戰團兵科教育司令官한테 報告하게 되어 있습니다. 尹興禎將軍은 2軍司令官 진중채將軍에게 報告하게 되어있지요? 2軍司令官은 당시 戒嚴司令官인 李煥性戒嚴司令官에게 報告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당시에 軍의 系統秩序입니다. 그런데 이 系統秩序가 파기된 근거를 本委員은 이 시간 提示하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根據를 제시하겠습니다.

5月20日 상황입니다. 5月20日의 特戰司令部狀況

日誌 實務者過失로 破棄, 아셨습니까? 特戰司令部的 狀況日誌는 實務者過失로 破棄라는 本 特委에 回信이 옵니다. 그래서 戰團兵科 特戰司令의 狀況日誌는 바로 貴部隊에서 實務者過失로 破棄했다 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5月20日, 바로… 보세요 그 앞에 있습니다. 밤 8時10分 상황입니다. 그런데 戰敎司와 2軍의 狀況日誌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戰敎司와 2軍狀況日誌와 戒嚴司令部狀況日誌를 대비한 것입니다. 밤 8時10分에 勞動廳 光州市內狀況입니다. 공용터미널 全南日報社 앞 市外 MBC 화염병 투척 20時20分 驛 良洞 鶴同派出所앞에 점거. 20時30分 消防署消防車4台 탈취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觀光호텔 3,000名 勞動廳앞에 2,000名 이런 報告가 戰敎司와 2軍에는 狀況日誌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時間에 이 상황을 어떻게 報告하신줄 아십니까? 戒嚴司令部에… 特戰司令가 報告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지요. 特戰司令報告內容입니다. 20時40分 錦南路 일대 車輛集結 5내지6萬名 騷擾 21日13分 消防車4台 탈취 21日22分 트럭70台暴徒들이 자폭 쇠파이프로 亂動 11大隊의 報告는 공용「터미널」에 1萬名集結 12大隊, 空輸隊大隊를 이야기합니다. 報告는 역앞에 5,000名 13大隊 市廳앞에 5,000名 이렇게 해서 분명히 特戰司令의 報告가 戒嚴司令部에 직접 報告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證人께서는 이 상황을 作戰指揮體系가 二元化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證人 崔 雄 委員님.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제 旅團事項이 아니구만요. 3空輸狀況이 되겠습니다. 3空輸狀況입니다.

○金泳鎮委員 이것은 그러니까 5月20日의 현재의 상황을 지금 本委員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指揮體系가 二元化되었다는 根據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軍事專門家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證人 崔 雄 여기의 記錄을 볼것 같으면 틀림없이 적혀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旅團에서 特戰司令로 報告한 것은 3旅團에서 한 것이 틀림없구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報告된 것은 參考으로 報告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측이 됩니다.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金泳鎮委員 왜 空輸特戰司令部에서는 이런

文書를 關係者 실수라고 해 가지고 破棄를 합니까? 지금 光州特委가 가장 애를 먹고 있는게 文書를 破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證人 崔 雄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金泳鎮委員 보십시오. 이 戰間兵科敎育司令部 이 文書가 전부 破棄되었습니다. 그 破棄理由를 따지니까 戰敎司가 80年 5月 光州抗爭이 지난 81年5月1日字로 陸軍一般命令 12號에 의해서 戰敎司란 이 部隊를 해체해 버립니다. 아예. 部隊를 해체해 버리기 때문에 文書가 破棄됩니다. 그런데 이 해체된 部隊는 陸軍敎育司令部 및 1管區司令部로 再創設이 되는데 83年4월에 이 1管區마저 완전히 해체를 시킵니다. 이것은 光州虐殺에 대한 真相을 완전히 永久隱蔽하기 위한 完全犯罪를 시도한 근거입니다. 뿐만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왜 證人은 자꾸 웃습니까?

○證人 崔 雄 아닙니다. 하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돼서요...

○金泳鎮委員 5月17日 戒嚴軍에 의해서 國會가 차단당하지요? 5月17日 全國非常戒嚴擴大 당시에 말입니다. 그때 33師團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證人 崔 雄 33師團이요?

○金泳鎮委員 그렇습니다. 33師團이 현장에 출동해서 國會를 막습니다. 21日 國會를 차단하는데 바로 이 차단했던 部隊 이진 사실은 憲法違反事項입니다. 憲法破棄事項입니다. 이런 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33師團이 역시 83年度에 또 해체됩니다. 그리고 17師團으로 바뀝니다. 이런 모든 근거도 가서 제시를 요구하면 部隊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文書를 破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本委員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는 철저하게 5月光州抗爭과 民主化를 요구하는 모든 國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歷史의 진실을 바로 이 軍에서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 물지각한 政治軍人들이 軍의 最高統帥權을 쥐고 있는 기간동안에 자기의 몇사람 部下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命令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國民으로부터 점점 軍에 대한 不信과 軍에 대한 오해가 자꾸 갑니다. 지금도 最前線에서 우리 國民의 財産과 生命을 보호하기 위

해서 소위 신성한 國防義務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軍人들, 이런 軍人들의 名譽까지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政治軍人들 일부 少數의 集團들이 하는 行爲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崔 雄 委員님! 저는 職業軍人이었습니다. 34年동안 제가 주옥 軍生活를 했읍니다마는 어떠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責任을 질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軍人의 심정은 委員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金泳鎮委員 마지막 質問하겠읍니다.

證人이 11空輸旅團長으로서 光州에 주둔해있던 동안에 本 委員이 지난 聽聞會를 통해서 두번 池元洞 그리고 松荷洞에서 있었던 잔인한 良民殺傷事件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하고 확인을 시키겠읍니다.

○證人 崔 雄 新聞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金泳鎮委員 보셨지요. 그런데 證人은 5月23日 새벽에 11空輸에 의해서 자행된 池元洞의 주담마을 「미니버스」事件에 대해서 내용을 報告받으셨읍니까?

○證人 崔 雄 報告받았읍니다.

○金泳鎮委員 되었읍니다. 받으셨지요?

○證人 崔 雄 예.

○金泳鎮委員 당시에 춘태女高的 1學年인 유익한 生存者입니다. 이 生存者 洪금숙씨가
(文東煥委員長, 吳景義幹事와 司會交代)

○證人 崔 雄 있읍니다.

○金泳鎮委員 지난 5月の 池元洞虐殺事件에 대해서 밝힌 진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금숙씨는 證言하기를 나는 空輸部隊에 의해 많은 學生들과 示威者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지 않은 두 오빠가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초조와 공포에 쫓기면서 오빠를 찾아서 집을 나선 저는 도중에 섬찟한 광경들을 무수히 목격했으며 결국 공포와 충격때문에 오빠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미 交通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방법이 막연했다 그런데 마침 光州公園쪽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는 그

차에 오를 수가 있었다. 제가 타고 있던 車가 鶴洞을 지나 池元洞 부근을 지나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쪽에선가 느닷없이 총소리와 함께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근에 잠복해 있던 空輸部隊가 일제히 사격을 가해 온 것입니다.

戒嚴軍의 집중사격이 계속되자 누구인가가 차를 멈추어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車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수가 차를 돌리는 순간 운전수는 날아온 총알에 맞고 피를 흘리며 현장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車 안에 있던 청년들도 총알이 날아오는 쪽을 향해서 응사했습니다. 이런 진실을 말했습니다. 空輸部隊가 쏘아대는 총소리가 더욱 요란해지자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했던지 한 청년이 銃을 쏘지 말고各自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난 後 銃을 가진 사람들은 銃을 흔들었고 女學生들은 양손을 들어쏘지 마세요. 이 車에는 女學生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空輸部隊는 계속 銃을 쏘아댔고 여기 저기서 신음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아우성소리 우는 소리가 들려서 뒤통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속에서도 反射적으로 車바닥에 바짝엎드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손등과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렀으나 두려움 때문인지 痛症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車에 탔던 18名の 同乗者중 生存者는 나를 포함해서 모두 3名뿐이었습니다. 15名이 現場에서 空輸部隊 銃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車 안에서 숨겨간 사람들 중에는 당시 저와 함께 高等學校에 在學中이던 박천숙양 당시 신의여상의 3學年 학생이었습니다. 續도 같이 있었다고 證言하고 있습니다.

이 총격전이 끝난 후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길이 좁아지자 軍人들은 인근 목장에서 리어카를 빌려와서 負傷당한 청년 2名을 옮겨 실었고 나는 걸어서 軍人들에 이끌려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좁다란 개울가에 도착하자 軍人들은 리어카에 실려왔던 두 청년을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누구인가가 두 청년을 射殺

하라 하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어서 몇 발의 총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나는 온 몸이 얼어붙은듯 했습니다. 슬픔과 공포로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光州池元洞의 良民虐殺事件의 유일한 生存者인 홍금숙양은 이렇게 證言하고 있습니다.

또 이 池元洞의 虐殺事件은 어제 蘇俊烈씨도 이 자리에서 사실이라고 몇차례 證言을 했으며 당시 11旅團의 경기만씨 11空輸 參謀長 양대인씨도 이것은 사실이라고 證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本 委員이 이 虐殺事件과 관련해서 당시 現場에 바로 證人의 部下部隊인 11空輸部隊에 근무했던 崔某中士가 바로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때가지고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 두 청년을 끌고 리어카에서 당시 少領이 사살 처리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뒤로 돌아갑니다. 돌아간지 1分도 못 되어서 총소리가 탕탕 계속 납니다. 이 崔某中士는 바로 이 총소리때문에 8年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저히 잠들 수 없고 양심이 괴로워서 전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가 結婚을 해서 이제 社會人이 되어 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딸 아이의 검은 눈동자를 쳐다 볼 때마다 자기는 罪人으로서 도저히 그를 쳐다 볼 수 없다고 證言하고 있습니다. 나는 崔中士에게 말했습니다. 崔中士가 加害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두 억울하게 살려달라고 아우성 하면서 애원하는 그 청년 全大學生과 農民이 죽었는데 그 죽은 農民과 學生의 영혼을 달랠길은 崔中士가 眞實을 말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저는 말했습니다. 崔中士와 많은 空輸部隊 現場에 출동했던 軍人들은 어떤 위에서 우매하게 당시의 政治軍人들 소위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이 사람들의 흥제에 의해서 알지도 못하고 光州가 마치 共產分者들이 強硬分者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이 폭도들에 의해서 支配되는 光州를 우리는 軍人으로서 현재 鎮壓한다고 하는 그런 오도된 사명을 떠고 現場에 가서 바로 鎮壓作戰을 강경하게 했던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은 歷史의 眞實속에서 光州抗爭이 밝혀지니까 良心의 가책을 받고 피로와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당시

들은 죄가 없다 단지 바로 이렇게 空輸部隊을 오도를 해서 이렇게 잘 못 이끌고 갔던 部隊의 長들에 대한 責任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證人! 이 良民 학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證人은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崔 雄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그대로라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參戰도 해 보았고 했습시다라는 捕虜도 그렇게 하지물 않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렇습니다. 「제네바」協定에 捕虜에 대한……

○證人 崔 雄 그런 「스토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뭐라고 答辯하기 어렵고요 現場 大隊長한테 얘기 들은 것은 교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報告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 大隊長도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 眞實을 밝혀 주셨으면 정말 그리고 우리 軍의 名譽도 찾아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本委員이 現場을 답사하고 또 방금 말한대로 당시 그 일에 加擔했던 本意아니게 加擔했던 그 部隊員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眞實입니다. 本委員이 절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실령 指揮官이 證人이 現場에 없어서 指揮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現場에서 벌어졌던 기가막힌 학살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11空輸旅團長 崔 雄將軍의 部隊 指揮下에서 5月24日 말입니다. 午後 2時에 光州 松荷洞에서 또 양민 학살사건이 벌어집니다.

○證人 崔 雄 그것도 제가 新聞을 통해서 委員님 質問하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金泳鎮委員 여기에 무슨 罪없는 이런 어린 아이들 또 저수지에서 소위 하수구에 들어가는 女人 그리고 무슨 罪가 있어서 말입니다. 짐승 가축에까지 銃을 쏘고 말입니다.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崔 雄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때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보병학교 교도대하고 철수하는 特戰部隊하고 오인되어가지고 교전이 벌어집니다 그 교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 마을의 至近으로부터 이동하는 戒嚴軍이 사격을 받습니다. 거기서 다친 사람도 있고요 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왜 그런 상황을 空輸特戰團 전투상보에는 記錄을 안습니까? 記錄을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 두가지 상황 本委員이 제시하고 있는 池元洞 양민학살사건과 이 바로 松荷洞의 事件이 소위 특전단의 전투상보에는 없습니다. 없고 本委員이 어디에서 확인했느냐 하면 전교사 작전상황일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證人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대로 이 사실이 正當當하고 바른 일이라면 왜 11空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CAC 전교사의 전투상보에는 나와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을 자행한 證人の 部隊의 전투상보에는 이것이 왜 없습니다?

○證人 崔 雄 아니 저희가 자행하다니요? 저희 철수하는 部隊가 피해를 많이 받았지요.

○委員長代理 吳景義 金泳鎮委員……

○金泳鎮委員 本委員이 묻고 있는 것은 바로 證人の 部隊 11空輸에 의해서 벌어진 이 두가지 事件이 特戰司令部의 전투상보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없어요. 이 내용이……

○證人 崔 雄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제가 委員님 확인했습니다. 戰鬪詳報가 없더군요. 없던 것은 제 불찰이 되겠습니다.

○金泳鎮委員 이것은 불찰정도가 아닙니다.

○證人 崔 雄 그리고 제가 그때에 그 特戰部隊를 떠나는 이런 狀況이 되다가 보니까 그 部隊의 指揮權의 引受 引繼 이런 狀況에서 參謀들간에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吳景義 金泳鎮委員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泳鎮委員 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이런 잔인한 良民虐殺事件 이것이 단적으로 光州에서 벌어졌던 두가지 例만을 들었습니다라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光州聽聞會가 계속되는 동안에 직접 피해를 당한 證人들이 현장에서 와서 앞으로 訊問을 통해서

證言을 통해서 속속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보시면 더 현장의 진실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本委員이 오늘의 訊問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소위 良民虐殺事件은 여기에서 제시한 이런 資料들만으로 불충분합니다. 현지에 반드시 가서 이 狀況을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우리 光州特委가 진실을 糾明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本光州特委는 이 戰敎司를 解體해서 光州抗爭에 대한 진실을 은폐했던 이런 소위 근거 반드시 糾明할 것입니다. 33師團을 解體한 眞相 그리고 더구나 5.17 主要指揮官會議錄까지 파기를 해서 이 光州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이런 모든 책임을 眞相을 糾明해서 준엄히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11空輸旅團長인 證人도 현장에 와서 5月21日 1時30分 集團發砲命令을 해서 43名の 우리 光州市民을 최초로 소위 死傷케한 책임 그리고 松荷洞과 眞月洞一帶에서 벌어졌던 良民虐殺의 책임은 證人이 겸허하게 지금이라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證人의 심경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崔 雄 本人은 部隊 指揮하는 동안에 있어서 제 部隊가 잘못된 것은 객관적으로 뭐 잘못된 것이 있다 하계되면 그 책임을 질 용의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히 委員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 部隊員이 良民을 학살했다하는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그 命을 맡고 그러한 狀況에 처해있을 때 또 제 部下들도 많은 生命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죽고요 또 APC한테 깔렸고 또 철수과정에서 全南醫大에서 총도 맞고 將校도 죽고 兵士도 죽습니다. 저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소위 戒嚴軍에서 죽은 사람의 半이... 물론 誤認事故로 해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11名の 部下를 제가 잃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部下가 負傷을 당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저도 심정이 착잡하고 이 괴로움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證人! 本委員이 調査한바에 의하면 總戒嚴軍 死亡者 23名 가운데 75%가 現地에서 서로 交戰에 의한 誤認射擊이고요 아셨습니까? 구체적으로 示威群衆에 의해서 죽

었다고 하는 것은 그 戰鬪詳報에도 보면 數字가 1%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戒嚴軍이 죽은 것도 그 人名에 대한 것은 우리는 다 겸허히 웃것을 여미고 그들의 명복을 빌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景蕸 金泳鎮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平民黨의 時間을 15分間 썼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李海瓚委員께서 25分을...

○金泳鎮委員 李海瓚委員이 아니고 趙洪奎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吳景蕸 예. 趙洪奎委員 차례인데 趙洪奎委員과 李海瓚委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黨의 時間이 15分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25分중에 10분이 李海瓚委員 時間으로 되겠습니다. 이점 諒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朴泰權委員 訊問하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30分입니다.

○朴泰權委員 民主黨 朴泰權委員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서 80年3月初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하나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80年3月初라면 이제 大學生들이 開講을 하고 開講을 하면 民主化日程 등등 時局에 관해서 學生들이 많은 어떤 示威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염려한 나머지 首都에 있는 주요한 部隊長들 指揮官들이 3월6日 한번 모임을 가졌었어요. 혹시 기억 나십니까?

○證人 崔 雄 잘 모르겠습니다.

○朴泰權委員 모르시겠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3月6日 首警司에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때 空輸特戰司令官 1·3·5空輸特戰旅團 20師團등 주요한 部隊들이 모였는데 證人이 속해있는 11旅團長만 參席을 안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證人 崔 雄 글썄요. 그때 特戰司 隸下旅團가운데 이제 멀리있는 旅團이 제가 제일 멀고요 江原道 華川에 있고요 그 다음에 7旅團이 全州부근에 있고 그와 旅團長들은 參席을 안했습니까? 13旅團長하고요. 參席을 안했습니까?

○朴泰權委員 예. 그렇지요. 거기도 參席안했습니다.

○證人 崔 雄 아마 시골에 있는 旅團이기에문에 여지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朴泰權委員 그런 면도 있겠지요 證人이 있는 部隊가 충정훈련을 별로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參席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證人 崔 雄 그렇지 않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證人이 속해있는 11旅團도 충정훈련을 계속 받아왔었습니까?

○證人 崔 雄 받았읍니다.

○朴泰權委員 소위 「테모」示威鎮壓이지요?

○證人 崔 雄 騷擾鎮壓이 되겠습니다.

○朴泰權委員 한마디로 요약하면 騷擾鎮壓... 그러면 그 훈련은 摩下將兵들에게 계속 훈련을 시켰었습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은 이제 時間計劃에 전체 훈련가운데 충정훈련과목이 있습니다. 훈련科目이 있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대략 기억이 나기에는 1週日에 한 4時間정도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니까 1주일에 4時間정도라면 많은 훈련시간중에 큰 비중은 아니고 역시 證人의 部隊는 空輸特戰旅團의 특수임무에 主眼點을 둔 그런 部隊로 봐야지요?

○證人 崔 雄 그렇고요 여기에서 제가...

○朴泰權委員 되었읍니다. 그 이상은 더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證人의 部隊가 舍北事態때에도 투입이 되었지요?

○證人 崔 雄 舍北事態때 갔었읍니다. 가서 투입은 안되었고요 原州에 駐屯하고 있다가 그냥 왔었읍니다.

○朴泰權委員 주변에 駐屯하고있다가 잘 해결이 되니까 왔고 와있다가 다른 部隊들하고 교체되면서 光州에 들어갔지요?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아까 金委員님 質問하셨을때 對答했읍니다마는 다시 原隊復歸하고 있다가 5月10日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다시 서울로 내려갑니다.

○朴泰權委員 그런데 아까 證人이 얘기할때 11旅團에서는 항상 特戰部隊의 임무대로 모든 장비 實彈까지 포함입니다. 이것을 지참하고 다닌다 이런 말씀이었지요? 그러면 光州에 갈

때도 그렇게 전부 지참하고 갔었습니까?

○證人 崔 雄 아니지요 다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즉각 응할 수있는 간편한 裝備인데 裝備는 경계용 實彈이 되겠습니다. 경계용 實彈 하나만 가지고 갔읍니다.

○朴泰權委員 몇發씩 주었습니까?

○證人 崔 雄 個人當 60發이 되겠습니다.

○朴泰權委員 個人當 60發씩... 全員에게 지급이 되었지요?

○證人 崔 雄 지급이 안되고요 彈藥은 大隊別로 다 묶어서 통합해서 다 봉해갖고 가지고 갔고...

○朴泰權委員 그러면 實彈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證人 崔 雄 實彈을 그 당시 朝鮮大學校... 光州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泰權委員 그렇지요 光州에 투입했었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을 가지고 가서 朝鮮大學校 駐屯地에다가 다 집단보관을 大隊別로 했읍니다.

○朴泰權委員 大隊別로... 그러면 大隊兵力中大隊長이라든지 中隊長 支隊長에게 전혀 實彈을 지급을 안했습니까?

○證人 崔 雄 實彈支給을 안했읍니다.

○朴泰權委員 전혀 안했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光州에 도착했을때 申告는 어떻게 했습니까? 配屬받아서 갔으니까 申告를 했을 것 아닙니까?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申告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좀...

○證人 崔 雄 제가 1個 大隊를 데리고 5月 18日 저녁때 光州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자마자 戰敎司에 갔지요 戰敎司에 가가지고 尹興植 그 당시 戒嚴分所長에게 도착신고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앞으로 31師團의 통계를 받아가지고 騷擾鎮壓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니까 아까도 證言할때 부여된 임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騷擾鎮壓을 해달라는 정도입니까? 뭐 具體的으로 더 어떤...

○證人 崔 雄 騷擾鎮壓입니다.

○朴泰權委員 그냥 騷擾鎮壓만 해달라...

그러면 配屬이 되어가지고 證人께서는 그 당시 光州를 통제하고 있는 31師團長으로부터 光州現況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라도 情況을 들어야지 아무런 전후가 없이 騷擾鎮壓만 해달라 이게 말이 통할까요?

○證人 崔 雄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바로 위가 31師團이 되겠고 그 다음에 戰敎司는 그 위의 部隊이고 하니까 대략적인 計劃 指針이라 할까 이런 것을 준 것으로 압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역시 示威鎮壓만 해라 이것만 기억에 남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具體的인것은 31師團長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旅團長을 통하지 않고 大隊長들에게 師團長이 직접 하달합니까?

○證人 崔 雄 제가 19日 아침에 本隊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당연히 師團長에게 申告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師團에 갔읍니다.

○朴泰權委員 몇 時쯤 申告했습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이 아마 8時부터 9時 사이가 될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示威鎮壓만 해다오 그런 것입니까?

○證人 崔 雄 그때 師團長은 저에게 示威鎮壓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도를 펴놓고...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7空輸 2個 大隊하고 교대해서 새벽 4時頃부터 市內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미리갔던 大隊長이나 누가 그런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證人 崔 雄 31師團의 作戰參謀가 와가지고 7旅團의 임무를 引受 引繼해 달라고 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示威鎮壓만 해달라고 그렸고 그 당시 部隊員들은 현장에 배치해 가지고 報告들어온 것이라든지 먼저 들어갔던 7空輸에서 얘기를 들었다든지 31師團長이나 또는 參謀들로부터 들었다든지 하여간 18日 光州市內의 상황은 어떻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證人 崔 雄 좀 들었습니다.

○朴泰權委員 어떻게 들었습니까?

○證人 崔 雄 集會나 示威를 하지 못하게끔 布告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光州市民 學生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戒嚴軍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것은 몇百名이 그저 錦南路나 이런 데에서 했다는 정도였지 數千 數萬名이 모였다는 얘기는 아니었지요?

○證人 崔 雄 相對的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도 그 당시 騷擾가 굉장히 많았지만 戒嚴軍이 들어가면 釜馬事態도 그렇고 조용해지는데 유별나게 示威를 하고...

○朴泰權委員 그러면 戒嚴 撤廢라든지 全斗煥 물러가라든지 무엇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저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런데 19日 午前10時에 11空輸 旅團의 車輛 즉 트럭 30대에 全空輸部隊員들이 타고 着劍을 하고 光州市內를 질주했읍니다. 그것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크락슨」을 울리면서 光州市內를 완전히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指示는 누가 했습니까?

○證人 崔 雄 원래 中政作戰 할 때에는 처음 示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示威意志를 제압하기 위해서 일종의 겁을 주는 위세라 할까 그런 것을 꼭 합니다.

○朴泰權委員 쉬운 말로 겁을 주었다 조금더 심한 말로 하면 恐怖感을 불어넣어서 도저히 民主市民이나 愛國學生들이 절대 戒嚴下에서 示威하러 나오지 못 하도록 일종의 억압의 示威지요?

○證人 崔 雄 겁을 주는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완전히 겁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또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항거를 했지요?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때 이렇게 示威를 해가지고 1次的으로 光州市民과 學生들에게 겁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1次입니다. 바로 그것이 過剩鎮壓으로 들어가기 위한 1次的인 자극인데 그렇지요?

○證人 崔 雄 글썽요 원래 騷擾意志를 꺾어

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그것이 「에스컬레이트」되지 않고 나오지 않고 조용해서 저희 示威鎮壓任務를 수행하고 原隊復歸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示威한 뒤에 아까도 證人이 證言을 했습니까다는 그 몇 명 안되는 불과 1,000餘名밖에 안 되지요?

○證人 崔 雄 제가 현장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朴泰權委員 아니 摩下將兵이 몇 명입니까?

○證人 崔 雄 摩下將兵이 한 1,000餘名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대략 그 정도였는데 그 적은 兵力을 가지고 왜 光州市內에 넓게 배치했습니까? 말하자면 아까 파출소 얘기를 했는데 파출소마다 12·3명 그것을 中隊라고 합니까?

○證人 崔 雄 예. 1個中隊...

○朴泰權委員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많이 光州市內에 다 깔았습니까?

○證人 崔 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師團長의 지시였습니다.

○朴泰權委員 그 당시 鄭 雄師團長의 지시였습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것이 바로 두번째 자극입니다. 그렇게 배치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골목마다 바둑판식으로 쪼개져있던 兵力들이 또 각개격파를 당합니다.

○朴泰權委員 격파도 당하지만 그렇게 군데군데 여러군데 깔아놓음으로서 光州모든 市民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다 느끼고 겁을 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證人의 部隊員들이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市民과 學生들이 여기저기에서 어떤 구타나 보이지 않는 겁이나 여러가지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렇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證人 崔 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朴泰權委員 證人이나 本委員이 생각할때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두번째 光州市民에게 光州의 學生들에게...

○證人 崔 雄 얼룩무늬 입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기분나쁘게 보였겠지요.

○朴泰權委員 그렇지요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특수한 部隊員을 보면 國民들도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午前에 30臺가 光州市內를 완전히 뒤집어놓고 그 다음에 軍人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누구도 거기에 감정을 안 살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보아야지요.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것은 그렇다 하는 것으로 보아야지요? 그것을 부인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證人 崔 雄 글썽 제가 현지에 있었던 사람인데 委員님 생각하시는대로...

○朴泰權委員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證人이나 나나 어떤 근거자료를 보려고 해도 그런 자료가 없고 그런 사실이 일단 結果적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證人하고 本委員하고 이렇게 訊問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감대를 얻어보자 그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또 訊問하겠습니다.

5月21日 상황을 좀 묻겠습니다. 그 날 證人의 隷下部隊에서 31師 또는 他部隊 등 모든 戒嚴軍쪽에서의 방송이 宜撫活動으로 오늘 12時에는 光州의 愛國市民들이 空輸部隊가 들어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2次의 자극에 의해서 아주 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戒嚴軍이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여기에 더 있어서는 엄청난 不祥事가 날 것 같다 流血이 날 것 같다 이래서 21日 12時 道知事나 아니면 그 代表들하고 협상한 내용대로 우리 空輸部隊는 철수한다 이렇게 방송을 했지요?

○證人 崔 雄 道知事が 한 10時半쯤 해서 방송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 경위는 제가 묻지않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道知事の 방송은 市民들이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證人 崔 雄 믿어야 되겠지요.

○朴泰權委員 그러면 證人의 隷下部隊에서는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20日 午後부터는 大隊長 報告에 의하니까 示威群衆하고 戒嚴軍이 거의 붙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쪼개 연속되어 갔는데 市民들이 좀 과격해지고 무장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 特戰

兵力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道知事의 戒嚴軍撤收라는 말이 나오게 된 여러가지 동기도 있겠습니다는마는 그때 旅團長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매우 部隊가 어렵기 때문에 21日 아침부터 저희가 강력하게 撤收를 요구합니다.

○朴泰權委員 요구하지요?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어디에다 요구했습니까?

○證人 崔 雄 저희는 尹興禎將軍에게 요구했습니다.

○朴泰權委員 特戰司令官에게도 그런 건의했었지요?

○證人 崔 雄 特戰司令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朴泰權委員 아니. 作戰指揮體系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를 旅團長이라면 적어도 평소에 자기의 指揮官에게는...

○證人 崔 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特戰司令官은 그때 보이지 않았고요...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부담가지고 얘기할 것 있습니까?

○證人 崔 雄 제가 무담될 것 없습니다. 부담할 필요도 없지요.

○朴泰權委員 예. 31師團長에게도 얘기를 하고...

○證人 崔 雄 아니 31師團長하고는 제가 접촉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 戰敎司에게 한단계 높여 갔고요.

○朴泰權委員 그런 報告할 적에는 한단계 뛰어서 했습니까?

○證人 崔 雄 아닙니다.

그것은 戰敎司가 당시에 市民 代表들하고 여러가지 협상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師團長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적 어려움보다는 상황이 너무 급히 돌아가고 하니까 제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부하들의 생존을 보장해주어야 되겠고 쓸데없는 충돌되어 가지고... 소위 당시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는마는 光州市民 소위 학살되었다는 이러한 結果論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그래서 한단계 높여서 결심권자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朴泰權委員 分所長에게도 報告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證人의 司令官에게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證人 崔 雄 鄭鎬溶씨는 그때 뒤...

○朴泰權委員 아니 글썽 鄭鎬溶씨가 司令官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무슨 강박관념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證人 崔 雄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뉘앙스」가 좀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朴泰權委員 아니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러면 모든 作戰參謀 3個 旅團이 왔으니까 張世東 作戰參謀도 내려와 있었습니까?

○證人 崔 雄 왔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분하고도 상의하고... 상의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있었지요?

○證人 崔 雄 얘기를 했겠지요.

○朴泰權委員 그렇게 부담갖지 말고 얘기를 하자는 거지요.

○證人 崔 雄 예. 그렇습니다.

20일에 내려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3旅團까지 내려왔는데...

○朴泰權委員 좋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特定한 大隊 즉 말하자면 道廳 앞에 있는 大隊라든지 다른 中隊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요?

이것 市民들이 우리를 밀어붙일 것같으니까 방어할 수 있는 실탄을 좀 보내주시요 하는 쪽의 報告도 받았지요?

○證人 崔 雄 大隊長들에게 건의가 됐습니다.

○朴泰權委員 건의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證人 崔 雄 발포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朴泰權委員 아니 내가 발포까지는 묻지 않았는데 실탄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주어가지고 이제 發砲까지 하겠다 그 얘기까지 나왔구만요.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실탄 달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朴泰權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니까?

○證人 崔 雄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안되고 가능한 빨리 部隊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전의 하겠다 그래서 총을 거기서 쏘고 하게 되면 벌써 무장시위대도 총을 갖고있고 상당한 무장이 된 것같은데 거기서 서로 쏘게되면 큰 문제가 난다 하니까 철수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리고 이 光州市民도 강력하게 그때 代表들이 많이 오더만요.

그래가지고 협상하는데 戒嚴軍 特戰部隊 空輸部隊가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朴泰權委員 그래서 나가기로 마음의 결심은 갖추었었고 그다음에 發砲를 하겠다고 해서 하지말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大隊長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證人 崔 雄 아니 그러니까 실탄을 가져야 發砲를 하지말라고 하지요.

○朴泰權委員 아니 제가 그래서 실탄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證人께서 發砲내용으로 비화시켰지않아요?

○證人 崔 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朴泰權委員 잘못이라니요 금방 또...

○證人 崔 雄 아니 실탄이 있어야 發砲를 하지않습니까?

○朴泰權委員 그러면 실탄 안보내어주었어요?

○證人 崔 雄 실탄이 다 조선대학교에다 있을때지요 그때...

○朴泰權委員 그러면 조금 전 제 앞에서 委員이 質問할 때 21日 12時 넘어서 1時 반쯤에 道廳 앞에서 集團發砲가 있었다 시인했지요?

○證人 崔 雄 예. 있었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質問하는 과정에서 실탄이 갔었을 것아니예요? 道廳 앞에서 어떤 탄약을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없지 않습니까?

○證人 崔 雄 알겠습니다. 지금 朴委員님 質問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마치 朴委員님께서 旅團長이 알아서 다 실탄을 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데요.

○朴泰權委員 왜 또 지금 證人은 자꾸 비화해서 얘기를 해요? 證人의 휘하장병 大隊長이 했으면 했다 中隊長이 했으면 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언제 제가 證人 보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證人 崔 雄 아니 그러니까요. 그 실탄을 갖게 된 것을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상무관에 있던 31師團 보병 2個 군대 병력이 탄통 두 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천오륙백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몰고오고 APC장갑차가 나오고 그후에 「버스」가 돌진하게 되니까...

○朴泰權委員 그런 상황을 제가 묻지 않았어요.

○證人 崔 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면 이러한 순서대로 나가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또 다른 委員님도 계시고 한니까 들으셔야 되겠지요 어차피 제가 그때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까라는 大隊長 바로 위에 있던 지휘관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예. 하세요.

○證人 崔 雄 大隊長이 그 실탄을 인수를 받아가지고서 그 장교들에게 그것을 10發씩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나누어준 것이 결국 특전부대가 실탄을 갖게 된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 실탄을 가지고 위협사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그 10發이 대대장입니까? 중대장입니까?

○證人 崔 雄 中隊長級들에게 준 것입니다. 支隊長이라고 합니다. 旅團別로 조금 편제가 다릅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 集團發砲는 支隊長들이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 支隊長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사상자가 났다면 그러면 그 支隊長들의 발사에 의해서 사격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戒嚴軍의 생명과 안전에 여러가지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서...

○朴泰權委員 그 문제는 여기서 證人하고 논의하고 싶지 않고 그 상황만...

그래서 그렇게 證人이 보내줬거나 또는 가지고 내려왔던 실탄이 아니고 他部隊것이 들어와서 그런 集團發砲를 했고 그때 사상자가 났다면 거기에 支隊長들이 發砲를 했을 것

이다 그러한 사고가 난 것을 상황을 후에 보고를 받았지요?

○證人 崔 雄 예. 받았습니다.

○朴泰權委員 어떻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大隊長한테 받았습니다.

○朴泰權委員 호칭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러면 道廳 앞에 있던 大隊長한테 받았다 그것을 보고를 받아서 證人은 어떻게 했습니까?

○證人 崔 雄 그래서 市民에게 원래가 이제 ...

○朴泰權委員 아니 그 大隊長에게 보고를 받고 證人은 어디로 보고를 했습니까?

중압감이나 무슨 달리 생각하지 말고 사실 있었던대로...

○證人 崔 雄 戰敎司에다가 보고를 했지요.

○朴泰權委員 戰敎司예요?

○證人 崔 雄 예.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戒嚴軍이 위해를 받고 있고 하니까 自衛權을 취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建議가 됩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니까 戰敎司 누구한테 보고를 했었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戰敎司司令官에게 했지요.

○朴泰權委員 그러니까 司令官이 뭐라고 했습니까?

○證人 崔 雄 司令官이 좀 기다려봐라...

○朴泰權委員 사고가 난 것을 무슨...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사고 난 것은 그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18日 ... 사고가 난 것 같으니까 戰敎司 司令官하고 證人은 發砲關係를 또 상의를 했구만요?

○證人 崔 雄 大隊長이 위험상태가 있고 하니까 隸下部隊 指揮官에게 역시 市民이고 하니까 상당히 그것은 자제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저혼자 결심할 문제도 어렵고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自衛權을 달라고 그렇게 建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저녁때 내려오게 되었지요.

○朴泰權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그런 그 상황을 정말 自衛權 발동이라든지 부대원들이 상당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임분소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런

제임분소장하고 상의를 하기 전에 證人은 證人의 參謀들과 상의를 했지요?

○證人 崔 雄 물론이지요.

○朴泰權委員 물론이지요?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그때 그러면 특전사령부의 作戰 參謀도 입회했었습니까?

○證人 崔 雄 그때는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朴泰權委員 없었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 뒤에...

○證人 崔 雄 그 사람하고 얘기할 건덕지도 업고요. 뭐...

○朴泰權委員 좋습니다. 제임분소장하고 그런 의사타진을 한후에 司令官하고도 그런 상의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대화를 했다고 보고라도...

○證人 崔 雄 司令官하고는 무슨 얘기할 것이 업고요. 戒嚴分所長이 어차피 責任者고 하니까

○朴泰權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司令官한테 報告한 일 업고

○證人 崔 雄 報告한 일 없습니다.

○朴泰權委員 그 뒷날도 안했습니까? 그 뒤에라도 뭐 22日

○證人 崔 雄 그 뒤에 또 얘기할 필요가 업지요. 나오고 난 다음이야 다 알게 되었겠지요.

○朴泰權委員 그러면 發砲되고 死傷者가 나고 한 報告는 내가 아까도 물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發砲關係를 논의했다고 그래서 다시한번 또 묻습니다.

그런 事故가 난 報告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崔 雄 무슨 事故 말씀입니까?

○朴泰權委員 道廳앞에서 集團發砲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그것을 받아서 그것도 조금전에 證言한 대로 그런 報告를 다 했겠지요?

○證人 崔 雄 누구한테 말씀입니까?

○朴泰權委員 分所長한테요.

○證人 崔 雄 分所長한테

정말 제가 「컴퓨터」같은 머리가 아니고 하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하여튼 그런 指揮

系統으로 했겠지요.

○朴泰權委員 그런 계통으로 했다 그런데 그 날 철수가 자꾸 늦어져서 몇時頃에兵力이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까? 午後 17時 그때쯤으로 보아야지요?

○證人 崔 雄 초저녁이 되겠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렇기 때문에 12時에 철수하던 兵力들이 철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12時가 넘어서는 發砲까지 나오고 그리고 그것도 저녁때야 철수하다 보니까 그 당시 光州市內의 民主抗爭에 나섰던 市民하고 엄청난 감정의 폭발을 시킬대로 다 시켜놓고 이제 철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光州民主抗爭의 市民과 學生들에게 3次에 걸쳐서 단계적 과잉 또는 감정을 격화시키고 한 것이라고 보겠는데 證人 어떻습니까?

○證人 崔 雄 글썽요. 委員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現場에 있었던 國軍들이 참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틀림없고 내 평생에도 그런 어려웠던 것은 처음입니다.

○朴泰權委員 이왕 그 문제가 있으니까 11旅團長으로서 證人께서 그 당시 그 휘하의 將兵 大隊長 또는 支隊長 또는 作戰參謀 등이 그 상황 소위 27日 鎭壓作戰까지 끝난 뒤에 휘하의 部隊 將兵들이 희생시킨 市民 良民 學生 중습니다. 몇名으로 보고 계십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市民 다친 것을 말씀이지요?

○朴泰權委員 다른 部隊는 말고 11旅團證人の 휘하 將兵들에 의해서 死亡者가 나면 즉시 어떻게 처리도 했겠고 철수 하다가 假埋葬도 하고 등등해서 여러가지……

○證人 崔 雄 제가 알고 있고 報告를 받아서 알았습니다는 앞서 金泳鎮委員께서 말씀하신 주담에 있어서 死亡한 그 숫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道廳앞에서…… 기억이 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道廳앞의 분수대에 21日 午後 조금 지나서 「버스」한臺가 돌진을 했는데 그때 그 운전사가 死亡한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朴泰權委員 자세히 모르겠고 됐습니다. 27日 그러니까 26日 밤이 넘어서 27日 子正을

기해 가지고 01時를 기해서 鎭壓作戰 하지요. 그렇지요?

○證人 崔 雄 예.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27日 D「데이」를 놓고 혹시 후보계획을 논의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런 것은 없습니다.

○朴泰權委員 전연 없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그러면 21日 외곽으로 철수한 후에 光州市內로 들어오는 어떤 외곽의 일부만 말고 있다가 전연 作戰會議나 參謀會議나 光州地域의 指揮官會議나 이런데 참석한 일도 없고요? 다시 鎭壓을 해야 된다는……

○證人 崔 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대로 하도 오래 되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日 저녁때 이제 朝鮮大學을 뒤로 하고 주담이라는 마을로 다 철수를 합니다. 部隊가 외곽으로 빠지지요. 그러다가 24日 주담에서 부터 20師團에게 인계를 해주고 光州飛行場으로 다 빠집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朴泰權委員 오다가 誤認射擊도 있었고……

○證人 崔 雄 예. 그때 誤認事故 났지요. 워낙 旅團이 피해를 입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때에 26日에 기억납니다. 26日로 기억이 되는데요 戰敎司令官이 作戰會議를 한다 해 가지고서 그 당시 師團長하고 各 兵科學校 校長들하고……

○朴泰權委員 師團長이라고하면 20師團長과 31師團長하고……

○證人 崔 雄 예. 그러니까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란 것 단 사람은 다 온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예. 알겠습니다. 指揮者……

○證人 崔 雄 파란 것 단 사람은 다 왔는데 그것 할때 저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會議가 끝난 다음에……

○朴泰權委員 會議內容도 좀 얘기를 해주지요.

○證人 崔 雄 會議內容의 要旨는 光州市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泰權委員 회복하겠단…… 뭐 진압하겠단 이런 것이 아니고 회복하겠단?

○證人 崔 雄 회복이지요 회복해서...

○委員長代理 吳景義 저 朴泰權委員님 시간이 다 됐읍니다.

○朴泰權委員 이 質問을 끝으로 하겠읍니다.

○證人 崔 雄 公權力이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읍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26日 그 會議 끝난 다음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3個旅團長하고요 20師團長을 남게 나중에 불렀어요.

○朴泰權委員 어디예요?

○證人 崔 雄 司令官室예요. 蘇俊烈將軍이 되겠읍니다.

○朴泰權委員 26日 몇 時쯤 됩니까?

○證人 崔 雄 하여튼 그 會議 다음에 좀 한참 있다가...

○朴泰權委員 그럼 會議는 午前에 있었고...

○證人 崔 雄 午前에 있었고요 다시 부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시간은 잘 모르겠읍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도 保安이 노출되고 자꾸만 저거되니까 당신네들에게만 이것을 내 計劃을 알린다 그래서 아까 會議는 一方的으로 했고 이제 뭐 다른 것 할 것 없지 않느냐 결국 이제 武裝市民이 占有하고 있는 이 목표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旅團長에게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旅團이 제일 큰 목표를 받았지요. 제일 거기에 이제 市民이 많이 모여 있고 폭약도 있고 그런 道廳을 막고 그 다음에 또 가항대가 光州公園이었읍니다.

光州公園에도 많은 市民軍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많이 본 제 旅團이니까 旅團내 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일「빌딩」그다음에 관광「호텔」좀 목표로 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命令이 내려졌고 20師團長에게 주어진 命令을 보니까 特戰部隊가 목표를 확보하게 되면 空輸部隊는 뭐 인상이 나쁘니까 그냥 빨리 引繼해 주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20師團이 이제 그 목표를 引受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部隊로 다시 돌아와서 飛行場으로 돌아와서 그 計劃대로 실천한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吳景義 證人! 간단히 答辯해 주세요.

○證人 崔 雄 예. 준비를 합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 26日에 준비를 다한 것입니까?

○證人 崔 雄 26日 목표상황에 따라서 이제 소위 特攻部隊 진입하는 部隊規模가 決定이 되지요.

○朴泰權委員 아 그렇습니까?

○證人 崔 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旅團은 모르겠고요 제 旅團은 워낙 목표가 조그맣고 하니까 約 30名정도 1個小隊兵力...

○朴泰權委員 特殊要員만 뽑아가지고요? 그러면 그 당시 飛行場에 있었는데 格納庫에 臨時狀況室이 있었지요?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거기에 蘇俊烈 그당시 分所長이 곁으로 찾아온 일도 있습니까?

○證人 崔 雄 맞습니다. 그 후 저녁 때 한번 왔읍니다.

○朴泰權委員 저녁 때 한번... 그러니까 26日 저녁 때 한번 밖에 안 왔다... 그리고서 드디어 그날밤 D데이작전에 의해서 任務遂行했다...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證人 崔 雄 뭐 심정 뭐...

○朴泰權委員 즐겁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렇게 光州에 18일부터 움직여 가지고 27일까지 鎮壓作戰까지 끝나고 28일에 올라오지요?

○證人 崔 雄 28일에 올라갑니다.

○朴泰權委員 그렇게 끝난 입장의 심정이 어떠냐 이것이에요 지금 왔을 때...

○委員長代理 吳景義 朴泰權委員님...

○朴泰權委員 예. 이것이 끝입니다.

○證人 崔 雄 정말 참 너무나 어려웠던 일이었읍니다. 그 애초 저희가 내려갈 때부터 光州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내려 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동안 19일부터 20일까지...

○委員長代理 吳景義 證人! 간단히 答辯을 한마디로 줄여 주세요.

○證人 崔 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朴泰權委員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證人 崔 雄 예.

○朴泰權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景蕸 앞으로 訊問하실 委員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泰權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新民主共和黨의 金文元委員長님 訊問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4分입니다.

○金文元委員 新民主共和黨의 金文元입니다.

崔 雄證人! 證人の 主要經歷을 볼 것같은데 光州抗爭事態 당시에는 11空輸旅團長이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金文元委員 30師團長 지내셨지요?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空輸特戰司令官 지내셨지요?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特命檢閱團長 지내셨지요?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合參本部長 지내셨지요?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陸軍中將 豫編하시고 지금은 「파키스탄」大使로 계시지요?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特命檢閱團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證人 崔 雄 軍特命檢閱團長이라는 것 國防長官을 補佐하는 參謀兼 指揮官이 되겠습니다.

○金文元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崔 雄 軍全般에 걸친 檢閱 특히 그...

○金文元委員 무슨 檢閱입니까? 구체적으로...

○證人 崔 雄 長官이 지시하는 내용에대한 檢閱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戰鬪準備態勢... 戰鬪準備態勢를 檢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소위 軍의 現代化計劃에 따른 豫算을 많이 執行합니다. 國民의 稅金으로 많은 豫算을 씁니다마는 이러한 豫算이 有効적절하게 效果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監

査機能을 또 갖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豫備軍 動員問題...

○金文元委員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11空輸旅團이 5月18日 4時頃에 光州를 출발을 했다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4時頃...

○證人 崔 雄 예. 5月18日 4時...

○金文元委員 세時쯤 해서 鄭鎬溶少將을 만났고...

○證人 崔 雄 세時에 받았고... 鄭鎬溶將軍을 4時半쯤 만난것같고...

○金文元委員 한시간후쯤... 國防部에 제출한 戒嚴狀況日誌에 의하면 정확하게 시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5月18日 16時30分に 旅團本部가 C23機 輸送機로 光州에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정확한 시간은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정확한 것입니다.

○證人 崔 雄 저도 뭐 한 8年前 얘기가 되고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文元委員 그리고 隸下 3個 大隊는 5月18日 18時에 淸涼里에서 列車便으로 출발합니다.

○證人 崔 雄 저희 旅團이 3個 大隊이고요 5月18日 떠난것은 1個 大隊하고 旅團長이 떠났고 나머지 2個 大隊하고 기타 旅團本部의 輜重 이런 것들이 그 날 저녁 列車便으로 떠났습니다.

○金文元委員 隸下大隊가 淸涼里에서 列車便으로 떠났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金文元委員 그 도착한 시간이 19日 새벽 4時지요? 到着完了한 것이...

○證人 崔 雄 예. 새벽 3時 서너 時정도 되겠습니다.

○金文元委員 4時로 지금 資料에 나와 있습니다.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證人 崔 雄 朝鮮大學校가 되겠습니다.

○金文元委員 그러니까 이제 指揮部하고 포함해 가지고 3個 大隊가 光州에 들어간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주 물어 보겠는데 이런 空輸旅團이

움직일 때는 軍作戰上 상당한 論議와 熟議와 그리고 또한 決定의 과정을 거쳐야지요?

○證人 崔 雄 글세... 모르겠습니다. 上部에서...

○金文元委員 상식적으로 軍에 오랜 經歷으로 따져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決定인데... 더군다나 당시 光州抗爭이라는 鎮壓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軍隊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 國防部長官까지도 承認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證人 崔 雄 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매우 중요하다 하게 되면 熟議가 필요하겠지요.

○金文元委員 예. 熟議가 필요하지요?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18日 16時30분에 움직였지요? 11空輸旅團이...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날 鄭鎬溶少將이 東國大에 있는 證人을 찾아 가서 세 時에 出動하라는 命令을 했다고 그랬지요? 命令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證人 崔 雄 그 양반이 出動命令한 것은 없구요.....

○金文元委員 글세 여하튼 움직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證人 崔 雄 움직이라는 命令은 제가.....

○金文元委員 命令받은 것이지요?

○證人 崔 雄 命令은 틀림없이 받았습시다마는 鄭鎬溶씨한테 받은 것은 없구요.

○金文元委員 글세 거기까지 가서 鄭少將이 얘기할 때는 벌써 이것은 命令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崔 雄 그러지는 않구요.

○金文元委員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상합니다.

뭐냐하면은 벌써 그 훗날 애깁니다. 19日 이후 애깁니다. 鄭鎬溶少將이 光州에 내려가서 申佑植准將한테 우선 光州事態의 상황을 브리핑을 받고 18日이후의 애깁니다.

○證人 崔 雄 알겠습니다.

○金文元委員 받고 곧 바로 戰鬪兵科教育司令官인 그 당시 尹興植將軍이지요. 그리고 副

司令官 김기섭將軍이지요.

만나가지고 對策을 論議했어요. 여기서 鄭少將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戒嚴軍의 확고한 決議를 보임으로써 초기에 群衆의 心理를 鎮壓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證人 崔 雄 鄭鎬溶少將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金文元委員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것이 19日입니다. 그러니까 部隊가 움직인 후의 얘기입니다. 지금 잘 들어 보세요.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저희 旅團이 옮기고 난 다음에.....

○金文元委員 예. 예. 옮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서울에 올라왔어요.

○證人 崔 雄 鄭鎬溶씨가 5月 19일에 왔다는 것입니까?

○金文元委員 예. 그러니까 옮기고 난 다음에 19日.....

○證人 崔 雄 11旅團이 光州에 옮기고 난 다음에.....

○金文元委員 옮기고 난 다음에 光州에 내려갔습니다.

○證人 崔 雄 光州에 내려갔습니까?

○金文元委員 예. 내려갔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日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다시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와서 周永福 國防長官하고 李煥性戒嚴司令官하고 그 다음에 全斗煥保安司令官하고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事態가 이렇게 참 어려우니 3旅團하고 11旅團하고 움직여야 되겠다는 얘기를 鄭少將 위의 사람이 했습니다.

여기서 全斗煥將軍이 20師團도 같이 投入을 해라 그래가지고 11旅團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第11旅團은 鄭將軍 個人的인 指示로 이미 光州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8日 주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日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證人 崔 雄 제가 내려간 것은 저자신 내려간 것은 18日 저녁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本隊가 다 合流된 것은 19日 새벽 3時 朝鮮大學에 집결이 됩니다.

○金文元委員 그래서 이미 여기서 결정될 문제를 이미 벌써 먼저 결정해 가지고 그날 18일 결정되기 전에 이미 證人을 만나서 5月18日 4時30分에 證人部隊가 光州로 向發한 것입니다.

○證人 崔 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까?

○金文元委員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만일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

○證人 崔 雄 글세 전

○金文元委員 처음 듣는 사항입니까?

○證人 崔 雄 오늘 처음 듣습니다.

○金文元委員 조금 있다가 日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出動命令을 받고 나서 隸下 指揮官에게 作戰命令을 下達했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겠지요?

○證人 崔 雄 命令이 내려지게 되면 이동준비를 移動豫備命令이 내려가겠습니다.

○金文元委員 出動命令을 指示하면서 鎮壓方法에 대한 指示도 하셨지요? 그 指示內容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證人 崔 雄 鎮壓方法이 아니라 서울이나 모든 全國이 다 조용한데 지금 光州만이 7旅團이 내려간 光州만이 任務遂行을 못하고 光州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하여튼 내려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金文元委員 조심해야 되겠다.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示威群衆과 당연히 나가면 軍이 나가면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시고 말씀을 하실텐데 어떤 방법으로 만일에 鎮壓한다든지 解散시킨다든지 얘기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證人 崔 雄 저희 大隊長들에게 지침을 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光州市民을 자극하지 않도록 ...

○金文元委員 자극하지 않도록

○證人 崔 雄 매우 조심해야 되겠다.

○金文元委員 조심해야 되겠다.

○證人 崔 雄 예. 조심해야 되겠다.

○金文元委員 그런데 그 이후에 사태가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空輸部隊의 진압양상을 報告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光州로 내려가서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저희 部隊도 苦戰을 면치 못했는데요.

○金文元委員 진압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를 못들으셨습니까?

○證人 崔 雄 저희는 任務 騷擾鎮壓을 하라하는 그러한 上部命令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光州市民이 봤을 때는 戒嚴軍이 매우 무슨 심하게 다룬 것으로 저는 이렇게도 들었습니다.

○金文元委員 空輸部隊가 특히 진압한 양상이 어땠나 하면 몇個組씩 組를 잡니다. 組를 짜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대열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진압봉을 휘두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대열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움직이는 軍隊 특히 말이지요. 가장 精銳化된 空輸部隊의 組織體系上 指揮者나 또는 指揮官의 명령없이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證人 崔 雄 그렇지만 말씀이지요.

○金文元委員 진압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 大隊長이나 아니면 旅團長 내 말씀 들으세요. 또는 特戰司令官이 그런 식으로 진압을 하라는 지침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반증을 해보세요.

○證人 崔 雄 委員님께서 그 문제는 의심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하들에게 그러한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용납을 하지 않고 또 교육한 바도 없구요. 그러나 임무를 받은 것은 불립했고 그 임무를 수행하자니 또 거기에 대해서 과격 흥분된 市民들이 돌을 던지고 또 物理적으로 몸당게 되니까 또 엄격히 따지게 되면 그러한 행동을 취한 사람은 체포를 하라 하는 또 이러한 임무도 있었습니다.

○金文元委員 진압이 한 방법으로써 이런 것도 示達 얘기를 방법으로써

○證人 崔 雄 그러다가 보니까 체포 안 되려고 하고 또 체포하고자 하고 이렇게 달려 들고 하나까 또 선량한 시민들이 볼 때는 戒嚴軍이 매우 참 못쓰게 못되게 하는 것으로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무는 분명히 소요를 진압하고 또 布告令을 위반한 이러한 사람들 체포하라 하는 것이 그때의 上部의 명이었읍니다.

또 布告令에 그렇게 나와 있었구요.

○金文元委員 그럼 이러한 지침은 전혀 내린 바가 없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群衆을 해산하고 群衆을 탄압하고 한 방법은 자기들 스스로가 自發적으로 생각해 내서

○證人 崔 雄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명령을 내릴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大韓民國의 國民의 한 사람인데요. 제가 또 보호를 해야 할

○金文元委員 그러면 이러한 報告를 못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群衆을 해산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들었을 때 이것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이라도 하셔야지 이러한 報告를 못 들었다면 또 이것은 더 우스운 얘기가 되는 것이고

○證人 崔 雄 아닙니다. 그때의 과격한 시위를 한 그러한 시민들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어 가지고 朝鮮大學에 온 것도 제가 목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다치고 流血이 狼藉을 실지로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大隊長에게 강력하게 또 再指示를 했지요. 하지 말라고

○金文元委員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알았습니다.

光州로 出動할 때 장비를 어떤 장비를 휴대시켰습니까?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證人 崔 雄 장비는 우선 個人的 基本裝備이 있겠습니다.

○金文元委員 예. 그러면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마는 장비휴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崔 雄 기준이 있습니다.

○金文元委員 戰鬪時의 携帶基準이 있겠고 그렇지요?

○證人 崔 雄 戰鬪時에 있지요.

○金文元委員 아니면 「테모」를 진압한다든가 조그마한 어떤 폭동을 진압할 때 携帶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어떤 기준 어떤 장비를 갖다가 이러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장비를 휴대를 시키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證人 崔 雄 그러니까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측면에서 장비의 휴대가 됩니다. 忠正作戰 임무수행을 위한 장비가 되겠지요. 기본이 또 그것이 기본이었구요.

○金文元委員 무슨 장비입니까? 그 장비가

○證人 崔 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金文元委員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證人 崔 雄 鎗壓棒 그 다음에 火焰放射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火焰放射器도 가지고 갔읍니다. 火焰放射器는 이제 물을 감을 넣어서 또 쏘고 催淚彈을 「가스」를 넣어서 쏘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것이지요. 그 다음에 宣撫活動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좀

○金文元委員 彈藥도 지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個人當 60發씩

○證人 崔 雄 그것은 警備用 實彈을 가지고 갔었고

○金文元委員 그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證人 崔 雄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部隊警戒을 위해서 쓰는 50機關銃이라든가 그 다음에 警備用 實彈 個人當 60發씩 이런 것을 가지고 내려 갔읍니다.

○金文元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鎗壓棒은 어디서 지급을 받았습니까? 우선 받을 때는 上級部隊입니까? 아니면 自隊에서 제작을 합니까?

○證人 崔 雄 鎗壓棒은 제 주둔하고 있던데가 江原道 華川입니다. 거기서 山岳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

○金文元委員 박달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證人 崔 雄 박달나무하고 참나무하고...

○金文元委員 7空機部隊는 그 당시에 소나무로 만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요?

○證人 崔 雄 7空機는 모르겠습니다.

○金文元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박달나무로 이 딱딱한 나무입니다. 이것을 지급하면서 鎮壓棒使用要領에 대한 敎育을 실시했습니까? 이 위험한 무기입니다. 敎育實施했지요?

○證人 崔 雄 물론 실시되지요.

○金文元委員 실시했습니까?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사람 머리 갈기라고 敎育시키지는 않았지요?

○證人 崔 雄 물론이지요. 원래 騷擾鎮壓할 때 隊形이라는 것은 根本的으로 敎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마는 뭐 이렇게 부딪치고 때리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武力示威에서 騷擾意志를 꺾고 그 다음에 車輛이 아닌 다음에는 隊形을 갖춰갔고 그 다음에 鎮壓棒 들고 아니면 앞에 銃을 하고서 뭐 발을 뚫고 구르면서 그래갔고서 示威群衆에게 騷擾意志를 꺾어주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金文元委員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얼마전에 鄭鎭溶特戰司令官이 鎮壓棒使用問題에 대해서 어느 委員이 물어보니까 뭐 몽둥이 쓰는데도 무슨 재주가 있어야 되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鎮壓棒을 주면서 特戰司令部에서 이러한 敎育을 실시하지 않아서 光州에서 이런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示威隊의 머리를 우선 가격했던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흐르고 말이지요. 學生들이...

○證人 崔 雄 委員님! 그런데요. 鎮壓棒이 아닌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M16小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M16小銃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마는 이것은 「프라스틱」으로 몸통이 되어 있어요. 전에 M1小銃같은 것은 길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M16小銃은 사실 허약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銃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쓰게되면 파파가 되고 이런 염려가 있고 하니까 警察官이 소

위 警察棒이라고 갖고 다니는 뭐 그때 戒嚴軍 내려간 것이 警察任務遂行이지 警察이 못하는 任務를 대신해서 나간것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그러한 警察棒概念으로 보시면은 틀림 없겠습니다.

○金文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鎮壓棒 사용을 하는데 事前敎育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金文元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示威群衆을 단순히 해산시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鎮壓棒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머리카락이나 막 강타를 해가지고 피를 내게 하고 치명타를 가하고 이런 과격한 행위를 갖다가 많이들 했는데 말이지요. 몽둥이로 사람을 난타하고 했는데...

○證人 崔 雄 戒嚴軍이 또 돌을 맞고 또...

○金文元委員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死亡者中 그 당시에 말이지요 32名가운데 타박상하고 頭部가 깨져서 죽은 분이 몇 名인지 아십니까? 20名이에요. 타박상이 나머지 자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그 아까 말씀한 딱딱한 박달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후려갈겨서 전부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指揮官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간단히 애길 하십시오.

○證人 崔 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이 또 제 部下가 그런 것을 했다 하면 道義的인 책임은 저에게 있겠습니다. 또 部下가 그런 敎育을 旅團長이나 또 旅團長이 뭐 직접 敎育하겠습니까? 뭐 大隊長이나 그 밑에 中隊長이나 이런 階級 낮은 사람이 시키는데요. 또 그 部下들이 그 敎育을 받은 것을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돌이 날아오고 또 任務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그러한 事故가 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또 됩니다.

○金文元委員 예. 지금은 道義的인 책임을 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金文元委員 作戰指揮體制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 제출된 資料에 의하면 11空輸는 首警司의 作戰統制下에서 해체되어 가지고 5月19日 새벽 4時附로 2軍作戰統制下에 騷擾事態를 鎮壓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證人 崔 雄 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金文元委員 그 절차는 맞는 것이지요?

○證人 崔 雄 절차는 맞습니다.

○金文元委員 그 당시 31師團과 어떤 指揮關係가 있었습니까? 그 指揮關係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證人 崔 雄 제가 받은 指揮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마는 31師團 作戰統制下에 肅正작전 任務遂行이 되겠습니다.

○金文元委員 그렇습니까? 이 配屬이라는 말 씀이시죠?

○證人 崔 雄 예. 配屬이란 말이 있습니다.

○金文元委員 配屬 여기 나오는 ... 配屬하고 作戰統制問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敎範에 나오는 것 같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

○金文元委員 말씀하세요.

○證人 崔 雄 概念만 얘기 하겠습니다.

○金文元委員 다음 質問있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

○證人 崔 雄 예. 이 作戰統制라고 하게 되면은 그 作戰에 관한 事項만 예를 들어서 11旅團이 31師團長에게 갔을 때는 31師團長이 作戰에 관한 事項만을 전 指揮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行政關係 이런 것은 이제 그 분이 31師團이 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配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

○金文元委員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部隊가 다른 어떤 部隊에 配屬 또는 作戰統制를 받게 되면 말이죠. 原所屬上級指揮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作戰期間동안 指揮關係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소멸은 안돼요?

○證人 崔 雄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金文元委員 소멸은 안돼요?

○證人 崔 雄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좀 다그쳐 물으시면 저도 이제 「파키스탄」에서 온지가 사흘이 됩니다.

○金文元委員 예. 말씀하세요.

○證人 崔 雄 이런 것을 벌이고 하려니까 저도 좀 기억을 더듬어야 되겠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作戰統制는 저희 경우는 31師團에 받는데요. 나머지 行政支援같은 경우는 本隊의 支援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 鄭鎬溶將軍도 저한테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金文元委員 바로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質問을 드린 것입니다. 그 指揮關係는 계속 유지돼요? 유지되고 作戰指揮權만 ...

○證人 崔 雄 道義的인 책임이 있죠

○金文元委員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십니까?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原所屬上級指揮官에게 狀況報告나 指揮報告는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기로 돼있습니까?

○證人 崔 雄 原所屬指揮官에게 狀況報告를 일일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역시 行政支援를 받고 이럴려면은 예를 들어서 제 部下가 죽었다 또 무슨 특별한 무슨 가스탄이 떨어졌다. 特戰食糧이 떨어졌다 이런 그 作戰統制를 하는 部隊가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그 支援이 필요할 때는 原所屬 部隊에게 알려주는데 또 그러한 事項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려줌으로 해서 그 所屬部隊指揮官이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支援를 보다 더 效率的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文元委員 알겠습니다.

5月19日 당시 그 11空輸는 旅團本部하고 말이죠. 61 62 63大隊에 約 1,200名 兵力이 光州에 있었고 그것은 맞습니까? 3個大隊는 31師團 鄭 雄將軍의 指揮下에 鎮壓作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맞죠?

○證人 崔 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金文元委員 중요한 얘기는 3個大隊는 말이죠 31師團에 대한 ...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어느 旅團의 3個大

隊입니까?

○金文元委員 旅團本部하고 61, 62, 63大隊
...

○證人 崔 雄 예. 그것 저희 旅團입니다.

○金文元委員 그렇죠? 이 3個大隊가 光州에
있었는데 이 3個大隊가 31師團長인 鄭 雄將
軍의 指揮下에서 鎮壓作戰을 했다는 것이 맞
는 얘기죠?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金文元委員 예. 당시 旅團長이시죠?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旅團長이하 3個大隊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證人 崔 雄 저는 師團長의 소위 그 作戰
命令을 받고...

○金文元委員 作戰狀況을 具體的으로 報告를
받으셨습니까? 그때그때.

○證人 崔 雄 어느 누구한테 말입니까?

○金文元委員 隷下部隊에서...

○證人 崔 雄 隷下部隊로 부터...

○金文元委員 隷下3個大隊로 부터...

○證人 崔 雄 隷下3個大隊로 부터 報告는
旅團에도 이제 소위 TOC라는 것이 있습
니다.

指揮網이 旅團長이 指揮網을 몇개씩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旅團에 보편은 소위
指揮部라는 것이 TOC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戰術作戰統制本部라 하는 이런 이제
TOC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무전기를 다
갖다 놓습니다. 무전기하고 그 다음에 워
전화 민간전화 뭐 다 朝鮮大學이니가 민간전
화도 있죠. 그러한데 있으면은 각 隷下部隊
에서 이제 그런 事項이 올라옵니다.

(吳景義幹事, 文東煥委員長과 司會交代)

올라오면은 TOC長은 누군가 하니 參謀長
이 되겠습니다. 戰術作戰本部가 되겠는데요
參謀長이 올라온 것을 종합해 가지고...

○金文元委員 결심할 것은 결심하고...

○證人 崔 雄 旅團長에게 필요사항은 報告하
고...

○金文元委員 또 上級司令官에게 報告할 것은
報告하고...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金文元委員 그래서 措置를 받아서 空輸部隊
運營에 관한 조언도 해주고...

○證人 崔 雄 물론이지요. 그렇게 되겠습
니다.

○金文元委員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현지에 指揮部가 가있는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鎮壓作戰時 11空輸部
隊가 피해가 많았어요. 그렇지요?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措
置를 했습니까?

서로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그당시 空輸隊
員들이 상당히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措置事項이 있었습니까?

○證人 崔 雄 19日까지는 부상자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조선대학교까지 후송이 되었습
니다. 저희 旅團에도 醫務隊가 있으니까요.
간단한 환자는 저희가 치료하고 중환자는 光
州統合病院에 후송이 되는데 20日 부터는 特
戰部隊가 전부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되어
가지고 환자 후송을 하나도 못 해주었습
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 부상당한 사람들도
결국 市民과 같이 市內 病院에 같이 들어가
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金文元委員 알겠습니다. 얼마나 指揮에 투
철했나 하는 것을 하나 여쭙어 보겠는데 5
月21日 오후 全南道廳 앞에서 市民들이 장갑
차 하고 「버스」를 앞세우고 돌진하는 事態가
벌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거기서 11空輸 士兵 1名이 팔
려서 죽었습니다.

○證人 崔 雄 報告를 받아서 알고 있습
니다.

○金文元委員 報告받았습니까? 士兵 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證人 崔 雄 姓이 권씨라고 알고 있습
니다.

○金文元委員 권용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報告를 받았지요?

○證人 崔 雄 예. 그것이 저희 旅團의 최
초의 死亡者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報
告를 받았고 姓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
니다.

○金文元委員 그러면 5月 23日 야간 효촌역
부근 사건도 아시지요? 야산에서 벌어진 것
... 戰敎司步兵學校... 誤認射擊입니다. 장갑차

를 타고 가던 證人...

○證人 崔 雄 아. 그것은 5月24일이 되겠지요.

○金文元委員 알고 계시지요?

○證人 崔 雄 알고 있습니다.

○金文元委員 예. 63大隊長 중상을 입었지요?

○證人 崔 雄 예.

○金文元委員 그 중상을 입은 차종완대위가 거기서...

○證人 崔 雄 차종완대위가 거기서 사망을 했지요.

○金文元委員 죽사했고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 사실 모두 알고 있지요.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處罰과 이런것도 뭐따라야 되는데...

○證人 崔 雄 그 狀況報告를 받고 제가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타고갔던 헬리콥터에다 우선 실어서 보내고 그 후 계속해서 헬기가 날라와서 환자를 후송을 했습니다.

○金文元委員 特戰司令官에게 報告를 했지요? 報告하고 指示도 받고 兵力補充도 받았지요?

○證人 崔 雄 特戰司令官도 그때 현장에 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金文元委員 特戰司令官에게 報告를 했지요?

○證人 崔 雄 물론이지요.

○金文元委員 예. 그 당시 特戰司令官은 그 당시에 뭐 指揮權도 없고 해서 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 反證대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는 特戰司令官에게 항상 報告를 했지요?

○證人 崔 雄 그 말씀하시는게 좀 이상한데요. 제 부하... 特戰司에 이 旅團에 또 直屬上官은 또 鄭鎬溶將軍입니다.

그러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金文元委員 이상한게 하나 없습니다.

○證人 崔 雄 行政... 行政支援을 해 주는 또 司令官이 되겠습니다. 또 鄭鎬溶將軍이 그 자리에 안 와 있었더라면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또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같이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다는 것을...

○金文元委員 물론 거기서도 兵力補充을 받았

겠지요?

○證人 崔 雄 兵力補充은 없었습니다.

○金文元委員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희생된 것은 후송하고...

○金文元委員 거기에 뭐 次上級者에 대한 무슨 저 징벌이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證人 崔 雄 무슨 賞罰 말씀입니까?

○金文元委員 예. 무슨 징벌이나 이런 것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誤認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무전교신이다 여러가지 그 잘못된 상황에서 일어났는데 그 책임소재를 규명해 보셨습니까?

○證人 崔 雄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步兵學校 教導隊 大隊長이 저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오군中領인데 나중에 제가 師團長을 하고 있었던 30師團의 師團에 大隊長으로 이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軍服을 입고 있는 후배장교고 하니까 알게 됐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 大隊長의 오인에 의한 큰 사고이기 때문에 처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그 光州의 문제라는 것이 어느 個人이 잘 하고 못 하고 指揮官이 잘하고 못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나라의 소용돌이 속에서 본의 아니게 난 사고입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된다는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步兵學校 校長인 오 鎭將軍하고 그 다음에 蘇俊烈將軍한테 강력하게 진의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罪가 있었습니까? 이제 다 어려운 이런 때에 난저니 제발 좀 처벌해 주지 말아 주십사 하고 제가 그러고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1年半인가 2年後에 보니까 바로 제 隣接師團 大隊長으로 나왔더군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위로도 하던 이런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金文元委員 시간이 없어서 많은 것을 물어 봐야 되었는데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蘇俊烈將軍이 최초의 집단발포가 5月 21日 13時頃 全南道廳앞에서 이루어졌다고 證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證人 崔 雄 이런 말씀을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일부터 ... 20일은 굉장히 임무수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 20日 오후부터 特戰兵力들이 5個大隊가 道廳 錦南路앞에서 시위군중과 대치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앞서도 金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까마는 10時半頃이 되겠습니다. 道知事하고 그 다음에 示威群衆代表하고 戒嚴軍撤收에 관한 협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道知事의 약속이 戒嚴軍을 12時까지는 철수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放送이 됐고요 헬리콥터로 ...

그런데 12時가 넘도록 戒嚴軍은 가만히 있고 하니까 뭐 군중들이야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니까 가쪽이나 미운데 저기 있고 하니까 뭐 슬렁이고 이러겠지요. 제가 報告를 받은 바에 의하면 ...

○金文元委員 報告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報告가 맞습니까?

○證人 崔 雄 예. 맞습니다.

○金文元委員 맞습니까? 그러면 ...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大隊長들의 報告를 그대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文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道廳앞 진압작전을 한 部隊가 11空輸部隊하고 7空輸部隊지요?

○證人 崔 雄 제가 여기 要圖를 가지고 왔는데 要圖를 가지고 조금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金文元委員 여하튼간에 가져오셨다니 ...

○證人 崔 雄 허락해 주신다면 要圖를 가지고 ...

○金文元委員 그래서 그때 旅團長은 뭐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굉장히 긴박한 상황 ...

○金文元委員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가져오셨다니 ...

○證人 崔 雄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

○金文元委員 證人 여하튼 11空輸部隊와 발포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려

그런니까 됩니까? 그 資料가 ...

○證人 崔 雄 그 쪽 지나간 상황을 갖다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要圖를 가지고 말씀 ...

○金文元委員 그 資料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委員들께서 質疑를 하실테니까 시간이 여가 앞당겨서 ... 많은 委員들의 質疑가 나올 것입니다.

○證人 崔 雄 제가 자진해서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金文元委員 그때 좋은 기회에 한번 발표를 해주시구요 ...

○證人 崔 雄 시간이 굉장히 절릴 것 같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

○金文元委員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旅團長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證人 崔 雄 旅團長이 報告를 ... 그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報告를 들은 것입니다.

○金文元委員 空輸部隊員중에 11空輸部隊員중에 발포를 했다는 報告를 받으셨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끝나고 朝鮮大學으로부터 철수하고 난 다음에 光州에서부터 光州外廓으로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받았읍니다.

○金文元委員 이 문제를 제가 집요하게 물어 보느냐 하면 이 문제는 光州特委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됩니다.

첫발포 ...

○證人 崔 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元委員 그리고 발포를 누가 명령했느냐 하는 문제 ... 그래서 ...

○證人 崔 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발포명령한 사람 확실히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에 그 긴박한 상황속에서 이것을 ... 시위군중이 이렇게 물려올 때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거꾸로 戒嚴軍이 다 깔려죽습니다. 하니까 그 部隊指揮하는 大隊長이나 將校의 입장에서 볼 때는 ...

○金文元委員 그러면 證人께서는 5月21日 13時頃 全南道廳에서 이루어졌던 발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갈다가 지금 반증하시려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 부하가 잘못 되어서 發砲命令을 제 멋대로 한다가 뭐해서 法的으로 문

제가 있다하게 되면 저는 얼마든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제 부하가 밤을 다섯끼씩 굶어 가면서 그 現場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또 흥분한 군중들 뿐만 아니라 주변 옥상에서도 총을 쏩니다. 威嚇射撃을 加합니다. 그러면 총을 쏜 것은 분명히 示威群衆이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戒嚴軍은 實彈을 안 갖고 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金文元委員 그 당시에 어쨌든간에 戒嚴軍에 의해서 發砲가 되었으면 그 문제를 책임진 분으로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 데 조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證人 崔 雄 잘못 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를 處罰해 주시고요...

○金文元委員 그리고 이 發砲問題는 앞으로도 규명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證人 崔 雄 저는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자세는 추호도 없습니다.

○金文元委員 時間이 다 되어서 더 이상 質疑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첫 發砲가 났을 때 이것을 철저히 조사 못한 책임을 證人이 지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民主黨의 李敏燮委員 35分할당되었습니다.

○李敏燮委員 民主正義黨의 李敏燮委員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리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調査活動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8年前的의 기억인만큼 다소 부정확한 것도 있고 또 기억이 안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證言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답을 해주시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진실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證人께서는 34年間 軍에 몸바쳐서 이 나라 國土防衛에 전념하신 그러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도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니다마는 또 최근에 大使로서 우리의 國威宣揚과 國益增進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면에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평가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지나간 불행했던 과거를 清算하고 歷史를 再照明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엄숙하고 정말로 어떠한 자기의 모든 것을 평가받는 자리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진지하게 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최근 外交官活動을 하셔서 그런지 자주 웃으면서 答辯하고 하는데 웃으시면서 證言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했던 歷史를 清算하는 그러한 現場이고 調査하는 자리인만큼 진지하게 訊問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同僚委員들이 많은 부문을 質問을 했습니다. 그래서 重複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光州에 도착하신 것이 며칠 몇時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證人 崔 雄 旅團長과 그 다음에 61大隊가 내려간 것은 5月18日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本隊가 다 해서 내려온 것은 그 다음날 19日 새벽 3時가 되겠습니다.

○李敏燮委員 새벽 3時에 朝鮮大學에 도착해서 그 당시 駐屯地라할까 거기에 이미 천막 같은 것이 쳐져 있었습니까?

○證人 崔 雄 천막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李敏燮委員 새벽에 식사제공같은 것도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식사제공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敏燮委員 그것이 31師團으로부터 그러한 준비가 되었었고 또 거기서 완전히 配屬이 시작된 時點이 됩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저희 旅團이 내려간다 하는 것은 戰敎司라든가 師團에도 충분히 통보된...

○李敏燮委員 연락을 해서 31師團에서 나와 준비를 했군요?

○證人 崔 雄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李敏燮委員 本委員이 조사한 바로는 31師團이 이미 나와서 천막 12동하고 또 식사까지도 다 준비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내려갔던 部隊의 出身地域의 構成比率

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를들면 將校면 將校중에 몇 %가 어느 地域出身이고 또...

○證人 崔 雄 저는 軍에 들어가서부터 정말 그런데 내려갈 때까지도 그런 人員의 出身別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李敏雙委員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證人 崔 雄 그러니까 平均的으로 大韓民國의 各 地域別 分布比率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敏雙委員 아까 내려가기전에 忠正訓練이란 示威鎮壓訓練에 관해서는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本委員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全國의 어느 地域에 騷擾가 있을 때 空輸部隊 將兵이 實質的으로 示威鎮壓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鎮壓棒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銃劍같은 것은 평소 훈련할 때 示威鎮壓訓練할 때 사용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證人 崔 雄 앞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옛날에 M-1小銃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나루고 하니까 파피가 덜됩니다마는 M-16은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위 作戰을 하다가 망가지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警察官들이 갖고 다니는 警察棒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것이 크고... 말하자면 銃器 대신에 鎮壓棒을 사용한 것입니다.

○李敏雙委員 眞壓棒의 구조를 묻는 것이 아니고 實質的으로 아까 얘기하신대로 示威를 진압하는데 있어서 示威群衆과 충돌을 해서 어떤 武力行使 내지는 物理的 行使를 하는 것보다는 위력으로써 또 示威群衆들로 하여금 겁을 먹는다든가 의지를 약화시켜서 스스로 물러가서 騷擾가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訓練의 基本的인 방향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證人 崔 雄 예. 그렇습니다.

○李敏雙委員 투입될 당시에 어떠한 任務를 부여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5月19日以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서울에...

○李敏雙委員 光州에 도착하기전에 그러니까 내려갈 때 陸軍本部로부터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光州에 내려가서 31師團의 作戰統制를 받아라 하면서 어떤 그 地域에서의 활동임무 같은 것은 부여받지 않고 그냥 내려 갔습니까?

○證人 崔 雄 그냥 光州에 내려가서 忠正作戰을 수행하라 하는 單純命令입니다.

○李敏雙委員 忠正作戰이란 것은 당시의 示威를 갖다가 騷擾물...

○證人 崔 雄 騷擾鎮壓을 하라...

○李敏雙委員 진정시키고 그 地域의 주요 목표물을 보호하고 이런...

○證人 崔 雄 질서를 회복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李敏雙委員 내려가셔서 제일 처음 作戰統制를 받게 된 31師團에 가서 그 師團長 당시 鄭 雄師團長을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證人 崔 雄 19日... 本隊가 다 내려온 것이 그날 19日 새벽 세時가 되겠구요 그날 아침...

○李敏雙委員 아침에 만났다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證人 崔 雄 아침에 만났읍니다.

○李敏雙委員 午後에는 만나신 적이 없습니까?

○證人 崔 雄 그날 午後에 師團에서 作戰會議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의 騷擾鎮壓作戰을 한 평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午後에 師團의 召集이 있어서 師團에 갔읍니다.

○李敏雙委員 그 당시에 師團長의 指示 소위 騷擾鎮壓要領이라고 할까 이런 指示가 있었을 텐데 그 內容은 어땠습니까?

○證人 崔 雄 제가 5月19日 아침에 師團長을 뵈을 때는 鄭 雄師團長은 저에게 그날 새벽 3時에 作戰參謀를 통해서 주었던 이 光州市內에 이렇게 쪽 놓고 볼 때에 이러한 要所 要所... 支署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런데에 兵力을 配置해서 示威群衆이 道廳이나 綿南路 여기 光州는 群衆들이 주로 넓은 데로 나가는 이런 市民들이 나가는 경향이 있으니 示威群衆들이 큰 길... 綿南路나 道廳에 나가지 않게끔 길목을 막아라 하는 것이 그 당시 鄭 雄師團長의 命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各個擊破가 되고 孤立이 되고 部隊運營이 안되기 때문에 그날 저녁때에 作戰會議席上에서 제가 師團長에게... 이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원래가 그렇게 바둑판식으로 나누어서 運營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師團長이 그 地域에 대해서 그 분이 더 잘 아시고 또 저 보다는 上級者이고 또 모든 軍事知識도 많으신 분이고 하니까 그 분의 그 指示를 받아서 했읍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效果的인 騷擾作戰을 할 수 없었다 하는 結論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師團長에게 建議하기를 特戰部隊는 집중해서 騷擾가 나는 地域에 機動 이런 打擊式으로해서 騷擾鎮壓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이렇게 建議을 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軍隊專門用語를 저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 또 一般國民들은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31師團이 指示한 것이 소위 바둑판式作戰이라고 그러니까? 길목에 한 3.4名씩 지켜서 統制하고 차단시키고 目標地域으로 移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作戰이 되겠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런데 그것이 왜 效率의이 못되었습니까? 示威群衆들이 모이는데 대한 抑制策으로서...

○證人 崔 雄 그러니까 골목을 이렇게... 대개 支署가 이제 네거리 같은데 支署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거리에 저희들 兵力들의 一個支隊가 10분의 1인데 한 4.5名씩 이렇게 막습니다. 막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막으면 그 市民들은 아니 우리 집이 이 앞에 있다 젊은 분들이... 우리집 이 앞에 있다 우리 집 가는데 왜 막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이제 이렇게 빠져 나갑니다.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뭐 얼마 있다 보면 光州驛이라든가 또는 이 道廳앞 큰 場所에 그런데에 나중에 알고보면 그런 데에 많은 示威群衆이 모여 있는 이런 상황이...

○李敏燮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遮斷하는데 效率的이 못 되었고 또 역시 그러면 機動集結式이라고 그러니까? 왜 威力示

威도 하고 이렇게 團體로 길목을 막아서 遮斷하는 그런 것으로 建議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特戰部隊를 戒嚴部隊를 道廳이라든가... 왜 그런고 하니 道廳에 警察局이 있거든요. 그래 警察局이 또 각 警察署를 掌握하고 하니까 그 警察局에 있게 되면 示威群衆의 움직임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道廳 넓은데 錦南路앞에 거기에 集結하면 效率的으로 낫을때 나가서 示威群衆을 分散할 수 있다 이런 概念으로 建議을 했던 것입니다.

○李敏燮委員 예. 그래서 또 그 떠나시기 전에 도착했던 그 33大隊 35大隊 7旅團... 그쪽 18日 상황에 士兵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읍니다마는 또 그 作戰을 鄭 雄師團長이 직접 와서 指示를 했는데 그 全南大學과 朝鮮大學으로부터 그 道廳 또 新驛 이쪽으로 가는 길을 四角形型이 되었읍니다마는 어떠한 그 완전히 封鎖하는 型으로 이렇게 配置를 함으로써 우리 示威群衆들의 退路가 遮斷됨으로써 더욱더 충들이 심해졌다 소위 격화되는 原因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당시의 大隊長들이 하고 이러한 것이 오히려 事態惡化의 原因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그 是正을 師團長한테 建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9日 저녁 5時 會議에서는 그 얘기는 再檢討가 안 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證人 崔 雄 잘 기억이 안납니다.

○李敏燮委員 예. 그리고 그 당시의 光州의 狀況이 상당히 점차 좀 심상치 않게 되어가니까 兵力이 더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나 그런 檢討가 되지 않았는지요?

○證人 崔 雄 그런 11旅團이 31師團長 그 作戰統制下에 任務를 遂行하다보니까 示威가 없었다면 그런 것이 필요없었겠지요. 그러나 示威가 굉장히 크게 이제 群衆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몇萬名씩... 그래 많아지고 하니까 그 당시 19日까지 있던 兵力이 5個大隊입니다. 5個大隊면 실제로 나가서 움직이는 兵力은 數字로 말하면 1,500名밖에 안됩니다. 하니까 數萬의 群衆을 이 1,500 가지고 이것 뭐 아무 것도 안되지요. 하니까 이것

増員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李敏雙委員 그래서 그 당시에 3空輸旅團이 내려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은 거기에서 안나왔습니까?

○證人 崔 雄 제가 그 師團長에게 도저히 이것 가지고서는 任務遂行이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増員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이것을 그렇다 하고 기억은 못하겠구요. 거기에서 増員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사실이 認定이 되었습니다.

○李敏雙委員 거기에서 20師團의 追加兵力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까지는 擧論 안되었습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은 뭐 있을 수가 없고요...

○李敏雙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20日 새벽이 됩니까? 3旅團이 내려오는 것이...

○證人 崔 雄 3旅團이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李敏雙委員 내려와가지고 任務가 어디 再編成되지 않았습니까?

○證人 崔 雄 任務가 분명히 再編成이 되었습니다.

○李敏雙委員 鄭 雄師團長한테 任務를 다시 賦與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結果論이 되겠습니다. 光州市內를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朝鮮大學 쪽이 이제 11... 거기 7旅團이 말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全南大學 쪽을 3旅團이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特戰旅團의 大隊가 전부 10個大隊가 됩니다. 그래서 3旅團의 隸下大隊가 5個大隊가 되니까 師團長의 騷擾鎮壓 概念은 東西로 나누어가지고 내려가지고서 이제 騷擾鎮壓을 하도록 이렇게 任務를 받았습니다.

○李敏雙委員 그리고 이번에 그 通信裝備가 우리 空輸團하고 31師團이 種類가 다르기 때문에 交信이 어려웠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實質的으로 그것을 運營하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는 通信裝備의 相異로 인해서 어떠한 作戰의 지장이나 또

指揮體系에 障礙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證人 崔 雄 그 31師團長은 部隊指揮를 한다 하게 되면 旅團長만 장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旅團本部가 있었던 저희 旅團같은 경우에는 朝鮮大學校에 師團과 通信할 수 있는 民間電話 市民電話도 架設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軍電話... 戰敎司를 통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軍電話가 있었고 31師團 電話도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無電도 소위 指揮網이 FM으로는 無電이 交信이 됩니다. 그래서 指揮通信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李敏雙委員 당시에 그 p-77인가 하는 無電機 그것이 空輸旅團에서 使用하던 것입니까?

○證人 崔 雄 p-77에 FM無電網이 되겠는데요. FM無電機인데 이것은 特戰部隊 뿐만 아니라 모든 作戰戰鬪部隊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李敏雙委員 예. 31師團도...

○證人 崔 雄 다 그 基本裝備요.

○李敏雙委員 그리고 22日 아까 狀況에서 먼저 同僚委員이 물으셨는데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당시에 戰敎司 作戰日誌를 보면 戰鬪詳報를 보면 20日 몇가지 指示가 내려옵니다. 2軍司令部로부터 31師團長한테는 住民을 啓蒙하는 談話文을 發表하도록 指示하고 또 其他 여러 가지 指示가 내려지고 또 戒嚴軍의 姿勢確立에 있어서 銃器被奪의 防止 또 民間人 敵對行爲의 防止 이러한 몇가지 指示가 내려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軍作戰指針 追加指示다 해서 發砲禁止 實彈統制라는 指示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指示가 그 당시 급박한 狀況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금 證人께서는 기억이 안나시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인지 그것을 좀.....

○證人 崔 雄 그 指示를 일일이 제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宜撫活動을 상당히 強化했습니다. 「헬」機로 航空機로 제가 기억은 航空機로 알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아니고

○李敏雙委員 예. 放送 「헬리콥터」 한臺도 支援을 要請.....

○證人 崔 雄 예. 그래가지고서 放送을 하

고요 傳單을 뿌리고 市民들을 安定시키고 秩序回復을 呼訴하는 그러한 내용의 宣撫活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李敏變委員 그런데 이러한 指針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시지 않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은 그러한 여러가지 저는

○李敏變委員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가지 指示가 그 당시의 狀況에서 위에서 자주 떨어지는데 8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확실하나 아니나..... 다만 왜 그것을 묻는고 하니 밑에서 報告를 올린 것을 안하는 것은 예를 들어 指揮系統을 無視하고 우리 證人이 그러한 報告를 直接 次次上部로 했다면 證人의 責任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2軍司의 指示가 31師團을 거쳐서 證人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 指示를 받고 다시 移牒하지 않은 소위 다시 再指示를 하지 않은 위 上部의 作戰統制를 하고 있던 師團에서 이 指示를 내리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旅團의 指揮에 대한 統制를 拋棄했거나 하는 그러한 結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威力示威..... 19日 처음 내려가서 任務 받은 것이 威力示威였습니까?

○證人 崔 雄 任務 받은 것은 騷擾鎮壓이었구요 그 方法에 있어서...

○李敏變委員 19日 처음했던 作戰은?

○證人 崔 雄 처음 했던 것은 7旅團이 말고 있었던 幕障地를 소위 다시 말해서 바둑판式으로 되어 있던 그런 데에 部隊交代를 한 것이 새벽한 4時쯤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車輛搭乘을 해가지고 市內를 疾走한 威力示威가 되었습니다.

○李敏變委員 그래서 지금 저희가 8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狀況을 直接 體驗해 보지 못했던 우리 特委委員으로서는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또 당시의 그 급박했던 狀況을 저희가 類推한다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21日 낮 1時半께 道廳 앞에서 大規模 示威群衆과 戒嚴軍이 참 遭遇해서 對峙해서 集團의인 發砲가 처음 이루어진 이 狀況 이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同僚委員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당시 그 周邊의 狀況으로 인해서 道廳앞의 狀況으로 인해서 死亡한 사람은 몇名이나 됩니까?

○證人 崔 雄 저희 戒嚴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敏變委員 戒嚴軍과 市民 다 합해서.....

○證人 崔 雄 제가 現場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市民이 死亡한 것은 報告받은 것은 「버스」를 가지고, 突進하다가 射擊을 받고 噴水臺에 부딪혀서 停車되었던 運轉手 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외의 犧牲者는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戒嚴軍이 死亡한 것은 裝甲車에 의해서 깔려서 死亡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撤收過程에서 제일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李敏變委員 그것을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證人 崔 雄 예. 알겠습니다.

○李敏變委員 그래서 당시에 道廳앞에서의 狀況이 물론 아까 여러가지 狀況說明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미심적인 것이 있어서 하나 좀... 月刊朝鮮 85年7月號에 보면 당시의 朝鮮日報의 記者들이 現場에서 보내온 送稿가 있습니다. 급박한 狀況을 그때그때 한 것을 보면 당시 5月21日 그 事態가 發生하던 午前10時56분에 送稿해온 거기에 벌써 상당히 警察 즉 警察의 의견입니다. 同僚들이 殺傷당하자 왜 이런 式으로 指揮해서 被害를 입히느냐고 공공연히 不滿을 吐露 또 軍... 이것은 그쪽 戒嚴軍이 되겠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 보임 왜 이런 式으로 우리 同僚가 다쳐야 하느냐 하며 흔들림 그 다음 2項에 가서 武裝「데모」群衆이 四方에서 軍을 포위하고 압축하는 狀況에서도 낮에는 實彈을 回收 이에 대해 彈丸을 달라고 아우성도 軍은 負傷兵이 생겨도 四方이 포위돼 應急治療나 輸送을 못해 더욱 자극되는 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彈丸을 달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狀況에서 낮에는 實彈을 回收했다라는 것이 이제 取材記者들의 그 당시 얘기인데 實彈을 그러면 언제 夜間이라든가 그 전에

配給을 한 적이 있었는가?

○證人 崔 雄 旅團長의 분명한 概念은 兵士들에게 藏下部隊에게 實彈을 안주는 것이 저의 概念이었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 당시에 實彈을 配給하는 문제 또 自衛權을 發動하는 문제에 있어서 作戰統制를 받았던 31師團側과는 議論이 있었습니까?

왜냐 하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세요. 31師團은 14日로부터 벌써 放送局이나 이런 主要 警戒陣地에 戒嚴軍을 配置합니다. 그리고 實彈이 보급되면서 19日에는 벌써 午後 3時에 CBS가 습격당하면서 M-16 1挺과 實彈 15發이 피탈이 됩니다.

그래서 31師團은 이미 道廳앞에서도 그 이전에 實彈을 보급받고 있었는데 空輸旅團이 이렇게 보급이 안되었다는 것이 조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證人 崔 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戒嚴軍이 워낙 다급하니까 21日 午後 그때 그러니까 밀리고 난 다음에 31師團 警戒 나갔던 2個分隊 兵力이 가지고 있었던 實彈을 처음 그것을 引受를 받습니다. 「헬리콥터」타고... 또 그것도 보면 戒嚴軍... 뭐 같은 戒嚴軍이지요. 31師團 軍隊도 戒嚴軍이고 特戰部隊도 戒嚴軍이고 모든 게 같은 戒嚴軍입니다. 戒嚴軍인데 31師團 兵力은 「헬리콥터」로다가 2個 分隊를 메칩니다. 메낼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實彈이 결국 저희 特戰部隊 安全을 보장하는데 큰 寄與를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安全을 確保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물론 거기에서 銃알이 날라갔다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光州市民도 다칠 것으로 물론 豫想이 되겠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러나 오늘날 證人이 여기와서 이렇게 또 수고를 하시는 것도 結果적으로 이 實彈의 發射가 먼저 配分받았던 31師團보다 空輸旅團에 의해서 먼저 發射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狀況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證人 崔 雄 만약에 말씀이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實彈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假定을 가지고 어떠한 統制를 指針을 가지고

애초부터 나갔다면 좀 비약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特戰部隊도 내려갈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鎮壓作戰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武器庫도 被奪이 안왔을 것입니다. 武裝市民이 어디서 銃이 나고 그 다음에 實彈이 나겠습니까? 흥분된 市民들이 좀 했겠습니까마는 그러한 狀況이 없었던들 그러한 實彈이 날라가고 交換을 하는 이런 狀況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李敏燮委員 그 문제는 武器被奪의 責任을 갖다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31師團長이 또 이 자리에 당시 責任者로서 證言臺에 나오니까 또 저희가 具體적으로 규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그 要圖인가 가지고 나오신 것 그것이 아마 道廳앞에서의 狀況 그리고 가장 중요한 發砲經緯에 관한 것입니까?

○證人 崔 雄 예.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아까 金文元委員님 質問하신 가운데도 대략 제가 口頭로 說明이 됐고 또 要圖를 가지고 說明을 드려도...

○李敏燮委員 예. 그 說明을 해주십시오 너무 길면 곤란하고 요령있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약받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저도 時間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最初發砲를 누가 했는지 그것도 좀 분명히 설명을...

○證人 崔 雄 (圖面을 가리키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道廳이 되겠고요 錦南路가 되겠습니다. 여기 양쪽에 建物이 있고 여기가 示威群衆이 裝甲車 그 다음에 軍用「트럭」「버스」를 앞세우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群衆이 뒤에 몰려 있고요.

○趙洪奎委員 몇日 時間을 얘기해 주세요.

○證人 崔 雄 5月21日 아침 狀況이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쪽...

○趙洪奎委員 裝甲車 나와 있는 것이...

○證人 崔 雄 예. 5月21日 아침 狀況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李敏燮委員 說明을 해보세요 쪽...

○證人 崔 雄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앞에 2個 大隊가 있고 나머지 2個 大隊가 여기 있

읍니다.

여기 있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道知事에 ... 戒嚴軍이 撤收를 약속했는데 撤收 안하니
 12時쯤 되니까 群衆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던 裝甲車라든가 모든 車輛이 「라이트」를 켜고 警笛을 울리고 앞으로 밀고 나올려는 이런 狀況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射擊도... 銃알이 날아옵니다. 날라오는데 또 동시에 이것이 밀으니까 이 兵力들이 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銃이 이제 發射가 되니까 이 群衆들은 이제 銃소리에 놀라서 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裝甲車를 비롯한 이런 車輛들이 멈춥니다. 銃소리가 나니까... 멈추니까 주춤하는 사이에 이 裝甲車 한 臺만이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한 臺가 앞으로... 뒤로 밀리는 戒嚴軍을 따라서 밀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맨 後尾를 따라오는 앞서 말씀하신 권姓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서 APC에 깔리는 狀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2時 前後가 되겠습니다.

○趙洪奎委員 發砲는 그전에 하고...

○證人 崔 雄 그러니까 發砲가 되어있지요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銃이...

(「총이 어느쪽에서... 누가 쏘니까?」 하는 이 있음)

市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면 아까 全日「빌딩」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어느쪽입니까?

○證人 崔 雄 全日「빌딩」이 여기입니다.

○李敏燮委員 說明을 좀 하세요. 나중에...

○證人 崔 雄 지금은 말씀이지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李敏燮委員 時間이 제한되고 있으니까...

○證人 崔 雄 李委員님 質問에 대해서는 答辯을 하고요 나중에 委員님 말씀에 答辯하겠습니다.

○李敏燮委員 예. 하세요.

○證人 崔 雄 그래서 이제 4個大隊가 몽땅 이리 물리게 됩니다.

여기 APC... 戒嚴軍이 가지고 있던 APC가 여기 裝甲車 한臺가 있습니다.

群衆은 다 없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車는 나옵니다.

그 때에 여기에 뒤로 물린... 道廳앞으로 물린 部隊들은 혼돈이 되고 이런 狀態입

니다. 그 때에 尙武館에 다른 保安目標로 占領하고 있었던 31師團兵力 2個分隊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들이 「헬리콥터」에서 「폭엽」이 됩니다. [폭엽]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M-16小銃을...

○安榮基委員 그것 韓國말로 하세요. [폭엽]을 우리 말로...

○證人 崔 雄 죄송합니다. 버릇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헬리콥터]로 실고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나가니까 이때 大隊長이... 兵力들이 여기에서 實彈을 引受를 받습니다. 그래갖고서 이것이 오니까 급하고 또 총알은 날아 오고하니까 實彈을 여기에서 다 分配를 해줍니다.

○李敏燮委員 그 彈藥을 自發적으로 주었습니까? 어디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狀況이...

○證人 崔 雄 그 전부터... 탄알은 벌써 그 전부터 달라고 했던 것은 있었지요.

그러나 彈藥이 없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彈藥을 引受를 받아 갖고 10發씩 이렇게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 10發씩 내주고 있는 狀況속에서 「버스」가 한臺가 급히 이렇게 突進해옵니다. 하니까 이것을 놓아 두게 되면 이 兵力들이 이런 어려운 狀況에 있는데 깔려 죽게 됩니다. 하니까 그 때에 戒嚴軍이 威脅射擊을 가합니다. 威脅射擊을 가했음니다마는 나중에 報告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 運轉手가 銃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딪칩니다. 噴水臺에... 그러한 狀況이었었고 그때 계속 총알이 날아오고 오니까 그 때에 戒嚴軍이 가지고 있던 裝甲車를 앞세우고 大隊長이 射擊을 중지를 시킵니다.

○李敏燮委員 누가 중지시켰습니까?

○證人 崔 雄 大隊長이 시켰습니다. 大隊長들이 이것을 더 하다가는 큰 被害가 나겠고 또 어차피 엄격히 따지면 自衛權發動입니다마는 上級에 報告도 안하고 자기 스스로 判斷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大隊長이 射擊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서 兵力들이 전부 빈메로 다 피신합니다. 피신하고 裝甲車 한臺 갖다놓고서 오는 車輛에 대해서 威脅射擊을 가하게 되지요. 그런 狀況이 4時까지 對峙하고 있다가...

○李敏燮委員 撤收狀況까지 아주 說明해 보세
요. 지금...

○證人 崔 雄 그레가지고서 4時半에 撤收命
令이 내려집니다. 4時半에 撤收命令이 내려
지는데 撤收한 部隊는 道廳뒤로 해서 朝鮮大
學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때에도 道廳周邊
에다가 TNT를 묻은 것을 爆破시킵니다. 그
러다가 戒嚴軍이 混亂狀態에... 말하자면 逃
亡가는 것과 똑같지요. 逃亡가는 것인데 원
래 撤收라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作戰할
때... 뒤에다가... 戰術... 軍事術語로 말하면
敵이 쫓무니 물고 뒤를 보이고 나간다는 것
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레 이런 狀況에 있
었는데... 그러고서 朝鮮大學에 나가지요. 朝
鮮大學에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섯끼
를 굶었던 거기에서 밥을 처음 먹습니다.
戒嚴軍이... 밥을 먹고서 徒歩兵力들은 朝鮮
大 뒷산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車輛 이런
것들은 全南醫大 앞을 通過해나가는데 全南醫
大에서도 射擊을 또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레가지고서 將校 한사람을 포함한 將兵이
들이 銃에 맞아 죽게 되고 약 6.7명의 兵
士들이 거기에서 또 다치고 이런 狀況이 벌
어지고 제 車도 旅團長車인지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車도 集中射擊을 받습
니다. 그런 狀況이 있었고 저는 [철]機로다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狀況이 있었습니다.

○李敏燮委員 아까 다섯끼를 굶었다고 그랬는
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 空輸旅團初期에 무슨
藥을 먹었다든가 또 다른 것을 먹도록 해서
또 굶기고 해서 더욱 事態가 惡化되는 또
過激鎮壓을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崔 雄 이 國軍을 믿어 주셔야지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겠고요 밥을 다섯끼씩
굶은 사람이 무슨 藥을 먹겠습니까?

○李敏燮委員 아니! 그 당시는 말고 初期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섯끼
를 굶게 된 이유는 무엇이나 그런 얘기입
니다.

○證人 崔 雄 그러니까 밥을 갖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道廳에 있고 朝鮮大學이 여
기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가 忠壯路인데요 이쪽이... 이것이 다
示威群衆에 의해서 막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갖다 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
로 患者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李敏燮委員 實質으로 空輸部隊가 彈藥을
公式的으로 士兵들한테 支給해 준 時期가 언
제입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은 光州外廓으로 撤收하고
서 부터 주었습니다. 아! 나가기 전에...

○李敏燮委員 撤收하는 과정에서...

○證人 崔 雄 撤收하기 전에 朝鮮大學에서
警戒實彈을 내 주었습니다. 그 때는 自衛權
發動이 내리고 난 다음이 되겠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러면 앞에서 「버스」가 突進해
들어 올 때 최초로 射擊을 가한 사람은 將
校들로서 推測이 되는데...

○證人 崔 雄 將校입니다.

○李敏燮委員 또 누가 제일 먼저 發射를 했
는지 그 확인은 할 길이 없습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은 大隊長에게 물어 보았
습니다. 누가 發射했느냐 물어보니까 大隊長
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긴박한 狀
況이고 보니까 누구할 것 없이 이렇게 아주
反射的으로 이 車를 멈추어야 되겠다 하고서
쏜 이런 狀況이 되겠습니다.

○李敏燮委員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그 地
圖로서는 됐고... 그리고 말씀이지요 뒤에
또 委員들이 많은 質問을 하겠습니까만 시간
이 많이가서... 아까 이야기 되었던 池元洞
에서의 女高生 이라든가 우리 어린이...
市民들의 殺傷問題 이것은 도저히 우리 國軍
으로서는 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것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아마 證人께서 說明하실 기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더 說明하실 것이 있으
면 잠시 說明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證人 崔 雄 아까 委員님께서 質問하시는
것이 너무 그냥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答
辯을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말씀이지요 만
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狀況이 있었다면 그
女學生을 살려놓았겠습니까? 證據湮滅을 위해
서 라도 어떻게 처치했겠지요. 그러나 國軍
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狀況 報告받고 난 다음에도 旅團長
인 제가 앞으로 반드시 이러한 事後가 整理
가 되는 狀況이니까 죽은 屍體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고 눈에 잘 띄는데다가 假埋

葬하도록 하라는 분명한 제가 命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도 저희 旅團에서 일부러 梧陰里에서 光州에 내려가서 그 屍體發掘하는데 찾아내는데 協調를 다 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朝鮮大學 뒷산을 비롯해서 당시에 暗埋葬을 많이 했다 또 그리고 清掃車 [트럭]으로 많이 싣고 가는 것을 보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당시 확인된 狀況에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證人 崔 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좀 調査를 해서 이 國軍의 그런 억울한 陋名도 좀 차제에 委員님들께서 또 國民께서 벗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리고 손이 뒤로 묶인채 捕縛된채 이렇게 死亡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때 그런 당시의 狀況에 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證人 崔 雄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豫想할 수 있는 일인데요 布告令을 違反하고 騷擾鎮壓을 하는 戒嚴軍에 대해서 過激한 행동을 했던 사람 逃亡가고자 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豫想이 되겠습니다.

○李敏燮委員 대충 제가. 중요한 부분 몇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간이 다 안되어서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 불행했던 과거 光州의 悲劇을 8年後에 이렇게 照明함에 있어서 우리 光州市民이나 國民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하실 말씀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質問 이상 마치겠습니다.

○證人 崔 雄 예. 國軍은 國民을 위해서 存在하는 國軍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어떻든지간에 이러한 불행한 事故가 난 이러한 그 期間동안에 犧牲된…… 光州市民의 犧牲된 분하고 그 遺家族에게 진심으로 冥福을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負傷 당한…… 이런 負傷 당하신 분 또 그 家族에게도 또 慰勞의 말씀 드리

고 싶고요 政府에서도 좀 積極的인 이 분에 대한 아픔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 것은 차제에 그 동안 한결같이 軍이 壓倒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 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命을 받고 나간…… 제 部下들은 오로지 命令만을 들은 것입니다.

물론 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좀 잘못된 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大局的인 전지는……

○李敏燮委員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崔鳳九委員 質問해 주십시오.

20분이 割當되었습니다.

○證人 崔 雄 죄송합니다.

○崔鳳九委員 平和民主黨의 崔鳳九委員입니다.

證人께서 證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여하튼 그래도 歷史는 엄연히 存在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歷史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앞으로 자라는 우리 後孫들을 위해서도 꼭 이것은 잘못된 점은 밝혀져서 歷史를 바로 해놓아두어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後世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質問하겠습니다.

證人은 陸本 作戰命令 18-80號에 의거하여 80年 5月18日 새벽에 東國大學校 進駐했다가 同日字 그러니까 午後3時 陸本 作戰命令 19-80號에 의거해서 首警司로부터 作戰統制가 解除되어가지고 2軍으로 作戰 配屬이 되었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가지고 그 날 午後부터 部隊를 出發시키기 시작해가지고 光州 朝鮮大學校에 19日 새벽 3時에 전부 도착 完了되었지요?

○證人 崔 雄 예.

○崔鳳九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가지고 2軍에서 다시 戰敎司로 戰敎司에서 다시 31師團으로 配屬 되었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좋습니다. 31師團 96聯隊에 配屬된 먼저 도착한 7旅團 33大隊와 35大隊는 그 때 11旅團에서 作戰 配屬을 받았지요? 다시……

○證人 崔 雄 예. 저희가 내려 가므로 해서요 35大隊…… 제가 기억나기는 35大隊 하나만을 저희가 또 配屬을 받아갔고요 33大隊는 31師團의 機動打擊隊로 運營된 것으로…… 이렇게 運營되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런데 여러가지 記錄을 보면 별로 機動打擊隊로 運營된 그런 부분이 안나 오고 있어요.

○證人 崔 雄 實質으로 보면 말씀이지요. 任務는 騷擾鎮壓에 다 들어갔던 것입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당시 33大隊와 35大隊가 旅團本部…… 11旅團 旅團本部가 그러니까 作戰 指揮所지요. 戰敎司 狀況室에 設置되었지요?

○證人 崔 雄 어디 말씀입니까?

○崔鳳九委員 戰敎教育司令部 狀況室에……

○證人 崔 雄 어디가요? 누구 말씀입니까?

○崔鳳九委員 11旅團 指揮所하고 그 다음에 33大隊 35大隊 指揮所가 말씀입니다.

○證人 崔 雄 5月19日 저희 指揮所는…… 19日 내려간 저희 指揮所는 朝鮮大學에 있었습니다.

○崔鳳九委員 있다가 언제 그리고 옮겼습니까?

○證人 崔 雄 있었고요. 5月22日 撤收를 하면서 저희 指揮本部는 일단 주담으로 들어갑니다. 주담으로 들어갔다가 그 날로 저희는 戰敎司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5月22日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22일에 저희 旅團 指揮部가 戰敎司로 移動을 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런데 特戰司令官이었던 鄭鎬溶 당시 司令官은 證言에서 보통 旅團長 전부하고 자기가 걱정이 되어서 CAC 司令部 狀況室에서 旅團 말하자면 指揮所를 設置해 놓고 거기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 했는데요?

○證人 崔 雄 鄭鎬溶將軍이 거기에 指揮所 設置할 무슨 構成…… 뭐…… 있었습니까?

○崔鳳九委員 아니 그 분 표현에 의하면 열려가 되어서 자기가 왔다갔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證人 崔 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鄭鎬溶將軍은 저희들이 걱정이 되고 하도인제 被害도 많이 나고 하나까 근심 걱정이 많아서 거기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崔鳳九委員 7旅團長 申佑植將軍도 거기 와

있었지요?

○證人 崔 雄 申佑植將軍도 와 있었습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이제 당시 戰敎司令官이었던 蘇俊烈證人の 證言에 의하면 空輸部隊 性格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空輸部隊는 자기 直屬上官의 命令이 아니면 잘 듣지 않는다는 特性이 있다고 證言했습니다. 그래서 證人께서 혹시 空輸部隊 特殊作戰 任務上 證人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證人 崔 雄 崔委員님! 제가 特戰司에 勤務한 것을 따지게 되면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는 주로 步兵部隊 士官學校 敎授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部隊든지 자기上官에게 忠誠하는 것이 그것이 原則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特戰司라고 해서 뭐 그냥 특별한 무슨 忠誠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崔鳳九委員 아니 部隊編成을 보면 여러 가지로 또 그런 將校數字도 많고 그 다음에 敵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部隊 特性이 안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證人 崔 雄 말하자면……

○崔鳳九委員 上命下服關係가 더 끈끈한 戰友 愛가 맺어질 수 있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오히려 特戰司式으로 그러한 끈끈한 紐帶關係가 다른 步兵部隊 기타 部隊도 되어야 되는 것이 軍의 組織의 根本이 되겠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蘇俊烈證人께서 陸軍大尉가 特攻組長으로 道廳 最後 占據作戰에 投入이 되었을 때에도 믿기지 않아 두 번 세 번 가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崔世昌旅團長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꼭 좀 殺傷이 많이 만나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해달라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最高司令官이었던 蘇俊烈將軍도 믿기지 않아가지고 그 命令이 믿기지 않아가지고 다시 옆에 있는 崔世昌准將한테다가 또 부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證人 崔 雄 알겠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렇게 認定하지요?

○證人 崔 雄 예.

○崔鳳九委員 關係記錄을 보면 5月 21日 16時까지 31師團長에게 空輸旅團들이 作戰配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特戰司가 光州現地の 狀況을 陸本에 직접 報告한 것 등은 31師團의 作戰 統制를 잘 받지 않고 空輸部隊 獨者的 判斷에 의한 作戰으로 作戰이 二元化된 것을 間接是認하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證人 崔 雄 글썽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 하겠습니까마는 軍이라는 것은 指揮系統을 살리는 것이 生命이 되겠습니까.

○崔鳳九委員 아까도 우리 金文元委員 訊問에 그 司令官께서 作戰에 약간 干涉했다 그렇게 是認하셨습니까. 證人께서……

○證人 崔 雄 그것이 바로 行政的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또 그러니 作戰하는 31師團에서 일일이 屍體까지 치우고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司令官은 作戰은 별로 신경안써도 되고 그저 주로 兵站問題 이런 屍體處理 이런 것만 신경써야 됩니까?

○證人 崔 雄 常識적으로 봐서요. 特戰司令官도 作戰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겠지요. 常識적으로요.

○崔鳳九委員 예. 좋습니다. 우리가 常識적으로 그런 判斷하기 때문에 또……

○證人 崔 雄 常識적으로 생각하시면 또 수궁이 갑니다.

○崔鳳九委員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證人한테 이것은 내가 私적으로 한 마디 물어봅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릅니다마는 證人은 당시 5月20日 9時頃에 당시 中央情報部 全南支部長 정석환씨입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證人 崔 雄 거기 支部長하던 사람…… 姓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崔鳳九委員 아! 정석환씨라고……

○證人 崔 雄 예.

○崔鳳九委員 예. 그런데……

○證人 崔 雄 혹시 「파레스호텔」…… 그것…… 죄송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崔鳳九委員 동북建設 副社長도 하고 했음

니다. 기억납니까?

○證人 崔 雄 맞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崔鳳九委員 그런데 그 분을 통해가지고 全斗煥 당시 中央情報部長의 「메시지」를 傳達받은 일이 있습니까?

○證人 崔 雄 「메시지」는 없고요 그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가 제가 失蹤된 것으로 알았다고 그러니까. 全斗煥將軍이 그때 21日 이제 나올 때에 제 車가 集中 射擊을 받습니다 받아갔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鐵帽라든가 여러가지 裝備 防毒面 이런 것이 없어지고 한 것이 外信에 났다고 그러니까. 外信에 난 것을 보고 이 양반이 崔將軍이 없어진 것같으니까 확인하라 아마 이런 얘기를 받아갔고 지부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全斗煥將軍이 그런 걱정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우리 이렇게 참 무사히 잘 나왔다 좀 전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런데 그 당시 通信이 아까는 주로 FM만 얘기 했는데 特戰司에서는 AM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無電機를……

○證人 崔 雄 AM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AM의 性能이 더 좋지요?

○證人 崔 雄 그러니까 通信裝備의 성격이 있어요 AM의 裝備는 주로 通達距離를 길게 하는 裝備가 되겠습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그런 좋은 裝備를 가지고 있으면 中央情報部長이 旅團長의 生死를 몰라가지고 外信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는 믿기지가 않는 얘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證人 崔 雄 아니지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는 얘가지요. 그러니까 제 士官學校先輩이고하니까 또 後輩가 또 그렇게 혹시나 해서 확인했겠지요.

○崔鳳九委員 그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餘談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證人은 5月21日13時… 아까 道廳發砲事件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道廳앞에서 集團發砲事實을 大隊長으로부터 報告를 받았다고 證言한 事實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는데 證人께 제가 묻겠습니다. 11旅團 추정指針에는 銃砲使用은 司令官命令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司令官의 承認을 받고 發砲을 했습니까? 아니면 命令을 하지도 않았는데 任意로 現地指揮官이 發砲을 했습니까?

○證人 崔 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道廳 앞에 있어서의 21日 午後에 있었던 特戰部隊發砲은 그 現場에 있었던 幹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추정指針이라든가 위의 上級指揮官의 뜻에는 아무 관계없이 現地指揮官이 狀況에 따라서 말하자면 적절한 對處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그들이 判斷해서 한 것입니다.

○崔鳳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아무 發砲命令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그 당시 陸軍參謀總長의 自衛權闡明聲明이 發表된 것은 훨씬 후입니다. 時間的으로 봐서...

○證人 崔 雄 맞습니다.

○崔鳳九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證人께서는 조금 전에 또 그림을 내놓으시고 說明하시면서 그 당시 示威群衆들이 武裝을 하고 銃을 쏘며 對抗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發砲을 했다 그렇게 분명히 證言했습니다.

○證人 崔 雄 표현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마는...

○崔鳳九委員 아까 銃을 쏘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證人 崔 雄 그 屋上에서부터 武裝한 市民들이 射擊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射擊이라는 것은 결국 銃 아니면 大砲아니겠습니까?

○證人 崔 雄 예 銃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崔鳳九委員 最小限度 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조금 證明해 드릴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혹시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道廳앞 狀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가지고 軍이 保有한 文書들을 여러가지 면밀히 檢討해 봤습니다. 結果 5月21日13時30分 현재 示威群衆들이 銃을 쏘았다는 記錄은 7旅團戰鬪詳報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21時30分 暴徒 道廳을 防禦중인

軍警쪽으로 APC돌입 이것은 銃 쏜 것이 아니고 APC 돌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1旅團 兵士 1名이 壓死 權某上兵입니다. 대단히 애석한 일입니다.

다음 11旅團 戰鬪詳報을 보면은 5月21日 13時 暴徒들은 APC를 앞세우고 小銃 射擊을 하면서 戒嚴軍을 攻擊 많은 負傷者를 낸 이런 戰鬪詳報이 있습니다.

그 다음 31師團 戰鬪詳報에는 關聯記錄이 없습니다.

그 다음 戰敎司 狀況日誌에는 21日 13時30分 道廳앞 暴徒 亂射 軍 1名 負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軍 狀況日誌에는 13時30分 道廳앞에서 戒嚴軍 中士... 空輸部隊입니다. 1名 暴徒와 對峙다가 暴徒가 發射한 銃에 맞아 絶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陸本이나 戒嚴司에는 狀況日誌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道廳앞에서는 장갑차에 11空輸旅團所屬 權某上兵이 참 불행하게도 희생된 것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 狀況日誌라든가 여러가지에는 또 某 中士가 銃擊을 맞아가지고 또 死亡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지금 報告가 되어 있어요.

○證人 崔 雄 예.

○崔鳳九委員 그런데 다시 제가 또 여기서 證明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戰敎司 狀況日誌가 있습니다. 戰敎司 狀況日誌를 보면 이 記錄은 어디서 발굴했느냐 하면은 金大中內亂陰謀事件 搜查記錄에 말하자면 搜查「팀」에서 유리한 證據資料를 提示한 중에 있는데 戰敎司 狀況日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銃器被奪時點이 나옵니다.

문제는 銃器를 市民軍이 구해야 銃을 쏠때 그 당시 銃을 만들 工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銃器를 被奪 당한 시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金大中內亂陰謀事件 搜查結果 편철된 그 내용을 보면 戰敎司 狀況日誌입니다. 21日 01時부터 02時 사이에 光州稅務署에서 「칼빈」 17挺을 奪取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實彈은 다행스럽게도 軍部隊에서 保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헛銃입니다 헛銃... 그 다음 13시에 光山河南派出所에서 「칼빈」 9挺이 奪取됐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역시 實彈은 軍部隊에서 保有하고 있었읍니다. 그다음 13時35분에 和順 4個 派出所 武器奪取 銃器 460점 實彈 1萬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可用한 銃器입니다. 13時35분에 和順이 있는 4個 派出所에서 奪取 당한 武器 460점과 實彈 1萬發이 말하자면은 市民軍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可用할 수 있는 武器입니다. 그런데 戰敎司 狀況日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軍狀況日誌에는 光州稅務署가 「칼빈」銃 奪取 당한 그 사실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戒嚴司 狀況日誌에도 역시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和順에 있는 4個 派出所에서 奪取 당한 武器는 2軍 狀況日誌와 戒嚴司 狀況日誌에는 15時50分 和順 驛前 派出所武器 이것은 2軍과 戒嚴司狀況日誌에서 나온 것입니다. 和順 戰鬪中隊武器庫 400挺 그 다음에 和順 東面武器庫 「칼빈」 20挺 手榴彈 일부 그 다음 和順 농조支署「칼빈」 40挺 이러면 여기 460挺입니다. 그래서 實彈도 이때쯤 奪取가 됐는데 최소한도 13時30분에 銃擊이 가해졌다면은 그 이전에 銃이 市民軍에 들어가야 됩니다. 實彈이... 그런데 15時50분에 지금 2軍 狀況日誌라든가 戒嚴司 狀況日誌에 나와있고 단지 戰敎司 狀況日誌 이것은 아마 우리가 볼때는 造作된 證據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金大中 內亂陰謀事件에 거기 證據로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軍部隊에서 일어난 事件 같으면은 系統的으로 꼭 같은 동일한 내용이 報告되었어야 한번에 2軍狀況日誌와 戒嚴司 狀況日誌에 있는 그 狀況日誌에는 15時50分 이후에야 전부 이런 武器奪取事件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일어난 武器가 어찌 그 이전에 사용이 됐겠느냐 우리가 常識上 이것은 納得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생각나는 점이 있으면 당시 旅團長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崔 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21日 道廳앞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그러

한 狀況은 大隊長한테 報告를 듣고 진박한 狀況 심지어는 大隊長들이 遺言까지 했읍니다. 遺言까지 했었고 그 狀況室 빗발치는 호소... 우리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죽겠다 그럴 때도 저희들이 그래서 撤收를 강력하게 建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 銃을 쏘고 안한 것 그것은 調査하면 저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崔鳳九委員 문제는 死傷者는 많이 생겼는데 銃을 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命令權者가 누군지 그 당시 또 行爲者가 누군지 이것이 밝혀져야 예를 들어서 怨聲이 없어져 가지고 오늘도 보면 國會에서도 被害者들이라고 와가지고 야단을 치는데 사실은 民主主義 하자는 사람들이 國會議事堂에 와서 하는 것 나 절대 좋게 생각 안합니다. 하지마는 그분들도 의분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막아주기 위해서는 國民들이 좀더 마음놓고 다 우리가 和合된 기분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진실이 밝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證人 崔 雄 제가 하나님께 맹서하지만은 제 바로밑에 大隊長입니다. 그런 저는 명령을 결코 내리지 않고 제발 좀 참아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建議하니까 곧 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大隊長들에게.....

○崔鳳九委員 그런 것은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듣고 旅團長은 물론 직접 戰鬪에 참가 안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部下들로부터 듣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렇다면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같은 우리 國軍에서 報告한 같은 狀況日誌도 戰敎司狀況日誌와 2軍司狀況日誌와 戒嚴司狀況日誌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證人 崔 雄 文書가 잘못되었구만요.....

○崔鳳九委員 글씨 文書가 잘못되었는데 무언가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시 旅團長께서 證人이 報告받았다는 내용도 다룰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銃을 함부로 市民軍이 쏘았다는가 이런 얘기는 아까 설명하였는데 그 설명 자체는 좀 경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證人 崔 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大隊長을 믿고 싶습니다. 제 部下를 못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崔鳳九委員 믿습니다. 여기 우리 國會議員들은 國軍을 더욱 믿습니다. 一等兵은 더욱 믿습니다. 그 분들이 제일 國土防衛의 最尖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陸軍 大將보다 씩씩하고 충성스러운 陸軍 一等兵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항상 國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존경합니다.

○證人 崔 雄 감사합니다.

○崔鳳九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蘇俊烈證人께서 證人은 光州抗爭이 증폭된 원인과 많은 市民들이 殺傷된데 대하여는 당시 戒嚴軍으로 배치된 部隊 指揮官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證言했는데 證人の 판단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崔 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崔鳳九委員 어제 蘇俊烈證人께서 말씀하시기를 光州抗爭 증폭된 원인과 많은 사람들이 殺傷된데 대하여는 당시 戒嚴軍으로 배치된 部隊 指揮官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證言했습니다.

그런데 그 證言內容을 證人께서도 같이 동조하는 것인지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光州에서 그러한 엄청난 일에 대해서 나온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光州市民 立場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또 軍의 立場에서도 나오구요. 그 당시 現地에 나가 있었던 將星級 指揮官으로서 제일 계급이 낮은 것이 되겠습니까마는 光州市民의 눈에서 보았을 때 戒嚴軍이 과격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충실히 임무수행하려고 그랬는데 市民들의 용어리 진 것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惡性 流言蜚語 또 우리 戒嚴軍의 임무수행하려고 지나친 행동이 上乘

效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崔鳳九委員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參考하십시오.

光州民主化運動期間중 우리 國軍이 입은 피해가 戰死 22名 負傷 117名입니다. 그런데 5月24日 11空輸團所屬 兵力 이동시 보병학교 兵力과의 말하자면 오인 충돌사고로 인해가지고 난 사고와 그 다음에 기갑학교와 전교사 「팀」과의 오인 충돌사고로 난 손실이 戰死者 중 55% 12名 負傷者 중의 46%인 54名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당시 指揮官들이 너무 무모한 너무 無計劃의인 作戰指揮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시 指揮官들은 國民과 民族앞에 엄숙한 자세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證人 崔 雄 崔委員님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무모한 희생이 났다면 역시 저도 책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슴이 지금도 아픕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張石和委員께서 訊問해 주시겠습니다. 訊問時間은 30分인데 그 전에 質問하신 民主黨 委員이 6分 초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작해서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石和委員 本委員은 同意하지 않았습니다.

○證人 崔 雄 지금 제가 한 세時間半 되도록 있는데 화장실 좀 보내 주십시오.

○張石和委員 이것만 하고 합시다.

○委員長 文東煥 30분이니까 화장실이 급하다면……

○證人 崔 雄 좀 참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아니 停會하고요. 食事後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6時半인데 아직도 세사람이 있으니까 7時40分부터 다시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35分 會議中止)

(19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崔 雄證人에 대한 訊問을 계속하겠읍니다.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時間은 30分입니다.

○張石和委員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입니다.

證人은 현재 大使지요? 大使기때문에 公務員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잘 證言을 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읍니까?

○證人 崔 雄 예.

○張石和委員 먼저 5月21日 道廳 앞 發砲狀況에 관해서 지금까지 證人의 證言을 종합해 본다면 證人이 自衛權을 CAC司令官에게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證人 崔 雄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데 CAC 戰敎司 司令官이 發砲命令을 안내렸읍니까?

○證人 崔 雄 發砲命令이 아니라 제가 건의한 自衛權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도 戒嚴司令部에다가 건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尹興禎 戒嚴分所長은 저에게 소위 自衛權發動에 대해서 주지 않았읍니다. 그 당시에...

○張石和委員 尹興禎씨의 證言에 의하면 그당시에 自衛權 건의를 받은 바가 없다 發砲建議를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證人은 틀림없이 尹興禎씨한테 했읍니까?

○證人 崔 雄 틀림없이 했읍니다. 그리고 한일수 將軍도 한 것으로 신문에 났거든요

○張石和委員 5月21日 당시에 證人은 어디에서 있었읍니까?

○證人 崔 雄 5月21日 狀況이 매우 급박할 때는 저는 戰敎司 司令官... 건의할 때는 司令官室에 있었고요. 狀況이 어려웠었던 낮에는 戰敎司에 있었읍니다.

○張石和委員 거기서 示威現場에 있던 大隊長과 無電交信하고 있었지요?

○證人 崔 雄 大隊長과 無線交信은 안했고요...

○張石和委員 왜 無電交信 안했읍니까?

○證人 崔 雄 無電交信은 제가 無電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張石和委員 조금 아까 證人이 證言하기를 證人이 있는 방에는 無電機도 다 있다고 그랬읍니다. 왜 無電交信을 안했읍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이 바로 TOC라고 말씀

을 드렸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서 戰術作戰統制本部라는 TOC가 朝鮮大學校에 위치해 있었읍니다. 그래 모든 通信裝備은 거기 있었고요 거기에서 參謀長이 소위 TOC長이 되겠읍니다. 參謀長이 받은 것을 市內電話가 다 있고 또 軍 電話가 다 있으니까요 상황이 즉각즉각 저한테도 또 전달이 되고 그랬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大隊長과 證人이 직접 軍 電話나 市內電話로 통화하고 있었지요?

○證人 崔 雄 大隊長하고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고요...

○張石和委員 왜 통화하지 않았읍니까?

그와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證人 崔 雄 大隊長은 無電機를 가지고 있고요 그 無電機는 旅團本部 즉 作戰統制本部에 그게 들어갑니다.

○張石和委員 그래서 그 無電機로 證人에게 계속 發砲許可를 해달라는 그런 建議가 왔었지요?

○證人 崔 雄 그것을 통해서 저한테 왔었읍니다.

○張石和委員 계속 왔었지요?

○證人 崔 雄 예.

○張石和委員 그러면 證人이 軍人이기때문에 그와같은 自衛權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發砲命令이 있어야지요. 여기 陸軍本부의 作戰敎本이 있는데 91「페이지」에...

○證人 崔 雄 自衛權이 내려지게 되면 發砲를 할 것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自衛를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하게 되겠읍니다.

○張石和委員 發砲命令없이 發砲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自衛를 할 수 있다 하는 권한이 부여되면 권한을 부여받은 個人이나 또는 部隊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그 방법중에 하나가 銃을 쏘야 自衛가 된다 하게 되면 銃을 쏘게 되겠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하면 그런 방법이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自衛權 부여를 大隊長에게 해준 일이 있습니까?

○證人 崔 雄 自衛權 부여를 저는 못했읍

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大隊長은 自衛權 부여도 받지않고 發砲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이와같은 엄청난 作戰에서 이와 같이 自衛權 부여도 안받고 發砲할 수가 있습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은 그 현장에 있는 指揮官이 판단해 갖고 자기 部隊가 威脅하다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또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권한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證人 崔 雄 그 근거는 제가 法律家는 아닙니다마는 正當防衛라든가 또 軍人服務規律에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警察官들도 檢問을 용하다가 檢問을 안하고 도망가는 운전수 보면 발포하는 이런 것이 있던데 그런 職務수행할 때 더군다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 생명의 지장을 받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그런 경우에도 이와같이 自衛權 賦與를 받고 發砲命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陸軍本部作戰敎範 9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십니까?

○證人 崔 雄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그 당시 제 部下가 죽고 그런 위급한 상황속에서 또 위험한 사격이 오고 할때 제 獨斷으로라도 自衛權을 賦與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하니 光州市民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신중을 기하려고 그 地域의 司令官인 戒嚴分所長에게 建議했고 尹興禎將軍은 그 결심을 자기가 못하니까 陸軍本部戒嚴司令官에게 建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그 당시 鄭鎬溶特戰司令官에게 建議한 바는 없습니까?

○證人 崔 雄 21日에는 鄭鎬溶씨가 없었습니다. 또 건의할 성질도 아니고……

○張石和委員 21日에는 鄭鎬溶씨가 光州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지난 88年 7月號 月刊朝鮮 조갑제 記者와의 「인터뷰」에서는 21日

午後에 鄭鎬溶將軍과 尹興禎將軍과 함께 戰敎司에 있으면서 指揮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지요?

○證人 崔 雄 예. 거기에 난 것도 보았고 하지만 제가 여기 證人으로 나온마당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雜誌記者가 잘못 알고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證人인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 당시 鄭鎬溶特戰司令官은 21日 그 때 없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證人이 陳述했습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은 조갑제 記者한테 물어 보시면 좋겠어요.

○張石和委員 그렇게 진술한 바가 없습니까?

○證人 崔 雄 예.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5月21日이라고 진술한 바가 없다면 언제라고 진술했습니까?

○證人 崔 雄 날짜도 모르겠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했습니까?

○證人 崔 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月末頃에 「파키스탄」首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있었는데 조갑제記者가 「파키스탄」까지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호텔」에 있는 것을 알고 조記者가 왔어요. 그 때 光州聽聞會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왔길래 그냥 박정하게 보내기가 뵈하고 그래서 오차를 한잔 같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것 저것 잡담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 事項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가 證言臺에 한번 나가게 될 것이니 그때 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눈 바가 없었는데 月間朝鮮 조갑제記者가 마음대로 썼다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제가 보기에는 얘기 안한 것을 그 양반이 썼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證人하고 조갑제記者를 對質訊問해 보면 알겠군요.

○證人 崔 雄 그렇겠지요.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鄭鎬溶씨의 月刊京郷 이태원記者와의 「인터뷰」

記事에 보면 鄭鎬溶씨가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光州事態가 악화되자 發砲與否를 묻는 急電이 날라와서 나는 指揮系統 안에 서있지 않았지만 절대 發砲不可 命令을 내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날 證人이 鄭鎬溶씨한테 發砲建議를 한 것 아닙니까?

○證人 崔 雄 今時初聞의 얘기입니다.

○張石和委員 鄭鎬溶씨에게 發砲與否를 묻는 急電이 날라왔다면 바로 隸下部隊長일 것입니다. 證人이 아니면 7旅團長이나 3旅團長일 텐데 그 세분 중에서 한분이 發砲與否를 묻는 急電을 쳤을텐데 7旅團은 證人이 통제하고 있었고 또 3旅團長은 없었어요. 그러면 19日은 證人 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證人이 發砲與否를 건의하는 急電을 쳤겠지요.

○證人 崔 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鄭鎬溶씨는 月刊京郷 이태원記者와의 「인터뷰」에서 發砲與否를 자기에게 건의했다 이와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證人 崔 雄 그러면 鄭鎬溶議員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張石和委員 이것을 지난번 證言 때 부인했다가 그 이후에 月刊京郷에 이것이 맞다고 謝過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도 시인했습니다. 證人이 이것 저것 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證人 崔 雄 저는 否認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證言하는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實彈은 언제 지급했습니까?

○證人 崔 雄 제 命에 의해서 隸下部隊에 實彈이 나간 것은 朝鮮大學校로 일단 철수하고 난 다음에 외곽으로 철수하기 직전에 彈藥을 분배했습니다. 즉 朝鮮大學校에서 분배했습니다.

○張石和委員 道廳 앞에서는 분배 안 했습니까?

○證人 崔 雄 道廳 앞에서는 분배하지 않았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당시 發砲報告를 누구로 부터 받았다고 그랬지요?

○證人 崔 雄 61大隊長 그 당시 中領이 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大隊長 이름이 누구입니까?

○證人 崔 雄 안부응입니다.

○張石和委員 이 發砲報告를 받고 戰敎司司令官에게 報告를 했다고 그랬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직접 報告했습니까?

○證人 崔 雄 직접 하지 않았읍니다.

○張石和委員 그와같이 중대한 일을 왜 직접 報告하지 않았습니까?

○證人 崔 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事項을 제가 報告받은 것은 光州市 外廓으로 撤收해서 주담이라는 마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大隊長한테 報告를 받았읍니다. 그 報告를 받은 것이 결국 事後報告가 되겠지요. 事後報告를 계통을 통해서 狀況報告를 했읍니다.

○張石和委員 왜 그당시 5月21日 發砲現場에서 發砲한 직후에 證人이 報告 안 받으셨습니까? 바로 無電機도 있고 有線電話도 있다고 證人이 그랬읍니다. 왜 바로 報告를 안 받으셨습니까?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을……

○證人 崔 雄 제가 볼때 大隊長들이 撤收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웠고 또 계속 연속되는 事項입니다. 道廳으로 부터 나갈때도 道廳 주변에서 계속 TNT를 터뜨리고 그 全南醫大 屋上에서 機關銃 射擊을 하고 거기에서 또 많은 兵力들이 다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다음에 徒步部隊들은 朝鮮大學校 뒷산 무등산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로 넘어가서 결국 다 집결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았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證人은 戰敎司令部에서 그와같은 중요한 發砲가 행해지고 있던 시각에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證人 崔 雄 部隊掌握을 하고 있었지요.

○張石和委員 部隊掌握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發砲命令도 안 내렸다고 하고 또 發砲報告도 안 받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證人 崔 雄 아니 發砲命令을 안 내렸단지요. 내릴 때가 되면 내리겠지요.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은 發砲建議가 올라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證人 崔 雄 部隊指揮를 하고 있었지요.

○張石和委員 部隊指揮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證人 崔 雄 그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 주어야 되겠습니까?

○張石和委員 이것봐요! 그 얘기까지 하세요.

○證人 崔 雄 部隊指揮를 했었습니다.

○張石和委員 어떻게 했습니까?

○證人 崔 雄 狀況報告도 받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랬지요.

○張石和委員 지금 狀況報告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狀況報告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매우 상황이 급하다 우리 兵力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리고 나서 發砲했다 發砲狀況報告까지 받았지요?

○證人 崔 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여러번 말씀드리는데 명확하게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特戰部隊 道廳앞에 있었던 部隊들이 주답이라는 곳에 가고 난 다음에 받았읍니다.

○張石和委員 그자리에서 證人인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주 묻는 것입니다.

상황보고를 받았으면 분명히 發砲報告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證人이 부인하고 있으면 도대체 證人인 한 일이 됩니까? 그자리에서… 가만이 앉아있었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崔 雄 部隊를 지휘했지요. 여러가지 초조하고 정말 참 안타깝고요.

○張石和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지휘를 證人이 했습니까? 말 못해요?

○證人 崔 雄 부대에 지휘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휘관이라는 것이 왔다갔다 하고 해서 다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머리를 쓰고 또 상황을 판단하고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또 지휘도 됩니다.

○張石和委員 狀況報告라고 하는 것이 지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시위현장에 있던 大隊長과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大隊長으로부터 報告도 받고 또 證人이 지시도 하고 하는 것이 狀況報告 받고 지휘하는 것이지요. 그 구체적인 지휘를 證人이 안하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證人이 무조건 부인해서 하도 답답해서 그

형습니다.

그다음에 언제 撤收指示를 證人이 했다고 그랬지요? 오후 4時입니까? 5時입니까?

○證人 崔 雄 4時 반이 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4時 반! 지난번에 나온 尹興禎 證人에 의하면 그 전날부터 撤收준비를 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또 5月21日 철수하겠다는 宣撫放送까지 하고 다녔읍니다. 그러면 撤收했다면 이와 같은 發砲가 있었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證人 崔 雄 그렇겠지요.

○張石和委員 왜 撤收를 안 했습니까?

○證人 崔 雄 명령이 없어서 撤收 못했습니다.

○張石和委員 尹興禎 證人은 분명히 그 전날부터 철수준비를 하고 철수를 하고 있었는데 「헬리콥터」가 이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미처 道廳 안에 있던 물건을 다 못날랐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證人 崔 雄 尹興禎 證人이 거짓말했겠지요. 저는 분명히…

○張石和委員 夜間이라 또 못했다는 얘기도 했고… 그러면 1時半부터면 그 午前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證人 崔 雄 夜間이라고 하면 말씀이지요 오히려 철수가 더 쉽습니다. 오히려 철수라고 하는 것은 相對方이 모를 때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때 나갔더라면 武裝했던 市民軍에 의해서 그 많은 피해도 없었을 것이고 道廳에서 TNT 爆破도 없었을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道廳의 중요한 文書를 어떻게 夜間에 운반합니까?

○證人 崔 雄 文書가 아니라 저희 特戰部隊의 철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撤收를 했다면 분명히 이와같은 發砲가 없었고 發砲가 없었다면 이와같은 큰 희생자가 안나왔을텐데 證人이 統制하고 있는 部隊들이 撤收를 서두르지않았기 때문에 그와같은 결과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證人이 자인하지요?

○證人 崔 雄 아까도 앞서도 몇 證人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는 5月 20日 아침부터 部隊 撤收를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그 전에 바로 大隊長들이 自衛權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을 때 저는 上級部隊 指揮官인 戰敎司令官에게 部隊撤收를 강력하게 건의를 했읍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5月 21日 道廳앞 發砲 책임에 관해서 지금 자꾸 發砲 책임이 없다고 차꾸 미루려고 하는 것이지요?

○證人 崔 雄 委員님! 제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겠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다면...

○張石和委員 그당시에는 우리 崔鳳九委員도 얘기했지만 市民들이 무장도 안하고 있었고 또 먼저 發砲도 안했읍니다.

○證人 崔 雄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지요 그때 일부 市民은 무장을 했지요 그다음에 사격을 받았읍니다.

5月21日 상황이 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5月21日 한시반부터 무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어떻게 압니까? 證人이 現場에 있지도 않았는데...

○證人 崔 雄 저는 大隊長에게 報告를 받았읍니다.

○張石和委員 大隊長 安부웅 中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市民軍이 먼저 發砲했다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점은 우리 崔委員 말씀에 의해서라도 분명히 市民軍이 먼저 發砲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버스」가 밀고 들어가자 그것은 철수를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밀고 들어가자 發砲를 한 것입니다. 먼저 戒嚴軍이 發砲를 한 것입니다.

○證人 崔 雄 張委員님! 이 자리는 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여하튼 그것을 말이지요 그것을 밝혀봅시다.

○證人 崔 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지요. 이 자리에서 市民이 먼저 쏘는지 또 軍이 먼저 發砲를 했는지 이런 사실을 다음이라도 꼭 밝혀주셔야하고 軍이 지금 안고 있는 누

명을 꼭 벗겨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文東煥委員長, 辛基夏幹事와 司會交代)

○張石和委員 예. 밝혀보십시오.

그 다음에 證人이 서울에서 光州에 내려오기 전에 全斗煥 保安司令官을 만난 일이 있지요?

○證人 崔 雄 만난 일이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데 이 月刊朝鮮 얘기가 또 나오는데 조갑제기자의 기사에 보면 그날 내려오던 날 全斗煥 保安司令官이 證人에게 최대한도 자제해서 꼬투리를 잡힐 일은 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는데 어떻습니까?

○證人 崔 雄 그 「취앙스」는 맞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 일이 있습니까?

○證人 崔 雄 예. 그 「취앙스」는 맞는데요. 그것이 꼭 그 날짜가 아니라 이제 8年前의 얘기를 그 사람하고 주저니 받거니하다 보니까 꼭 제가 출동할때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旅團에는 보안부대가 있습니다. 旅團의 보안부대에 반장이 少領이 되겠습니다. 그 少領이 저한테 다시 말해서 자기 부대에 그러한 參謀...

○張石和委員 全斗煥씨한테 받은 것 아닙니까?

○證人 崔 雄 하여튼 保安司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지휘관에게 도와주는 조언이 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間接적으로도 전달 받았다고 하는 얘기군요?

○證人 崔 雄 예. 間接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全斗煥씨로부터 間接적으로 그 이름이 누구지요? 旅團 少領 누구지요?

○證人 崔 雄 그 사람이 安少領인데...

○張石和委員 이름이 누구예요?

○證人 崔 雄 지금 이름은 기억할 수 없어요 全斗煥將軍이 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張石和委員 間接적으로 그 분을 통해서...

○證人 崔 雄 자기 부대에서 이러한 소위 지휘조언이 있으니 光州에 가시더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충고의 말이 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保安司에서 全斗煥씨의 間接적인 그러한 연락을 그 사람이 취했다고 하는 것

이지요?

○證人 崔 雄 아니지요. 全斗煥씨가 아니라 보안부대에서 그런 것이 왔다...

○張石和委員 보안부대에서 왜 證人에게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證人 崔 雄 왕왕 보안부대는 그런 지휘 조언을 해 줍니다.

○張石和委員 보안부대가 그런 것을 지휘하는 권한이 있어요?

○證人 崔 雄 권한이 없지요. 그러니까 지휘관에게 모르는 사항을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해서 그 부대가 그 임무수행하는데 좀더 나아지라고 이렇게 「레코메인션」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鄭鎬溶씨는요 그 당시 이 光州市民虐殺 책임은 法統으로는 崔圭夏大統領에게 있으나 실세인 全斗煥 당시 保安司令官에게 力學的인 蹴점이 모아진다고 88年度 3月號 이태원기자와의 月刊京郷「인터뷰」에서 밝혔어요. 證人도 그 당시 실세가 全斗煥 保安司令官이라고 하는것 인정하지요? 鄭鎬溶씨가 엇그제 여기 나와서도 그랬어요.

○證人 崔 雄 글썄요. 뭐 그 당시 제 선배입니다마는 어려웠을때 合搜查本部長도 하였고 했으니까 「스트롱 맨」으로 보였겠지요.

○張石和委員 예. 그래서 제가 묻는건데 그것은 證人이 부인하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조잡게 記者가 그러면 근거없이 썼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對質訊問을 한번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證人 崔 雄 제가 張委員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證人 崔 雄 그러한 「위앙스」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또 例를 들지않았습니까?

○張石和委員 그래서 間接的으로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면 是認 하셔야지요.

○證人 崔 雄 그렇게 되면 間接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張石和委員 분명히 그런 保安司로 부터 연락은 받았다.

그 다음에 5月22日 朴忠勳國務總理署理가 光州에 왔을때 作戰指揮官및 機關長 懇談會가 있었지요?

○證人 崔 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 參席 안했습니까?

○證人 崔 雄 거기는 제가 參席할 자격이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作戰指揮官 懇談會인데요?

○證人 崔 雄 어쨌든 저는 參席을 안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당시 蘇俊烈 鄭鎬溶將軍도 다 참석했다는데 證人이 참석 안했어요?

○證人 崔 雄 저는 참석 안했습니다.

○張石和委員 참석을 안했다? 그 다음에 誤認射擊問題에 관해서 5月24日 11空輸旅團과 步兵學校兵力이 충돌해서 死亡者가 발생한 현장에 證人과 鄭鎬溶司令官과 같이 갔었다고 얘기를 했지요?

○證人 崔 雄 제가 먼저 갔었고요.....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지요?

○證人 崔 雄 예. 한참 있다가 오더구만요.

○張石和委員 그래서 그 시체를 서울特戰司令部로 空輸했지요?

○證人 崔 雄 그 시체를 서울로 후송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차피 저는 일단계.....

○張石和委員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좋습니다.

○證人 崔 雄 죽은 사람에 대해서 후송한 것만 제가 압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나중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훈장이 수여되었지요?

○證人 崔 雄 일부만 준 것으로 저는 압니다.

○張石和委員 功績調書에 보면 폭도들의 흉탄에 순직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證人 崔 雄 모르겠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 휘하 部隊員들에 대한 훈장을 줄때 功績調書가 이렇게 作成이 되어 있는데 證人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證人 崔 雄 내용이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功績調書에 보면 폭도들의 흉탄에 순절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점은 證人이 지금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文句를 證人이 作成해가지

고 위에다 건의한 것이지요?

○證人 崔 雄 그 文句를 어떻게 作成했는지는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안나고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말씀이지요 그 당시 光州地域에 나갔던 部隊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2軍司도 있겠고 師團도 있고요 步兵學校 砲兵學校 여러 學校도 있습니다. 그러한 잡다한 部隊들이 光州라는 問題로 해서 功績書를 올릴 때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文句가 통일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됩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證人이 作成 건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證人 崔 雄 예.

○張石和委員 그때 충돌 사고로 證人 휘하의 空輸部隊員들이 주변 마을에 살던 권근립 김승훈 임병철 이 세 사람의 무고한 良民을 학살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證人 崔 雄 지금 光州聽聞會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데 그때 誤認射擊으로 인해서 교환된 총탄이 상당히 많습니 다. 그리고 제가 여기 要圖도 만들어 왔읍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張石和委員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證人 崔 雄 나중에…… 그러니까 良民이 죽은 것은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그러한 정황으로 보아서 그러한 많은 실탄이 교환되게 되면……

○張石和委員 그런데 언제 알았어요?

○證人 崔 雄 이번에 알게 된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그 上級 部隊長인데 휘하 部隊員들 아십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데 證人이 部隊長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요……

○證人 崔 雄 그것은 저보다도요 11旅團보다도요 이것은 확실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마을쪽으로 총을 쏘는 部隊는 교도대 步兵學校 교도대입니다 위치로 보아서요.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말하자면 객지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 원래 部隊는 戰敎司고 步兵學校 部隊입니다 그렇다면 步兵學校나 戰敎司에서 그러한 事故에 대해서 나중에 調査를 하고 확인

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張石和委員 결국은 이와같이 부하들의 不法行爲 학살행위에 대한 책임을 證人이 져야지요?

○證人 崔 雄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살이라니……

○張石和委員 良民 학살 책임……

○證人 崔 雄 학살이 아니지요.

○張石和委員 良民을 그러면 어떻게 죽였어요?

○證人 崔 雄 事故…… 만일에 그런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 그러한 상황속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속에서 일어났던 불의의 事故가 되겠습니다. 事故死가 되겠지요. 그러나 학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張石和委員 證人이 누구한테 그런 학살이 아니라는 報告를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證人 崔 雄 아니 제가 제 자신이 판단하더라도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의 판단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證人이 報告받기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證人 崔 雄 사람…… 良民이 죽었다하는 얘기는 聽聞會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報告할 사람도 없었고요.

○張石和委員 證人이 部隊長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證人 崔 雄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말하자면 객지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실지로 마을에 총탄이 날라가는 것은 步兵學校部隊의 방향이 그리로 날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步兵學校나 또는 戰敎司에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내가 證人이 部隊長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지금까지 보면 證人이 5月21日 前까지는 파잉 鎭壓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고 분명히 파잉 鎭壓은 證人도 自認하지요?

○證人 崔 雄 뭐 自認하는 것이 아니라 客觀的으로 뭐 그 책임질 일이 있다면 過剩鎭壓이든 뭐든지간에……

○張石和委員 過剩鎮壓이라고 自認안하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저는 自認할 수가 없겠습니다.

○張石和委員 지금까지 나온 李煥性 戒嚴司令官 尹興植 戰敎司令官 다 過剩鎮壓임을 是認했습니다.

○證人 崔 雄 아! 그 분들 是認했겠지요.

○張石和委員 그들의 잘못을 이 자리에서 사과했습니다. 證人은 그 直接部隊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證人이 過剩鎮壓을 是認 안하고 여기에서 國民들한테 잘못을 사과하지 않습니다가?

○證人 崔 雄 아니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張石和委員 過剩鎮壓이 지금...

○證人 崔 雄 사과를 하지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저는 任務를 받고 내려간 部隊指揮官입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마지막 質問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崔 雄 指揮官인데 布告令을 違反하고 뭐 그것을 되는 것입니까? 示威를 하지 말고 集會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警察行爲를 하는 軍에 대해서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張石和委員 布告令 違反이 어떻게 그것이 나온 것입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布告令 違反이 나왔습니까?

○證人 崔 雄 그 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19日 내려갔습니다.

○張石和委員 5·17擴大措置에 의해서 不法的으로 憲法을 違反하면서까지 全斗煥씨 그룹이 政權을 잡기 위해서 그와 같은 不法的인 布告令을 발동한 것 아닙니까?

○證人 崔 雄 아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이고요 저는 그 現場에 나갔던...

○張石和委員 그리고 現場에서도 분명히...

○證人 崔 雄 野戰指揮官입니다. 野戰指揮官이고 하니까 저는 命令에 움직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張石和委員 왜 그렇게 證人이 그러면...

○證人 崔 雄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張石和委員 布告令의 違反이라 이렇게 斷定

합니까?

○證人 崔 雄 그런 위의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張石和委員 그 당시 軍人들이 먼저 市民들에게 칼로 찌르고 그 다음에...

○證人 崔 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우리 軍人이 다 나쁜 것입니까?

○張石和委員 그 다음에 鎮壓棒으로 때리고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證人! 지금도 그것을 認定 안합니까? 5月21日 이전에는 過剩鎮壓 책임을 證人이 지고 國民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5月21日은 發砲責任을 證人이 지고 國民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證人 崔 雄 저는 이 全體的인 事態에 대해서는.....

○張石和委員 5月27日에도 證人이 過剩鎮壓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證人 崔 雄 거기에 참여했던 指揮官으로서 光州市民에게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지금 證人이 國民에게 그와 같이 사과를 안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하면.....

○證人 崔 雄 그러나 제가 命을 받고.....

○張石和委員 證人은 분명히 歷史의 審判을 받을 것입니다. 똑똑히 그것은 근무해요. 얘기를 잘 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張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證人 崔 雄 저도 證言하는 마당에 저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주셔야지요.

(「거짓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하는 이 있음)

○委員長代理 辛基夏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李肯珪委員 訊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25分입니다.

○李肯珪委員 民主正義黨의 李肯珪委員입니다.

人事말씀은 서로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즉 委員들의 質問과 證人에서의 答辯 중간에 상당히 疑問... 一般國民들이 疑問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꼭 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당시 道廳앞에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21日 상황에 대해서 道廳앞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1日 戒嚴軍과 市民들간에
對峙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YMCA에 아까도
그 要圖에서 좀 설명을 하시다 그 부분을
안하셨는데 거기에서 空輸部隊는 61大隊와 62
大隊가 있었지요?

○證人 崔 雄 예.

○李肯珪委員 그 YMCA에 31師團이 있었던
말입니다.

○證人 崔 雄 31...아 그렇습니까?

○李肯珪委員 예.

○證人 崔 雄 尙武館에 있었습니다.

○李肯珪委員 尙武館에 있던 31師團兵力은
「헬」機로 撤收를 했어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肯珪委員 그리고 거기 11旅團에 所屬된
崔將軍의 麾下의 그 戒嚴軍은 말입니다. 그
대로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崔 雄 그대로 있었습니다.

○李肯珪委員 그런데 왜 31師團所屬의 兵力은
「헬」機로 後送을 했는데 왜 證人部隊의 그
두 大隊는 撤收를 안했습니까?

○證人 崔 雄 道廳앞에는 4個 大隊가 있었
습니다. 61·62大隊하고 7旅團의 1個 大隊하
고 11旅團의 3個 大隊가 있었는데 命令이
없기 때문에 撤收를 못한 것입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 그 당시 11空輸部作戰統
制는 누구한테 받고 있으며 그 命令者는 누
구입니까?

○證人 崔 雄 그 당시 作戰統制는 31師團에
있었고 師團長은 鄭 雄將軍이 되겠습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 鄭 雄將軍이 결국은 空
輸部隊는 撤收命令을 받고 31師團만 撤收命令
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요?

○證人 崔 雄 현실로 보아서는 그 때 당시
로 보아서 31師團 兵力은 撤收를 했지요 저
희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李肯珪委員 알겠습니다. 그 지금 상당히
오해가 있는데 아까 空輸部隊가 가면서 火焰
放射器도 가지고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證人 崔 雄 가지고 갔습니다.

○李肯珪委員 火焰放射器를 示威鎮壓에 사용하
신 적이 있습니까?

○證人 崔 雄 火焰放射器는 여기에서 좀 확
실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戰鬥目的에 쓸 때는 그것은 「토치카」
같은 것 도 敵이 완강하게 이제 저항하고
있는 어떤 據點에 대해서 銃을 암만 쏘 봐
야 안되니까 불로다가 火攻을 하는 火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騷擾鎮壓裝備로 채택된 것은 그
러니까 불을 내 뿜을 정도의 압축이 이제
되거든요. 하니까 그 통에다가 물감을 넣든
지 아니면 개스를 넣어 가지고 그 騷擾群衆
에게 쏘므로 해서 騷擾을 막는 그러한 목적
에서 그러니까 다른 목적에 쓰기 위해서 가
져간 것입니다.

○李肯珪委員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해가 많아요.

○證人 崔 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니까 이 기회에 火焰放射器
를 사실 敵 殺傷을 위해서랄지 여러가지로
쓰는 것으로 아는데 그 火焰放射器를 썼을
때 그 火焰放射器의 效能에 대해서 證人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火焰放射器를 썼을 때 사람에게는 어떠한 被害
가 가고 周圍建物에는 어느 정도의 엄청난
火力일테니까 어느 정도 간다는 것을 일반
國民들이 알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시
지요.

○證人 崔 雄 火焰放射器이니까 말 그대로
불길을 내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길을……
原來目的은 그것입니다. 戰鬥에 쓰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불길을 멀리 내지르는
정도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騷擾鎮壓時 主動
者 체포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물감을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뿌
립니다.

그러면 빨간 물이 날라오고 점정물이 날라
오게 되면 示威群衆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騷擾鎮壓裝備로
채택을 했는데 아주 原始的이고 옛날에 이것
이 그렇게 죽 세 온 것인데 요즘은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李肯珪委員 자 그러면 다음 것 물겠습
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張委員 質問에 자꾸 설명할 기회를 자꾸 달라고 그러셨는데 아까도 한 우리 同僚委員이 證人을 갖다 訊問하는 과정에서 市中에서 나도는 冊子를 인용해서 80年5月23日입니다. 5月23日 15時30分頃에 光州 所台洞 池元洞 一名 주당지역이라 그러지요. 여기에서 證人 隸下의 空輸部隊 戒嚴軍이 지나가는 「버스」에 集中射擊을 加해서 많은 人命을 人命被害를 발생케 했다는 것을 既定事實化해 가지고 주장하면서 證人에게 證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光州事態에 대해서 眞實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證人께서 이 문제에 대한 要圖가 있으면 要圖를 가지고 차분히 자세히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證人 崔 雄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證人! 저기다 올려 놓고 저도 좀 보게 조금 앞당겨서 해주세요.

「마이크」해 가지고 이만큼 올려 놓고 하세요. 나도 알아야 되니까……

證人! 말 안들려요!

(「그냥 놓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 만큼 올려 놓고 해 주세요. 이만큼 올려놓고… 옆으로 저만큼 하든가……

(「委員長이 보실라면 이쪽이 안보이고 이쪽이 보일려면 委員長이 안보이는 데」하는 이 있음)

아니! 이만큼 가면 보입니다.

○金文元委員 委員長! 한마디만 합시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아니! 지금 訊問時間이니까…

○金文元委員 아니 이것 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차트」를 만든 것이 언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이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李肯珪委員 訊問한 다음에 하세요. 金委員! 가만히 제세요.

○證人 崔 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의문나시는 것 제가 대답을 해올리겠습니다.

○李肯珪委員 원 상에다 놓고 하시고 나중에 委員長께서는 말이죠 나중에 거시기 하십시오. 지금 계속 내가 質問時間인데 계속 지금 그냥 가지 않습니까?

○證人 崔 雄 「마이크」를 그만 들까요?

○委員長代理 辛基夏 아니!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면 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지 特定委員만 어떻게… 그렇게는 안돼요. 그대로 하세요!

○李肯珪委員 委員長!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證人 崔 雄 「파키스탄」에서 이틀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委員長代理 辛基夏 빨리 증언하세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하는 이 있음)

마이크 있잖아요?

○證人 崔 雄 5月21日…

(「아! 이 앞으로 갖다 놓고 해!」하는 이 있음)

○委員長代理 辛基夏 저기 「마이크」없어요?

좀 더 앞으로 하세요.

○證人 崔 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이 시간은 예드려요.

○證人 崔 雄 됐습니까?

○李海瓚委員 그냥 구두로 하세요! 다들려요!

○證人 崔 雄 예. 5月21日 光州道廳에서 撤收한 部隊는 光州로부터 和順으로 빠지는 길 光州外廓에 있는 이 주당으로 部隊가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에 旅團에 받은 任務는 光州와 和順에 이르는 도로를 봉쇄하는 이런 任務가 되겠습니다.

5月22일은 뭐 특별한 징후가 없었구요. 아! 징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所台洞 요 일대에 차량을 탑승한 그 示威隊들이 빈번히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示威隊들이 봉쇄선을 이렇게 돌파하지 않나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 경계를 강화합니다.

봉쇄선의 경계를 강화하는데 5月23日 아침에도 차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月23日 아홉시경에 「미니버스」한 대가 봉쇄선에 접근합니다. 접근하는데 봉쇄선무를 맡았던 여기에 나와있는 1個팀이 이 「미니버스」를 停車를 命합니다. 命하니까 이 「미니버스」는 封鎖部隊의 命에 應하지를 않고 應射를